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1월 14일(음력 10월 5일) 수요일 (주간) | 제653호

"작은 정성 모아 큰 이웃사랑"

불교계 각 복지단체·기관 등 다양한 소액기부 프로그램 마련

"저는 돈이 없어서 기부는 꿈도 못 꿔요."

"적은 금액이나마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날이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매체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는 마음이 아프다가도 '기부'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어려운 일인 줄 알고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기부는 어렵지 않다. 적은 금액이라고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기부의 출발점이다. 다만, 기부를 하기 위한 통로를 찾는 수고는 해야 한다.

소액기부로 작은 것을 나눈다는 마음을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중)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에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첫 등장때부터 소액기부 붐을 일으켰고 현재는 '1%나눔' 운동을 통해 기부문화 대중화 힘쓰고 있다.

불자들이라면 불교계 복지 · 교육기관들의 기부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이 갈 것이다. 특히 각 종단 사회복지재단에서 소액기부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7년부터 '결연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매달 단체 및 개인 결연후원자 1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층 청소년 · 독거노인 · 심신장애인 · 모자가정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등에 5~10만원씩 전달하는 사업이다. 가장 적게는 2천원부터 기부가 가능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복지사업부장은 "후원금 2천원이 적은 금액 같지만 그 돈이 모이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불자들이 결연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후원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참여를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셰어윌(share will)'이라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는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정신적 후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의미나 경험, 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태종복지재단에는 결식아동 3:1 릴레이 후원 프로그램인 '만만(滿?)후원단'이 결성돼 있다. '따뜻한 마음이 끝내 빛난다'는 뜻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천태종 사찰 신도 3~4명이 일정금액을 모아 저소득가정 학생 점심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후원단은 2004년부터 태백 탄광촌의 태서초등학교를 위시해 춘천 대구 포항 등의 학교 12곳 95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돼지해인 2007년에는 종단 사찰 산하 유치원, 어린이집, 사찰 등 100여 군데에 돼지저금통을 배포, '복돼지 키우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아이들의 소액기부운동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진각복지재단은 2004년부터 회원 1만명 모집을 목표로 '만월회(滿月會)'를 운영 중이다. 이는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후원결사운동으로 A가 1만원을 후원하면서 B에게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현재 참여인원은 2200여명이며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만월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앞으로 종합복지타운, 납골당 건립, 복지재단 특화사업 등의 큰 사업은 물론, 시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지원될 계획이다.

소액기부금이 꼭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같은 불자교육기관의 예산 편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은 매월 5천원~1만원을 기부하는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매달 개최되는 '불교여성지도자와의 대화'에 후원회원들을 우선 초대하며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상세히 알린다.

또 11월 20일 발족될 중앙승가대 후원회는 승가교육의 든든한 힘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승가대 후원회는 대만 불광산사 후원회를 벤치마킹했다. 불광산사는 매월 200만명에게 2000원씩 후원받고 있고 있는데 1인당 1구좌씩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승가대 후원회 역시 1인당 4구좌(1구좌당 5000원)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많은 액수를 한 번에 기부하는 것보다 적은 액수라도 꾸준한 후원이 있어야 후원회가 예산을 세우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다. 거리마다 낙엽이 쌓이는 이때, 이웃을 위해 불교계가 운영하는 '소액기부'에 동참해보자.

여수령 · 김강진 기자



'2007 행복나눔 김장행사' 개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계절이 돌아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입동인 11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SK텔레콤,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주기 위한 '2007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해 성공회푸드뱅크 대표 김재열 신부, 대한상공회 관구장 박경조 주교,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임명규 목사,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오른 쪽부터)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社告

현대불교·도전지구탐험대와 함께 떠나는

라오스 탓루앙 축제·성지 순례

부처님의 가슴뼈, 머리카락 사리가 모셔져 있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탓루앙에서 축제도 즐기고 라오스 스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퓨전성지순례'. 문명의 이기가 아직 접근하지 못한 순수한 라오스에서 불교의 순수성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07년 12월 12일~12월 18일
◆동참금 : 179만원
◆여행일정

일자	여행지	세부일정
제1일	인천 하노이 루앙프라방	인천공항 출발–하노이 경유–루앙프라방 도착 –석식 후 몽족 야시장 둘러보기 (재래시장 문화체험 및 오지부족 삶 들여다보기)
제2일	루앙프라방	–라오스 스님들의 '탁발공양' 동참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왓 시엥통, 왓 위순 사원 참배, 왕궁박물관 답사 후 메콩강 파우동굴로 이동 4,000여 불상 참배 (라오스 전통주와 항아리를 만드는 항아리마을 체험)
제3일	루앙프라방 방비엥	– 쾅시 폭포로 이동 – 소계림이라 불리우는 방비엥으로 출발 (이동중 다양한 고산족 마을과 주민을 보실 수 있음)
제4일	방비엥 비엔티엔	–파우동굴로 이동 불상 참배 및 아름다운 종유석 동굴 관광 –이색적인 몬도가네 아침시장 관광 –환상의 쏭강 쪽배 투어 –신비의 내륙 염전지 소금마을과 고산족 젓갈 마을 방문
제5일	비엔티엔	〈탓 루앙 사원 축제 참가〉 –탓 루앙 사원 탑돌이 및 참배 –주변 장터 둘러보기 –밤까지 이어지는 촛불행렬과 불꽃놀이
제6일	비엔티엔 하노이	–왓파케우, 왓시사켓, 불상 참배 –독립기념관 관광 –불상공원 '시앙쿠앙' 이색체험)
제7일	하노이 인천	–하노이 출발 –인천 공항 도착

*위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탓 루앙 축제란? 탓은 탑을 말하고 루앙은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곳에서 라오스 사람들은 매년 음력 11월에 한번씩 성대한 축제를 스님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탑돌이를 하며 소원을 비는 축제의 장입니다.

◆접수 문의 : 02)2216-2488,
◆주최 : 현대불교신문, 도지탐여행사

조계종 내년 예산 189억5천만원

금년 대비 3.3% 증가

조계종 제175회 중앙종회(의장 자승)가 조계종 내년도 예산안 189억 5000만원을 확정하고 산중총회법 · 호계원법 등 법안을 개정한 후 11월 6일 폐회했다.

11월 1일 개회해 5일 속개한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이 제출한 불기 255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89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7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것으로, 2년째 동결됐던 종무원 인건비가 3% 인상됐다.

조계종은 내년도 7대 전략과제를 △종풍진작사업 △대중원융살림회복 △전법과 복지진흥 △수행종풍의 사회화 △한국불교 세계화 △남북불교협력사업 △한국불교중흥인프라 구축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호계원법' 개정안, 전자투표 제도 도입 등 종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한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종헌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이월됐고, 10여개에 달하는 종법 개정안 역시 분과위 계류 및 심사보류를 이유로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한편, 175회 중앙종회는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진행했다.

여수령 기자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 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
▪주최 : 기원사 ▪주관 : 기원사 신도회 · 부부법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불교TV · 현대불교신문 · 불교신문 · 법보신문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는 절
기원사 산사음악회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 기원사와 함께 하는 노래가 있는 저녁

기원사의 30년 역사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주민들이 함께 일궈 온 따뜻하고 보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노고와 다가올 시간의 희망을 함께 가꾸어 보는 노래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멋들어진 시간에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화음이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동네는 하루저녁 극락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이 기쁜 자리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원장 지연 합장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일 시 | 2007년 11월 17일(토) 오후 5시 기원사 경내
식 순 | 1. 개회–사회 : 김병조 2. 큰스님 축사 3. 공연
출연진소개 | • 사회 : 김병조
• 정태춘 박은옥
• 조석호(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 안희진(경기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이수자)
• 크레이션 • 파파스(40대 동방신기) • 기원사 합창단


※ 유진박의 공연은 일정상 취소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징계절차 신속처리·자정기능 강화

숫자로 보는 조계종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 종무보고에 따르면,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은 모두 1455명이고 조계종 홈페이지 1일 평균 방문객은 2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호법부에 133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중 68건이 종결되고 현재 65건이 조사 중이다. 징계에 회부된 39건 중에서는 멸빈이 15건, 제적이 14건, 공권정지가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교육기관에 1455명 재학 中

▲종합민원실 운영 현황=지난 1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문을 연 종합민원실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승적증명 · 수계확인 · 재직증명 등의 증명발급업무가 561건, 신도등록 및 재발급은 모두 5185건이 이뤄졌다. 전화민원은 두 달간 모두 1964건이, 등기우편물 관리는 1270건이 각각 처리됐다.

▲종단 홈페이지 운영 현황=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의 총 회원 가입자수는 9546명이며 월별 총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8월 76,595명 9월 81,048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2627명이 방문한 셈이다. 또한 민원게시판에는 게시된 글은 8월 40건, 9월 25건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운영 현황=지난 4월 문을 연 불교중앙박물관에는 현재 총 254건 1372점의 유물이 있으며, 이 중 보물 4건, 지방문화재 2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안동 광흥사와 의성 운람사 등 기탁유물의 인수인계에 따라 기탁유물은 총 310건 1208점이며 소장유물은 71건 587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자원봉사의 경우 1 · 2기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213명이 활동 중이다.

▲기본교육기관 현황=지난 9월 30일 현재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학인은 모두 14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개 강원에 872명, 중앙승가대학교에 239명,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 58명,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119명, 기본선원에 167명이 각각 재학 중이다. 13개 사미 강원에는 385명이, 6개 사미니 강원에는 487명이 재학 중이다. 사미 강원 중에는 송광사 강원이 68명으로, 사미니 강원 중에는 운문사가 206명으로 가장 많은 학인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 · 특수교육기관 중에는 불교어산작법학교에 57명, 화엄학림에 12명, 운문 비구니승가대학원에 4명이 각각 재학 중이다.

▲국제간화선 사이트=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국제간화선 사이트에는 8~9월 두 달간 총 256,875명이 접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접속자 수가 많았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175회 중앙종회 결산

조계종 175회 중앙종회는 11월 5~6일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한 '호계원법'과 교구선관위의 직무 방기를 견제하는 '산중총회법', 교육현실에 맞도록 법조항을 정비한 '교육법'을 개정했다. 또한 '중앙종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종단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종단 자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호계원법'은 징계대상자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2회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호계위원은 사건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건 심리에 2회 이상 불출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불출석할 경우 심리일 3일 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호계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기하거나 위법한 결정을 할 때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일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제23교구 제주 관음사의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를 열지 않고 방기했음에도, 교구선관위원이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기존 조항 때문에, 선관위원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 '산중총회법'에서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구본사 주지의 요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교육법'은 현재 교육원의 편재에 맞도록 교육부 내 총무국과 교육국을 통합하고, 연수국과 불학연구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중앙승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기본교육기관으로 본칙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발맞춰 법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한편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 본회의 표결을 거수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탈피, 전자투표기로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종회의원들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회의원들은 본회의 개회 · 폐회 때만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회의 진행시에는 두루마기를 수하도록 했다.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도 이어졌다.

'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화계사와 협의한 결과 지금의 달마회관 부지에 동국대 종비생 수행관인 백상원을 건립하도록 했다"며 "다음 전체 대책위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수행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불기가 세계공용 불기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으로 구성된 '불기사용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통합 불기 제정 당시 2500년을 1956년인지 57년인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각국마다 다른 불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WFB와 국제불교사회의 명확한 확인 절차 후 내년 3월 종회 때 결론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종정감사특별위원회' 보고에서는 "종감 특위를 구성했음에도 총무 · 재정분과가 또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종회의장 자승 스님이 "작년에도 종정 특감 감사 기간이 일정치 않아 연장해가면서 했다. 이번에 기간을 정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산중총회 운영 강화 · 교육법 법조항 정비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 전자투표 도입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 사업자 선정

<인문한국>

學振, 10년간 최대 80억 원 지원

천태종 금강대(총장 성낙승) 불교문화연구소가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10년 간 최대 80억 원을 지원받게 돼 불교학을 심층 연구하는 토대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학진)은 11월 7일 인문한국지원사업(이하 HK)에 최종 선정된 연구소(단)를 발표했다. HK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연구부분 세부사업이다.

인문학의 세계적 담론과 소통을 주도하는 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규모에 따라 대형 연 10~15억 원, 중형 5~8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69개 대학(교)의 153개 연구소(단)가 지원해 24개 기관 30개 연구소(단)가 예비 선정된 바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HK 대상자로 선정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연구과제는 안성두 박사의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등으로 쓰여진 불교 고전문헌을 연구해 특정 시기의 인도 · 동아시아 · 티베트 불교의 형성과정과 수용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측은 △불교 고전어 · 불교 고전문헌에 대한 다층적 접근 △통합적 불교문화 연구의 국제 불교학 전문연구자 발굴 및 양성 △국제적 불교학 네트워크 조직 형성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베트남전 전몰 양국 영령 영산대재'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0월 27일 베트남 천년고찰 까우 사원에서 '베트남전 전몰 양국 영령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 총무원 부원장 겸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 스님들과 뜨이 하이정 군수 등 베트남 현지인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문화재관람료 바로알자' 조계종 교육자료집 발간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집 <국립공원 문화재와 문화재관람료 바로알기 · 사진>를 발간했다. 문화재의 개념과 문화재관람료의 필요성,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판결 요지 등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재사찰의 역사 · 문화적 가치와 국립공원 내 문화재사찰의 사역(域圖)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자료집은 총 3000부 제작돼 국립공원을 포함한 문화재사찰 및 관련 단체에 배포된다. 여수령 기자

'10.27 특별법 제정' 추진 시동

조계종, 추진위 발족 등

10.27법난에 대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데 이어, 법난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제175회 중앙종회 마지막 날인 11월 6일 10.27법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10.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오전 종무회의에서 '10.27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총무부장 원학 스님과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장 법타 스님을 공동위원장에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법안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책임지고 10.27 법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불교의 중흥은 선지식 양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000원 1구좌 갖기 운동, 여러분의 정성이 승가교육의 희망이 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 출범식

대한불교조계종 승려기본교육기관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수행 · 교육 · 연구 도량으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한 교육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의 출범은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사부대중의 정성을 하나로 모아 불교 중흥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승가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후원의 시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합장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정념



▣일 시 : 불기 2551년('07)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13:00~16:30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자비관 4층 대강당
▣식 순 : 1부 총장 스님 특별 법문(13:00-13:50)
2부 출범식(14:00-15:30)
3부 문화 공연(15:30-16:30)

* 후원하시는 방법
CMS 출금자동이체를 이용한 5000원 1구좌 후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후원회원 신청서(약정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안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신청서 다운 인터넷 주소: http://sangha.ac.kr

*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다음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국민은행: 253401-04-117893 농 협: 1336-01-000255
신한은행: 100-023-109088 우리은행: 1005-101-167780
외환은행: 630-005654-583 우 체 국: 100529-01-005197
(무통장입금 후원회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문의 및 신청서 접수
전화: (031) 980-7892~3 팩스: (031) 980-7891

中央僧伽大學校 JOONG-ANG SANGHA UNIVERSITY

韓·日 불자청소년 교류 정례화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사진 왼쪽)과 아시아불교도협회 회장 우시오 닛슈 스님이 한 · 일 청소년 교류 정례화를 약속하며 협약식을 가졌다.

파라미타·아시아불교도協 협약 체결

요즘 청소년들의 해외문화 탐방 욕구가 높아졌다. 불자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와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우시오 닛슈)가 한국과 일본 불자청소년들 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1월 7일 한국역사불교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두 단체는 간헐적이던 불자청소년들의 교류를 정례화 시키기로 결의하며 '한 · 일 불교청소년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여름에는 한국불자청소년들이 일본으로, 겨울에는 일본불자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12월 22~26일 일본청소년 20명이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내년 7월 28일(예정)에는 한국청소년들이 일본 묘법사에서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의 의미는 단순히 한 · 일 양국간 불자청소년들의 우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 일 모두 불자청소년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청소년 포교의 활로를 찾겠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두 단체는 한 · 일 불자청소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자리잡고 나면 이후 타이완 · 미얀마 · 베트남 등 아시아 불교국가 청소년들이 모두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결의한 것을 토대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불교도협회에서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과 사무총장 덕조 스님을 내년 초 일본에 초청하기도 했다.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은 "이번 교류로 한 · 일 불자청소년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우정을 쌓아 미래 양국 우호, 불교 세계 홍포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불교도협회 이사장 우시오 닛슈(일본 법화종 묘법사 주지) 스님도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서로 연결되어있다"며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 미래에는 모두 화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대선후보 초청 불교정책 토론회 연다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불교TV서 생중계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불교정책을 들어보는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가 11월 21일 오후 3시 개최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조계종 · 불교TV가 공동주최하고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불교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와 한국불교기자협회 등이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중앙일간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가 참여해 종교정책과 불교관계법관련 개정문제, 문화 · 문화재 · 환경 · 사회복지 관련 정책 등을 설명한다. 토론회는 패널 질의에 의한 응답과 후보자간 토론회 등으로 진행되며, 토론회 과정은 불교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제17대 대선후보초청 불교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는 이미 각 대선 후보 진영의 불교특보들과 사전회의를 진행했으며, 불교정책기획단은 불교계의 현안문제와 정책과제를 수집 · 정리하는 등 토론회 준비를 마쳤다. 불교정책기획단은 올해 대선의 주요 정책방향을 ▲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한 물질문명의 폐해 극복 ▲상생과 화합의 실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 ▲환경 및 생태의 보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정착으로 정했다.(02)732-7274

여수령 기자

"바르고 깨끗한 선거 치뤄요"

종교지도자協 대국민 호소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자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동참하자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후보자의 정책 · 정견을 꼼꼼히 살피자 ▲유권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투표에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용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배영호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경부운하 건설 땐 불교문화재 훼손"

보림·금강회,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 폐기 촉구

조계종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지준)와 금강회(회장 보선)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이 불교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림회와 금강회 소속 스님들은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대운하구간 중 조령수로터널은 백두대간의 월악산국립공원과 문경도립공원 일대를 관통하는데, 이 지역에는 보물급 불교문화재 68점을 비롯해 169점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존재한다"며 "터널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지반 변위 등 산지 파괴는 물론이며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령수로터널은 한강 수계의 충주호와 낙동강 상류 조령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20.5km의 터널을 말한다.

또한 '경부운하 조령대수로터널 관통에 따른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피해예상 의견서'도 작성해 배포했다.

보림회와 금강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안국포럼을 방문해 이명박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촉구서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여수령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사전 대비를"

불교계 기관 잇단 세미나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교계 각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1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시설 탐색 및 소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복지재단은 세미나를 기점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신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존 운영시설의 성공사례 등을 소개, 불교계가 급격한 복지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 주제는 '저출산 · 고령사회 이행에 따른 주요정책 동향분석(순천향대학교 조성희 교수)', '경기도 은빛사랑채 사업 조망을 통한 사찰 내 노인주간보호소 설치 모색(서울노인복지센터 정은하 연구원)' 등이다.

불교여성개발원도 11월 27일 오후 3시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불교계 역할모델 개발 세미나'를 연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여성불자 역할(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시민사회적 발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대응전략과 특성화 프로그램 모색(NGO리서치연구소 윤남진 부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사업 연구성과 중간보고회 개최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11월 10~11일 개최했다.

2011년 사업완료를 앞두고 그간의 연구 성과 공개와 중간평가를 겸해 열린 이번 국제워크숍은 디지털 사업을 추진 중인 한일 양측이 학술 문화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한 · 일 양국 및 미국, 영국 4개국의 대장경 및 전산전문가 7명이 초조대장경 이미지데이터베이스 시연회, 남선사 일체경과 한 · 일 공동 고려초조대장경 전산화 프로젝트, 동아시아 대장경 유통의 3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농협 종로지점 생명나눔 동참

"생명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서울 종로지점 직원 13명 전원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에 장기기증신청서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에서 11월 7일 열린 전달식에서는 생명나눔 참여단체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13명 직원이 장기기증서약서를 전달함에 따라 올해 생명나눔을 통한 장기기증 신청자는 총 1213명(11월 9일 현재)으로 집계됐다.

김강진 기자

김천 직지사서 담선법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11월 18일 오후 2시 김천 직지사에서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담선법회'를 개최한다.

법회에서는 전국선원수좌회장 혜국 스님이 법사로 나서 참가자들을 간화선의 세계로 이끈다. 혜국 스님의 법문 후 참가자들의 질의응답과 실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간화선 입문자나 간화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02)2011-1891

여수령 기자

I Love Buddha /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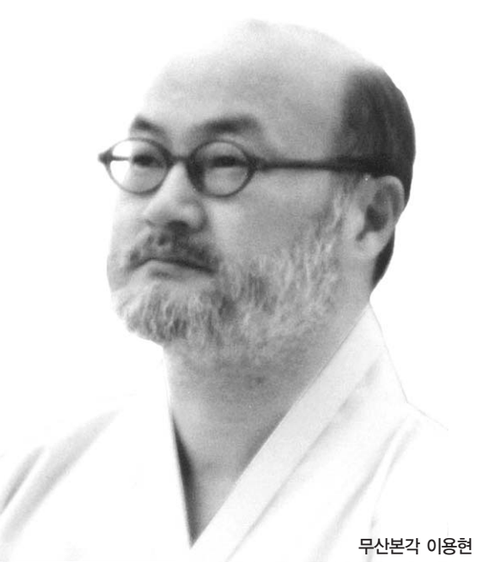
용정운(www.zentoon.com)





2,600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한 붓다의 6단계 정통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가면 붓다의 경지에 이른다

《불설대안반수의경》에는 수數 · 수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의 여섯 가지 수행관문이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 '유일한 길' 혹은 '성스러운 길'이라 부르는 이 붓다의 정통 수행법은 오랜 세월 속에서 파편화되어 오늘날 북방 대승불교권에서는 싸마타를, 남방 근본불교권에서는 위빠싸나를 위주로 한 수행법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 책은 붓다 입멸 후 흩어지거나 잊혀졌던 수행법들을 다시 모으고 복원하여 일관되고 완벽한 수행 시스템으로 재해석, 재조직한 것이다. 이로써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책을 펴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하게 복원되기에 이르렀고, 한국 불교 1,6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적인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은 2,6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저작으로 꼽히는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도 언급되지 않은 싸마디(삼매)를 성취하는 수행법,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지관병수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도道의 명지明知'를 성취하는 방법 등을 실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붓다의 여섯 단계 수행법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還'과 '정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법을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이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불교 수행법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무산본각 지음 | 전 2권(각권 18,000원)

무산본각 이용현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하게 복원하고 체계화한 그는 현재 목포의 마음닦기선원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다.

tel 02) 3143-0383 · 0338 fax 02) 3143-0378 유토피아

사랑으로 차린 밥상에 행복이 모락모락

수익금 노인복지에 기부하는 부산 '콩마을 푸른밥상'

"구수한 된장 맛이 사람을 끌어땡기는기지~우리가 뭐 날쌘 손놀림이 있나 뽀샤시한 얼굴로 어서오이소 할 수가 있나. 우리가 하는 거 그거 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 그거 뿐이다 아이가 아하하." 부산 서대신동 시장골목 속 음식가게 '콩마을 푸른밥상'에는 희망의 푸르름과 웃음이 가득하다.

콩마을 푸른밥상, 음식을 파는 다른 가게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어르신 8분이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밥 한 공기 반찬 한 접시 정성스럽게 담고 있다. 깨끗한 앞치마와 머릿수건까지 청결하게 준비해 맛 · 정성 · 청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또한 수익금 전액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해 더욱 의미가 깊다. 푸른밥상 식구들은 인공조미료는 일절 쓰지 않고 국산품만 이용하여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뭉쳐있다.

어르신들이 준비한 식단은 구수한 맛이 일품인 토종된장찌개쌈정식, 조개순두부쌈정식과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푸른쌈두부수육, 콩마을 맑은 소면, 생두부 등이다. 음식재료 중 토종된장은 부산 내원정사에서, 유기농 야채만을 이용해 생산하는 구수한 두부는 도솔산 콩마을 두부 사업단 어르신들에게 공급받는다.


음식준비가 고될 법도 한데 '콩마을 푸른밥상'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 핀다. 오른쪽부터 윤순분, 이영자, 이춘자 할머니.

조리팀장을 맡고 있는 이춘자(68 · 부산 서구 대신동) 할머니는 "손님이 오시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정말 기분이 좋다"며 "마음을 맞추어서 일을 하니 협동심도 배우고 음식 맛도 하나가 된다"며 일하는 동안 느끼는 마음을 설명했다.

조리담당 이영자(69 · 부산 서구 대신동) 할머니는 "팁도 받았다"며 "음식 맛도 좋고 우리가 잘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라고 자랑하며 밝게 웃었다.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을 쳤어요. 우리가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봉'이라며 손가락을 들던데요"라며 크게 웃는 윤순분(72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할머니, "15년 만에 처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돈 맛을 알았다"고 기뻐하는 한영순(66 ·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할머니 모두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 실무자 이해중씨는 "고객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며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아픈 곳도 없어지고 건강해지셨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콩마을 푸른밥상은 시장형 초기 투자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제안해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에서 출발한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051)244-6709

글 · 사진=하성미 기자



11월 2일 제9회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기조 발표한 보광 스님.

한국불교전서 인터넷으로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산화 완료

불교 문헌 전산화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경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가 1999년 전산화 시범사업을 필두로 2007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된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작업의 결과물(ebtc.dongguk.ac.kr)을 공개했다. 11월 2일 '제9회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를 통해 전산화 성료 기념 고불식에서다.

이날 행사에서 홍영식 · 이금석 · 이용규 교수(동국대 컴퓨터공학과) 등 전산시스템 전문가들이 전자불전 전산화 시스템의 기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학자로는 임종욱 연구원(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과 류승주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불교전서>는 동국대학교가 30여년의 인적 · 물적 지원을 통해 집대성한 한국불교 연구의 근간이 되는 자료다. 삼국시대 원측 스님의 <반야심경찬>부터 구한말 보정 스님의 <염불요문요해>까지 171명의 고승대덕, 명현학자 등이 남긴 288종의 불교 관련 문헌들을 발굴 · 수집해 전 14책으로 발간됐다.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번 전산화 사업을 이끈 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불교 문헌 전산화는 과거 찬란했던 불교 연구와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을 오늘에 되살려 그 숨결을 느끼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사업으로 본교가 갖고 있는 복합적 연구역량이 투영된 성과"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통해 ▲유니코드에 없는 글자 관리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저장 · 관리를 통한 다양한 구현 기술 확보 ▲웹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웹 서버 ·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 확보 등 장차 불교 문헌 전산화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조동섭 기자

동심으로 부르는 찬불가

어린이합창단 '법소라' 10주년 기념 음악회

"온 세상이 눈을 감는 밤에는 풍경 소리, 목탁 소리 친구되지요~♬"

맑은 어린이들의 음성에 맞추어 부처님 법을 노래하는 시간이 펼쳐졌다. 찬불가를 통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며 10년 역사를 이어온 양산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 소속 법소라 어린이 합창단(이하 법소라)이 10주년 음악회를 11월 4일 부산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전국 연꽃합창대회, 전국합창제 등에 초청 공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소라는 17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 유일의 불교 어린이 합창단이다. '법소라'는 티베트불교의 전통 악기인 둥첸(나팔)의 소라같은 모습과 소리에서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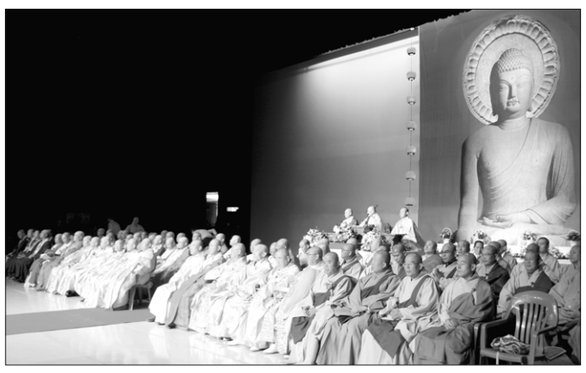
법소라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불지사 문화관에서 김성국 교수(부산여대)의 지도 아래 연습하고 있다. 박경재(51 · 명상심) 법소라 회장은 교리와 사찰 예절 및 포행을 한 달에 두 번 지도한다.

수강생은 수시로 모집하며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051)816-2241

하성미 기자

부산 불자들 '불교 수호' 한마음

부산불교연합회, KBS홀에서 제8회 팔관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불교수호대법회'에는 사부대중 5000여명이 모여 불심으로 단결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 수호를 위해 불교 수도 부산 불자들이 뭉쳤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1월 6일 부산 KBS홀에서 제8회 팔관회를 '불교수호대법회'로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은 "불교 수호는 거창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제방의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이 팔재계를 수지 · 실천하고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며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일심으로 노력할 때 할 수 있다"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불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200만 불자의 도시 부산에서 불자들이 합심하면 400만 부산시민들이 평안해질 것이며 나아가 이 나라 불자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등단, 팔재계를 설했으며 연합회 상임부회장 혜륜 스님, 연합회 사무총장 범산 스님 등 부산교계 원로대덕스님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조길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영주 부석사 현대풍으로 새단장

270억 원 투자 내년부터 본격 정비작업

영주 부석사가 현대적인 모습을 가미한 도량으로 거듭난다. "부석사 종합정비계획이 10월 30일 행정자치부의 중앙 투 · 융자 심사에 통과해 내년부터 총 270억 원을 들여 본격 정비작업에 들어간다"고 영주시가 11월 2일 밝혔다.

영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부석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현재 부석사에 100억 원을 들여 유물전시관 건립, 일주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8년에는 공양간 보수, 건물 단청 등 각종 사업에 17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번 행자부의 중앙 투 · 융자 심사 통과로 2009년 이후 2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엄사상연구원, 교육원 선방 건립, 연지 조성 주변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석사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부석사 종합정비가 완료되면 부석사는 화엄사상 교리 전파 및 인재양성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전통사찰이자 현대화된 불교사상 전파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의상 대사와 선묘낭자의 설화를 극화로 제작해 공연하는 등 부석사 알리기에 영주시가 적극 나선다.

강지연 기자

미황사, 12월 수행자 모집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가 한국 전통의 화두참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7박 8일간의 '참사람의 향기' 12월 수행자를 모집한다.

12월 15~22일 열리는 12월 특별수행 '참사람의 향기'는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법문(수행체계), 다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매일 6시간씩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의 지도로 참선수행을 한다. 수행문답 시간 외에는 묵언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아침에는 죽, 점심은 발우공양, 저녁은 효소와 주스 생강차 등으로 신체를 조절하는 오후불식을 실시한다.

법인 스님(대흥사 수련원장)이 '수행론'을, 금강 스님이 '좌선의' <육조단경> '화두간택'을 강의한다. (061)533-3521

강지연 기자

통도사서 산림대법회 선지식 53인 법석 마련

산에 있는 수풀처럼 많은 수행자가 모여 공덕을 닦는 혜림(慧林)의 자리가 마련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가 매년 동안거 기간 동안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위해 준비한 화엄산림대법회를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법회 기간 동안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보살행의 꽃이라 여겨지는 <화엄경>이 설해진다.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의 현담으로 입재하여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회향 법문으로 마무리될 화엄산림대법회에서는 총 53인의 선지식 법사스님이 화엄세계를 펼쳐낸다.

통도사 교무국장 진각 스님은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던 선재동자의 구도 의미와 <화엄경>의 뜻을 더욱 살려 53분의 법사스님을 선지식으로 모시고 산림법회를 열게 되었다"며 "불자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티베트 텐진 린포체 내한

청주 여자교도소서 마정수기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환생했다 알려진 티베트의 텐진 린포체가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의 초청으로 내한했다.

텐진 린포체는 11월 2일 7명의 스님들과 함께 청주 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불자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정수기를 했다. 수용자들은 한명씩 텐진 린포체와의 개인 면담을 통해 소원성취 의식을 봉행하고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통해 참 불자의 삶을 발원했다.

마정수기 의식 후 청주 대한불교수도원(주지 설곡)이 마련한 100가지 차 시음회에 참여한 텐진 린포체는 우리나라와 티베트의 차에 대한 교류 시간을 가졌다.

혜철 충청지사장

"군대에 부처님 말씀의 씨앗 뿌려요"

軍포교의 선봉 대원불교청년회

포교의 외곽지대, 군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꾸준히 활동을 펼치는 전법사들이 있다.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 대원불교청년회(회장 조재호)를 해군 3함대 군법당에서 만났다. 장병들을 위해 마련한 장기자랑 대회에서다.

대원불교청년회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7시면 어김없이 해군 3함대를 찾았다. 불교에 관심 있는 장병들을 위해 찬불가 · 율동 지도, 불교교리 퀴즈대회 골든벨을 울려라, 국악 공연 등을 진행하며 장병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11월 7일에는 특별히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은 "부처님의 법에 친숙해지도록 도와 군 생활동안 지혜롭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포교를 시작했다"며 "지금은 작은 활동이지만 이 노력들로 인해 분명히 부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신행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호 회장은 "처음에는 장병들이 절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불교에 대해 정적인 인상만 가지고 있어 접근하기가 힘들었다"며 "지금은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합장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원불교청년회는 앞으로 능동적인 포교활동을 위해 장병들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연락과 청년회 소식지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찰을 순례하며 학습할 계획도 준비 중이다. 조 회장은 "현재 해군 3함대 법당을 찾는 장병들의 80%가 경남 · 부산 출신이어서 장병들이 제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포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장병포교의 미래를 전망했다.


해군 3함대 군법당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한 불자장병들.

대원불교청년회가 장병들의 군생활에 조언과 즐거움을 담당한다면 먹을거리는 열린마음봉사회가 맡았다.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수요일에는 해군 3함대 장병들을 위한 간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한다.

하성미 기자

'東亞 문화정체성' 확립 방안 논의

동국대, 韓·中·日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11월 15~16일 교내 예술극장에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한·중·일 협력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조직위원장 홍윤식 박사(일본학연구소장)는 "고령화, 환경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삼국 공동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의의를 설명했다.

행사는 제1분과 경계를 뛰어넘는 문화, 제2분과 의료 · 생명윤리, 제3분과 경제 · 산업 제휴, 제4분과 고령화의 진전과 가족 · 사회, 제5분과 기후변화와 동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일 협력방안으로 나뉘어 3개국 46명이 발표한다. 각 분과별 주제발표 뒤 별도의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지원·시설 부족…지속적 논의 필요

✓ 불교계 여성복지 실태와 과제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女性變性成佛).'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女人卽身成佛).'
여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불교교리. '현재, 불교계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불교사회복지영역에 분명히 '여성복지'라는 분야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또한 '여성복지'는 여성정책과 접합되어 그 정체성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교계에서는 여성복지가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지 한 세미나를 통해 살펴봤다.


'여성복지'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종교계 여성복지를 되돌아 보는 세미나가 11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는 11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성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복지 현황과 방향은 물론 한국불교 · 일본불교 · 기독교 · 가톨릭여성복지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이어졌다.

(재)청호불교문화원 이종욱 이사장은 "우리사회는 문화지체현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직 · 간접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로부터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을 마련, 국가와 종교단체를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세미나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복지는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복지'다. 여기서 '복지'라는 말부터 다시 새겨봐야 한다. '복지'는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제도 등을 모두 총칭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여성복지는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회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전쟁으로 양산된 홀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여성복지가 시작됐다. 이후 윤락여성, 미혼모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단편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여성복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990년대에 성평등에 대한 관점이 도입되면서부터 여성복지의 대상은 요보호(要保護) 대상자에서 일반여성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현재는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여성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까지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성가구주,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킬만한 복지정책도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도 아쉬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종교 사회복지의 존립이유가 바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세심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상자들에게 '맞춤식 복지'를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즉, 불교계에서 여성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관료화된 국가기관의 개입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여성복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도 기조 발표를 통해 "여성복지 분야가 종교복지 체계 내에서도 타 복지분야보다 사업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다"고 진단하며 "여성복지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 · 장애인 여성복지에 종교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간다면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직영 여성복지시설 3곳에 불과
여성이용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全無

사실 불교여성복지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활발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설을 살펴보면 결과는 참담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임해영 연구원이 발표한 이날 논문에 따르면 2006년 6월 기준 사회복지재단 산하 단체가 477개인데 이 중 여성복지시설은 단 10개다. 이는 국가에서 설립해 위탁운영을 맡긴 결혼이민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두 포함한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실질적으로 불교계에서 직영하는 여성복지시설은 '자비의 쉼터(감천복지재단)', '화엄동산(사단법인 선우)', '나눔의 집(사단법인 나눔의 집)' 3개소 뿐인 셈이다.

여성종교복지는 타종교의 경우도 그리 활발하지는 않다. 그러나 가톨릭은 2005년 통계에서 볼 때 29개 시설을 운영, 불교보다는 여성복지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신교는 200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시설에는 5억, 이용시설에는 7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여성이용시설에는 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불교계 여성복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성기관들이 서로 연대하지 못해 인프라 구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복지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토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여성에 관한 것은 복지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여성복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여성복지활동을 전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스님들은 현장 활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불교 고유 가치를 살려 전통적 가족 기능이 상실된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여성복지 찾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뇌종양과 힘겨운 사투 벌이는 열두살 준범이

생명나눔, 11월의 환우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11월의 환우로 준범(12)이를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준범이는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렸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 넘겼지만 그것은 뇌간의 약성신생물, 즉 뇌종양의 전조 증상이었다.

입원과 동시에 독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치료하는 중에도 종양은 계속 커져갔다. 그러다 희망이 싹텄다. 한방 항암치료와 침구치료로 전환한 뒤 종양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준범이 어머니는 그동안 치료비로 1400만원을 지출했다.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한 달에 300~4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

정부 보조금 68만원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준범이에게도,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해 준 어머니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때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④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

한국불교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소홀한 분야가 있다. 바로 장애인복지다. 불교사회복지 중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 조석영 사무국장(45·사진). 그가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장애인 복지에 더 큰 관심을"



"전 별로 재미없는 사람인데…."

민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하는 조 국장은 정말 진지한 복지맨이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1989년 서울정신지체인복지관을 시작으로 18년이 넘는 시간을 장애인복지에 매달려왔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8월에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대학원도 졸업했다니, 실무경험으로나 학문으로나 베테랑이라 할만하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제 숙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안동 집 근처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어 그곳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 국장이 중학교 2학년이던 무렵, 한창 새마을운동이 일어 시골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재건축하던 때였다.

18년 이상 장애인복지 분야 외길
경험·노하우 담은 책 집필 준비도

페인트에 섞으려 가져다 놓은 신나가 군불에 잘못 뿌려져 조 국장은 큰 화상을 입게 됐다. 당시 조 국장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의 목 언저리에는 아직도 그 때 화상 흔적이 남아있다.

"한창 예민한 때라 방황도 좀 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시더라고요. 그 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한 길만 보고 한 길만 걸어온 그가 불교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불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 국장의 할머니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가실 때 뒤에서 쌀을 들고 10리를 함께 걸어다닌 인연이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까지 연결된 것이다.

자신도 불자이기에 항상 복지관에서 불교식 프로그램을 총 동원하려 애쓴다는 조 국장.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장애인들이 사찰이나 불교장애인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들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라고 한다. 사찰도 불교계도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어 줬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일까. 꼼꼼한 성격으로 복지관 살림을 챙기는 그는 이용자들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 생각한단다.

"복지는 평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그는 요즘 장애인복지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다. 1993년부터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며 쌓은 장애인복지 노하우를 그냥 묵혀두기 보다 불교계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단다.

"'불교장애인복지 개론서'를 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분야는 불교계가 후발주자다 보니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미력하나마 조금씩 제 노력의 결과도 불교장애인복지 자료로 축적해놓으려고 합니다."

김강진 기자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

성불화

만트라㉾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특별할인가격 79,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발아치 보강 기능
- 체중 분산기능
- 충격 흡수기능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진산겔 · 진산고 특별할인판매

진산겔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산은 인삼에서 추출한 소량의 신물질로서 적은 생산량과 고가의 가격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으나 금번 고농축의 진산겔이 출시됨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진산고와 겔을 구입할 수 없었던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명품중의 명품

가족! 건강! 생명!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진산

특허권소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면역학연구실

미 국 특허획득 (제 6555527호)
한 국 특허획득 (제 144130호)
한 국 특허획득 (제 0361187호)

80박스 한정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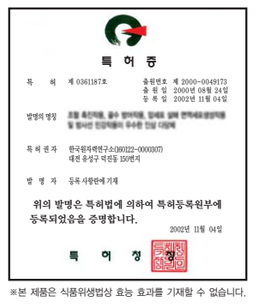


• 진산겔 1박스(20g×60포)

진산膏(고) 20셋트 한정판매



• 진산고 1세트(2병)


특 허 증
특 허 제 0361187호
출원번호 제 2000-0049173
출 원 일 2000년 08월 24일
등 록 일 2002년 11월 04일
발명의 명칭 조절 촉진제를 유효 함유하였을 경우에 면역세포 증식작용 및 항바이러스 작용이 우수한 진산 다당체
특허권자 한국원자력연구소(301022-0000307)
대전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발 명 자 동일 사람(생략)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2년 11월 04일
특 허 청

※본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효능 효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인삼속 진주 진산膏(고)

• 인삼 1톤에서 30kg 정도의 극히 적은양 만이 추출되는 인삼 다당체로서 국내 유일의 신물질
• 과학기술부 '진산' 실용화 과제(대량 생산기술 개발) 공동연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 인삼 다당체를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주)코인텍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으로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제조원 (주)코인텍
구입문의 080-838-2500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파사현정 위법망구하라"

〈破邪顯正 爲法忘軀〉

신흥사, '정화6비구' 성준 선사와 불교정화운동 학술적 재조명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 인근에는 경찰의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불교정화' '불법에 대처승 없다' 등의 피켓을 든 스님들과 '비구승이 빼앗은 사찰을 돌려 달라'고 외치는 스님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서로 팽팽히 맞섰다.

경찰이 막아선 가운데 비장한 표정의 스님들이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채 대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교단정화를 위한 순교단이었다. 경찰의 차단으로 인솔했던 숭산 스님과 다수의 스님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6명의 비구스님(문성준 · 유월탄 · 정성우 · 권진정 · 이도명 · 김도현)들은 혼신을 다해 결국 대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교단정화의 큰물줄기 속에 비구 · 대처로 분열돼 몸살을 앓았다. 비구 · 대처 양측의 사찰 소유권 및 점유권에 대한 것은 표면적 갈등이었고, 그 실상은 청정비구가 당시의 세간법으로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였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한국불교가 새 생명을 얻느냐, 금치산자가 되느냐의 기로였다.

대법원은 1955년 승려대회를 도출해 낸 대책위원 중 대처측 대표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처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1955년 승려대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당사자 적격 여부만이 심의된 채 청정비구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대처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자 대법원 안에 있던 6명의 비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오후 3시경 2층 대법원장실로 달려갔다. 대법원장실에 이르렀으나 대법원장은 자리에 없었고 용건을 묻는 비서에게 스님들은 '불교를 위하여 순교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대법원장에게 전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일제히 칼로 자신의 복부를 갈랐다.

월탄 스님 등은 "불법에 대처승은 없는데 재판에서 세상법으로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호소하러 왔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 비서실장은 당황하여 기다려 달라 했으나 이미 바닥에는 스님들의 피가 흥건히 고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다리던 대법원장이 아닌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스님들의 복부에 박힌 칼을 빼고 곤봉으로 마구 구타했다. 폭력으로 강제 진압된 6명의 스님들은 실신하여 들것에 실려 나갔다.

6명 비구스님들의 순교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계사에서 단식 중이던 400여명의 비구 · 비구니들이 일제히 대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판사들은 뒷문으로 도망쳤고 대법원은 아수라장이 됐다. 출동한 경찰 기마대가 곤봉을 휘두르며 스님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스님 353명이 연행되고 24명이 구속됐다. 당시 언론들은 '대법원 난입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사건은 법원이 교단정화를 위한 순수한 애종심의 발로였다는 정상참작을 통해 가벼이 처리하면서 수습됐다. 초기에 폭도로 비구를 매도하던 언론도 난입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크게 비판적이지 않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조계종의 반석이 된 '정화6비구' 사건이다.

2007년 11월 3일 설악산 신흥사(주지 · 무산) 설법전에서는 당시 6비구로 제2정화운동의 주역이었던 성준 선사 열반 3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성준 선사의 생애와 불교정화운동'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이강순(서강대 사학과 박사과정)씨가 '신흥사의 사격과 고암 대종사'를, 적멸 스님(동국대 박사)이 '성준선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박부영 국장(불교신문 편집국)이 '대법원 육비구 할복 사건 전개과정과 의미'를,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제2정화운동과 영축회'를 발표했다.

적멸 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성준 선사의 사상을 '엄격주의'와 '위법망구'로 정의했다. 적멸 스님은 성준 선사의 엄격주의에 대해 "성준 선사는 단 한번도 조석예불을 거른 적이 없었으며 시물을 아끼고 공과 사를 분명히 했다. 계율의 엄정에는 나와 남이 따로 없었다"며 성준 선사의 엄격주의는 율사였던 은사 고암 스님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성준 선사가 일생의 신조로 삼은 '파사현정 위법망구(破邪顯正 爲法忘軀)'가 교단청정에 헌신한 그의 불석신명(不惜身命)한 삶으로 실천됐다는 사실을 통해 '위법망구'함을 보였다.

김광식 교수는 1967년 1월 20일 화계사에서 열린 영축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위한 발기취지문이 성준 선사의 이름으로 나갔음과 숭산 스님이 성준 선사에게 보낸 서신을 예로 성준 선사가 영축회의 주축이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영축회의 교단청정을 위한 개혁정책들이 주체세력의 이완, 간부진 및 회원의 이탈,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등으로 중단된 사실을 보이며 그 역사적 의의와 현실의 소통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준 선사 열반 30주기 추모학술세미나는 불교정화운동의 학술적 재조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교계 안팎의 내우외환에 봉암사 법회 등 교단 내 자성청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삼악도에 빠진 불교의 앞날을 걱정하며 순교한다"는 정화6비구의 정신이 어떻게 발로될 수 있을지, 청정교단에 쌓인 홍진(紅塵)을 날려버릴 조계종단 개혁풍의 세기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11월 3일 설악산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린 성준 선사 열반30주기 기념 학술대회 . 사진제공=법륜신문

수국사 고려 목아미타불좌상 복장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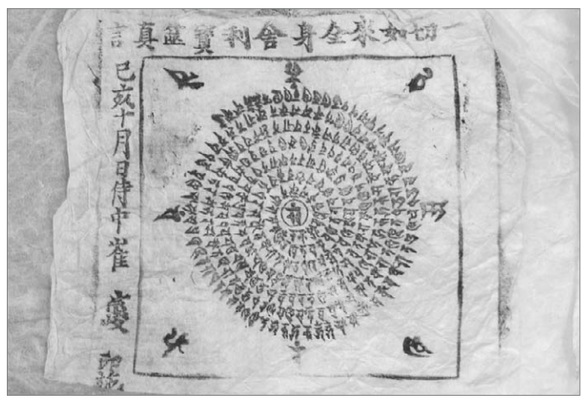
11월 10일 제15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와 함께 이뤄져

서울 수국사(주지 토진)가 고려시대 목아미타불좌상 발견 후 2년간의 연구성과를 점검하는 복장품 공개간담회를 11월 7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경전, 개금발원문, 다라니, 목화솜 뭉치, 사리 장엄구 등 200여종을선보였다.

토진 스님은 "수차례 화마와 전란 속에서도 훼손 없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목불을 통해 수국사에 새로운 중흥의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06년 문화재 조사를 하다 고려시대 목불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불상의 형식이나 복장 다라니 등으로 볼 때 1239년 철원 심원사에서 조성된 고려시대 불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목불의 조성연대가 고려시대라고 주장했다.

복장품으로 함께 발견된 다라니는 흔히 조성연대 증명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발원문에 버금가는 자료로 '시중 최종준'이라 표기돼 있다. 최종준은 최영 장군의 조부이다.



수국사 목불의 조성연대를 가늠케 한 복장 다라니(좌측의 '시중 최종준').

수국사 목불은 불교조각사 연구와 함께 복장이 제대로 갖춰진 점에서 문화재로의 의의도 상당하다. 함께 발견된 17종의 경전들은 수차례 개금불사를 거치며 고려, 원, 조선의 시대별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경전 연구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편 목불의 학술적 조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11월 1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제15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를 열었다.

'수국사의 사원배치와 불교미술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국사 목불 복장품의 전적과 조성 후원자, 조성사찰 등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통해 2006년 발견된 고려 목아미타불좌상은 물론 수국사 전반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이끌어냈다.

조동섭 기자

북한산 고려 불교 유물 500여점 출토

삼천사지 탑비구역에서 발견돼

서울역사박물관이 11월 6일 북한산 삼천사지 탑비구역에서 고려 불교 유물 500여점 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박물관은 법상종의 주요 연구자료가 될 명문비편과 고려 전기 건물터를 새로 확인했다.

특히 250여 점 가까이 발굴된 명문비편은 고려 전기 법상종 승려인 대지국사 법경의 행적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학계의 기대가 크다. 법상종은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융성했던 불교 종파로 그동안 관련 자료 등이 적어 연구에 어려움이 컸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 성과 공개에는 탑비전으로 추정되는 고려 전기 건물터의 확인사실과 청동사리합, 은제투각칠보문장식, 고려석조보살두 등 고려 전 · 중기의 희귀한 유물 등이 함께 공개됐다.

조동섭 기자



고려석조보살두.



명문비편.

학술단신

■ **제47회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연다.**

한국불교학회(이사장 이평래)는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문화관에서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및 2007년 정기 평의원 총회를 연다. 불교교리, 불교역사, 응용불교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7명이 발표하는 이번 대회는 중국의 석학 루우열 교수(중국 북경대)가 '중국의 불교와 도교의 교섭'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2008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회) ◦불교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	10명

2. 지원자격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7. 10.29(월) – 11.30(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서접수 : 2007. 11. 5(월) – 11.30(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07. 12. 7(금)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07. 12.12(수)
5) 등 록 기 간 : 2007. 12.17(월) – 12. 24(월)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2) 시간 : 2007. 12. 7.(금) 13:00 (박사과정), 14:00 (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과정 :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 수계확인서 (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8.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박사과정 80,000원 / 석사과정 6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내선 : 7864) / 전송 : 031)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익년 4월 구족계수지 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 앙 승 가 대 학 교 대 학 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날마다 좋은날

간화선대중화를 위한

"간화선수행법에 대한 담선법회"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청정한 우리의 성품을 밝히게 합니다. 간화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확신과 참나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발심 그리고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입니다. 이에 포교원에서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하여 화두 참구법과 좌선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선지식을 모시고 종단 최초로 담선법회를 개최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대중법회 안내 –

■ **일 시 :** 불기2551(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음 10. 9) 오후 2시
■ **장 소 :** 김천 황악산 직지사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
■ **법 사 :** 혜국스님 (전국선원수좌회 회장)
■ **진 행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 의 : 포교원 신도국 02)2011-1892~3
직지사 포교국 054)436-9462

* 30명 이상 단체 참석할 경우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복원한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과 새로 조성한 종루.


원통보전 땅속에 묻은 타임캡슐.


2005년 당시 화재로 폐허가 된 낙산사 전경.


전체공정 중 70%가 복원된 낙산사 전경.

천년의 세월을 되살리다

원통보전 낙성식과 범종 타종식 앞둔
낙산사 복원 현장

2005년 4월, 낙산사에 뜻하지 않은 산불이 닥쳤다.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인 낙산사 원통보전은 검게 그을린 7층석탑만을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 역시 종루와 함께 녹아 없어졌다. 그나마 주지 정념 스님이 황급히 옮긴 건칠관세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만이 화를 면했다. 끝내 화마로부터 성보를 지켜내지 못한 스님들과 신도들은 거대한 불길 앞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잿더미가 된 도량을 보며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불이 나기 전의 상태가 아닌, 통일신라시대 의상 대사가 창건할 당시 모습으로 낙산사를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흘렀다. 낙산사가 원통보전과 동종 복원을 마치고 11월 16일 낙성식과 범종 타종식을 봉행한다. 낙성식을 1주일 여 앞둔 11월 7일, 낙산사 복원 현장을 미리 찾았다.



새롭게 되살아난 낙산사 원통보전. 홀로 남았던 7층 석탑이 반갑게 맞아주는 듯 하다. 작은 사진은 화재당시 석탑만 남은 모습.

일주문에 들어서니 마음이 바빠졌다. 원통보전을 빨리 보고 싶었다. 멀리 원통보전의 기와가 보이기 시작했다. 거세던 불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세월 속으로 사라졌던 원통보전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1000만 불자들의 간절한 원력의 결실이다.

현장은 아직 여기저기 중장비 차량이 서 있고 건축자재가 놓여 있어 어수선했다. 고개를 돌리니 포크레인 너머로 새로 지은 종루가 보이고 불타 없어졌던 동종이 새로 걸려 있었다.

낙성식 준비에 한창인 총무법인 스님은 "공사는 현재 70% 정도 완료됐다. 마무리 공사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원통보전을 비롯해 중요한 공사는 거의 끝난 셈이다. 복원공사는 2009년이 돼야 완전히 끝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물인 건칠관세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던 원통보전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옛 절터를 바탕으로 불에 탄 것과는 다른, 조선 세조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복원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사각형 건물에 화강석 기단, 배흘림 기둥, 팔작 지붕 등을 갖췄다.

복원 과정에서 주지 정념 스님은 원통보전의 설계도 등이 들어 있는 타임캡슐을 땅 속에 묻어 눈길을 끌었다. 기둥은 양양군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적송을 썼다. 지역 문화재로 지정된 원통보전 담장과 주변도 공사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모두 말끔하게 제 모습을 찾았다.

동종(銅鐘)은 사진과 탁본 등을 이용해 원형대로 복원했으며 타종을 위한 범종이 따로 제작됐다. 종이 안치될 종루는 십자모양의 팔작지붕과 누각으로 지어졌으며 소실됐던 홍예문, 요사채 등도 대부분 복원됐고 일부 전각만 남아있다. 낙산사는 2005년 대형 산불로 15채의 건물중 11채가 전소됐다.

비록 낙산사의 풍광을 빛냈던 주변 소나무 숲은 사라졌지만 새로 심은 3000여 그루의 소나무가 다시 낙산사를 지켜주고 있었다.

낙산사는 의상 대사가 창건한 이래 유달리 화재로 인한 아픔을 많이 겪었던 절이다. 같은 터에서 숱한 세월이 사라졌고 또 세워졌다. 새로 세워진 원통보전에서 천년의 세월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천 년 전에도 이곳은 낙산사였고 지금도 이곳은 낙산사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었던 의상 대사의 간절한 원력을 품은 관음도량 낙산사. 이제 모두의 원력으로 다시 천년세월을 품기 시작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최근 낙산사 홍련암과 의상대 일원에 대해 명승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낙산사와 양양군은 경내 전체를 명승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낙산사 측은 "낙산사를 배제하고 의상대와 홍련암이 있는 해안 절경만을 분리 지정할 경우 관동 8경의 하나로 전해지는 낙산사 명칭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양양 낙산사=박재완 기자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낙산사를 따뜻한 사찰, 정이 넘치는 사찰, 누구나 편안히 와서 기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원통보전 낙성식 준비에 한창인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 사진)은 사찰 운영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스님은 화재 이후 사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동안 30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1년 365일 방문객들에게 국수도 무료로 대접한다. 뿐만 아니라 경내에 무료 커피 자판기도 운영하고 있다.

불자들의 복원 발원이 보태져 낙산사가 새롭게 태어난 만큼 불자들에게 회향하고 싶다는 정념 스님은 공사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원 마련이었다고 회고했다.

"복원 공사에 약 80여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는데 처음에는 국가가 모두 해줄 것처럼 매스컴에 보도돼 후원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불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한 번도 낙산사 복원을 위해 기금 마련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하는 불자들의 기도비와 보시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공사를 강행했지요."

정념 스님은 이번 낙산사 복원 의미에 대해서 "낙산사 복원은 단순히 불타 없어진 것들을 다시 만들어 세우는 일이 아니라 창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함으로써 그야말로 천년고찰의 옛 모습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사 소 용 영 가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랑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73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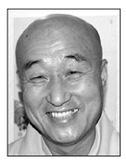
일 주 문



의천 스님 열반 다례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1월 14일 오전 11시 개성 영통사에서 6 · 15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다례재 법회를 개최한다.



성철 스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11월 2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02)2198-5372



특전사령관 취임법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11월 4일 특전사 호국사자사에서 특전사령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군종병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남양주불교환경연대 창립식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1월 17일 오후 1시 남양주 묘적사 대웅전에서 남양주불교환경연대 창립식을 봉행한다. (02)720-1654



인천 황룡사 창건 1주년 법회
인천 황룡사 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11월 4일 '황룡사 창건 1주년 및 신도회 창립 3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2회 명원국제차문화대상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1월 6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2회 명원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복명상 프로그램 실시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11월 16일 남양주 오덕훈련원에서 '나와 세상을 돕는 어머니들의 행복명상'을 실시한다. (02)722-2101



'생명생태윤리 시각에서 본 방송' 세미나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회장은 11월 9일 서울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생명생태윤리 시각에서 본 오늘의 방송'을 주제로 방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사

■ **불교TV** 불교TV는 11월 5일자로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부서장 제도를 책임프로듀서인 CP제로 전환하고 제작CP 인사를 단행했다.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1CP 윤정현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2CP 강영호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3CP 류건욱

이전

■ **화남출판사**는 11월 5일자로 사무실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로얄플라자 602호로 이전했다.(02)3142-4787
■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는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6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02)745-5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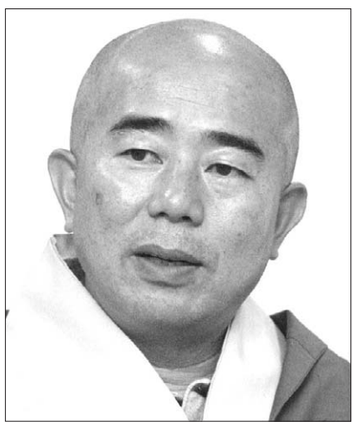
"승가대 발전 위한 소임 다할 것"

중앙승가대 후원회장 정념 스님

2009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종범)가 명실상부한 수행 · 교육 · 연구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한다.

중앙승가대학교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승려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미래 불교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불사를 위해 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후원회 출범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현재 종단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시대에 걸 맞는 승가도제교육이다. 종단의 폐단 등 제문제들은 결국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이라며 인재 불사의 관점에서 승가대 후원회 발족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대학원생이 100여명에 이르지만 기숙사도 없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며 승가대 학인스님들의 어려운 교육환경을 예로 든 스님은 "종단의 지원이 미비한 현실에서 일정부분 이상을 후원회가 분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후원회의 모금을 통한 효과에 대해 "후원금 모연을 통해 승가대 마스터플랜에 따른 승가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중앙승가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후원회 활동에 따라 확보된 예산은 △학인스님들의 등록금 지원 및 연구 수행 풍토 조성 △교원확보 및 연구활동 보조 △국내외 학술교류 확대 △교직원 재교육 △필요시설 건축 등에 쓰이게 된다.

"11월 20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론 · 사찰 · 신행단체 · 후원자 등의 동참을 확대할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힌 스님은 10만 대중의 풀뿌리 모금 참여를 목표로 '5000원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회를 별도의 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산하에 두도록 했으며 소액모금은 후원회 명의 통장이 아닌 학교명의 통장으로 했다"는 스님은 후원회의 투명운영과 승가대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후원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개최해 후원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불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후원회가 단순한 모금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로 대중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법우들에 도움 되는 신행문화 만들터"

조계사 청년회 김영선 신임회장



"법우님들의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청년회 김영선(40, 법명 혜광 · 사진)씨가 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법회를 기점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조직효율을 높이고 피부에 와 닿는 법회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조계사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등에서 1996년부터 사무총장, 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청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 회장은 조계사 청년회 문화 조성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우선 김 회장은 부서를 통폐합, 특성화 · 전문화시켜 부서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우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 · 종교 · 사회 · 문화 법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기획실장, 불교미래포럼 운영위원 등의 직책까지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교사회복지와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사는 청년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도 조계사 청년회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어려운 곳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회원간의 화합이다.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정비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선배 법우 인명록을 작성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청년회 활동은 수행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서 병행돼야 합니다. 법우들이 자부심을 갖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우리 목표는 한국불교의 청정성 회복"

침묵시위 펼친 중앙승가대 원우회장 각의 스님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개원됐던 지난 11월 1일. 종회 의장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10여 명의 스님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피켓에는 '부처님 법 실천하여 정법불교 이룩하자', '청정수행 결사하여 불교발전 이룩하자', '불교대중 무시하는 언어폭력 자제하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위에 참여한 스님들은 '자성청정 실천대회 추진위원회' 회장 각의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원우회장 · 사진)과 승가대 학인 스님 그리고 불교인권위 상임대표 진관 스님이다. 학인스님 30여 명은 이에 앞서 10월 29~31일 중앙승가대에서 참회정진을 봉행한 바 있다.

각의 스님은 먼저 "부끄럽다"고 말문을 연 후 "승가의 일원으로 관음사 · 마곡사 · PD수첩 보도내용 등의 사태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에 교단 청정의 불씨를 지피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시위의 의의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10월 29일 열렸던 자성청정법회 실천대회 이후 첫 번째 실천행으로 침묵시위에 나섰다"며 "이번 시위를 계기로 교단 청정의 목소리가 본 · 말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준비해 배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열린 11월 6일까지 시위를 지속한 각의 스님은 "이제 침묵시위 대신 교단 내 자성청정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전과 홍보물 배포 등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명불회, 파라미타에 후원금 전달



11월 7일 명불회(회장 박용근)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명불회는 불교용품 판매 · 제작 업체 13개 대표들이 만든 신행단체로, 이날 후원금 전달을 계기로 계속해서 파라미타에 청소년포교 기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도후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 안팎에서 청소년 포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윤환 회장 '부산불교시민산업대상' 수상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은 11월 6일 (사)부산포럼에서 주최하는 '부산시민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독서사랑 운동 및 문화 활동 등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불자인 저와 함께 신행생활을 하고 계신 도반님들이 참여해주셔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일붕선교종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 봉행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총무원장 지공)은 11월 15~17일 의령 일붕사 석굴법당에서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5일 가사점안을 시작으로 진행된 종도교육과 17일 수계법회로 원만 성료된 이번 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공, 재단이사장 경원, 종회의장 화엄, 일붕사 주지 혜원, 교육원장 원각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120여명이 계를 수지한 수계의식에서 총무원장 지공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의 종도로서 또한 수행자로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정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02)998-8161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38-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카드결재 가능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참된 용기' 보여준 미얀마 승려들

e 해외불교칼럼

나는 최근 미얀마 사태를 지켜보며 불법에는 다른 믿음이나 삶터에는 없는 특별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새삼 깨닫는다. 헛되고 거친 폭력이 더욱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마치 물리학적 가설과 그에 대한 입증의 공식과도 같다. 이 악순환에 대한 방편은 진정한 용기와 인간애인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승려들의 비폭력저항이 곧 그것이다.

우리는 현지 승가에 대한 무한한 동정과 아울러 사태재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차별적 동족살육의 총구는 승려는 물론 어린이와 부녀자들마저 겨냥하고 있다.

혹시 우리는 여기 예일 캠퍼스에서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는 참극이 머나먼 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양 그저 수수방관하는 건 아닐까? 또한 승려들의 저항이 영적 교의에 합당하니 어떠니 말잔치나 벌이는 건 아닌지? 나 역시 명쾌히 답변할 입장은 못 되나, 그들의 행동이 시종일관 불교의 보편타당성에 준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붓다는 참된 질문을 허락하고 대답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 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문화에서는 대체로 대답을 이미 아는 질문, 곧 처방된 질문만을 한다. 대답을 흐릿하면 위험분자로 몰리기 때문이다. 또 차마 참된 질문을 할 용기가 없으면 아예 하지 않는다.

예일 학우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뭘 할 것인가? 매우 좋은 질문이다. 우선 그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뭘 할지 확신을 못할 경우,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가만있는 게 낫다.

항의를 하고자 하면 과연 누굴 위해 하는지 줄곧 자문해야 한다. 예컨대,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선가? 아니면 참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가? 바로 거기서 불교가 지닌 진실성과 현실성의 요체가 극명히 드러난다.



미얀마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승려들.

우리 예일인들은 미얀마 승려들이 보여준 상대배려와 품격을 지켜가며 참된 불자다운 인간애를 나눌 것이다. 이는 어떠한 보복행위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미얀마 군부의 불의를 단순히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의 반응이 널리 경청, 활용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원력을 모아 현지 승려들에게 그들이 홀로가 아니며 우리와 굳은 연대감을 지녔음을 알려야 한다.

우리 예일인들이 그들의 문제제기에 명확한 연대감을 보인다면 세계인들의 이목 역시 거기에 집중될 것이다. 남아공의 인종분리주의 정책에 항의하던 대학 시절, 나 역시 그 운동이 자기만족을 위한 것인지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지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모잠비크의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망명본부로부터 감사서한을 받고서 그들이 우리의 항의와 구속 사태를 이미 알고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미얀마 참사에 대한 우리의 항의가 매스컴을 의식한 캠퍼스 내의 미적대는 웅성거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일 학우와 교수진들의 문제제기가 세계적 연대감으로 이어지고, 미얀마 군부는 물론 승단에도 확실히 전달되어야 한다. 오랜 무인 왕공가문의 아들이며 손자였던 붓다는 자신도 무사로 자랐다.

그러면 그 성장과정 중 과연 어떠한 체험이 그를 변화시켰을까? 그가 주장했던 비폭력은 바로 그런 폭력의 음울한 저변을 개탄한 결과가 아닐까? 이는 흔한 일은 아니나, 어쨌든 폭력이 적어도 붓다에게는 크게 축복된 바이러스로 작용한 듯하다. 이것이 가혹한 폭력에 당면한 미얀마의 도반들에게 새삼 일깨워주고픈 역사적 인물로서 붓다의 참 모습이다.

출처:예일 해럴드 / 편역: 성휴 스님

필자 브루스 블레어는 예일대 출신으로 뉴헤이븐 선원장을 거쳐 현 예일대 최초 지도법사로 활동 중.

英 조니 윌킨슨, 불교체험 기고

영국의 럭비 영웅 조니 윌킨슨은 지난달 런던 주재 타임즈지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2007년 럭비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던 중 뜻밖에 중상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불교와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고 술회했다.

타임즈는 대영제국훈장의 수훈자인 그가 아직 완전한 불자는 못되나 불교의 감화로 인해 인생을 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참선에서 휴식과 수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그의 체험을 인용 보도했다.

2003년 럭비 월드컵 결승전에서 시합종료 직전 드롭 골을 성공시켜 럭비의 종주국인 영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윌킨슨은 불교를 통해 자신이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타임즈 영국 판

MIT 불교학생회 'TBTP' 실시

지난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프라즈노파야 불교학생회는 국제 프라즈노파야 재단 인도 지부와 공동으로 2008년 1월부터 결핵치료 및 예방프로젝트(TBTP)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 조정이사인 스코트 케네디 박사의 세부시행 안에 의하면, 인도의 극빈농촌지역 중 하나인 비하르의 보건요원들을 대상으로 지능형 투약기 uBox 및 휴대전화 연결형 의료기록 프로그램 uPhone의 사용법 등을 교육할 이 프로젝트의 모든 기술과 기자재는 동 대학 불교학생회가 개발, 무상 제공하며, 내년 5월 이동교육 캠프에서 실시될 제2차 교육을 통해 총 3000여 명의 잠재결핵환자를 치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MIT 불교학생회는 고성능 저가양수기를 신규 개발, 일부 저개발국가에 자원봉사학생들을 파견해 무상으로 설치해준바 있다.

MIT 학생불교지

라오스의 '분 옥 판싸 축제' 속으로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안거 해제'의 날

10월 25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이날 스님들은 메콩강에 띄울 장엄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도심의 사찰들에는 스님들이 직접 만든 등과 장엄물들이 화려하게 밝혀져 있다. 안거가 끝나는 것을 기념해 열리는 '분 옥 판싸(Bun Ok Phansa) 축제(사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95% 이상이 소승불교 신자인 라오스는 그 축제 동안 스님들은 물론 재가자들도 등을 만들어 메콩강에 띄우며 소원을 빌고, 마을 대항 전국 보트대회가 열려 전국이 축제 분위기다.



라오스의 안거는 일 년에 한번으로 음력 7월 보름부터 3개월이다. 안거동안 스님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한곳에서 수행하며 재가자들은 5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 성생활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에서 욕망을 절제하는 기간으로 승·재가 모두에게 안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거 해제일에 열리는 분 옥 판싸 축제의 의미가 커지는 이유다.

이처럼 라오스불교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4월 열리는 분 삐 마이(Bun Pi Mai) 축제, 11월에 열리는 분 탓 루앙(Bun That Luang) 축제가 모두 사찰과 탑을 중심으로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신년, 집안 대소사, 관혼상제 등 매월 네 차례의 붓다데이(Buddha Day)마다 절을 찾아 공양물을 올리거나 스님을 초청해 '바시'라는 축원의식을 행한다. 매일 아침 사찰 주변에서 열리는 딱밧(탁발)을 위해 동이 트기 전 일어나 거리에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남자라면 일생에 한번 출가 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년 동안 출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출가한 승려에 대한 존경심은 각별하다.

특히 화를 내는 것은 라오스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직장 상사가 화를 내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을 정도로 화 내는 사람은 인격이 덜 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그만큼 욕망과 화를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물질의 추구보다 욕망을 줄이며 함께 행복해지는 나눔을 삶의 지표로 삼는다.

5년 임기의 종정이 불교의 최고 지도자지만 현재는 얼마 전 입적해 공석이다. 스님들은 승가대학에서 불교교리를 철저히 교육받으며 요즘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찰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어, 일본어 등을 배우는 광경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스님들의 일과는 새벽기도, 탁발, 예불, 승가대학, 좌선, 자유시간으로 채워진다. 비엔티안의 왓짠(달의 절이라는 뜻)에서 만난 주지 타원 스님은 "선행을 행하고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성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평화에 머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푸라방, 수도 비엔티안, 방비엔 등에는 불교유적들이 넘쳐난다.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시되며 국가 상징인 왓 탓 루앙은 라오스인들이 일생 동안 꼭 한번 가보길 꿈꾸는 곳이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가장 오래된 사찰 왓 씨싸켓, 태국에 있는 에메랄드 붓다가 원래 봉안돼 있었던 왓 호파깨우, 루앙 분르아 쑤리랏이라는 조각가가 조성한 붓다파크, 경주 남산처럼 산 전체가 불상으로 꾸며진 푸시산 등 불교성지가 도심에 인접해 신행 공간이 되고 있다.

라오스인들의 삶속에 녹아 있는 부처님 가르침 때문일까? 라오스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50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욕망을 내려놓고 소욕지족하는 라오스인들의 마음자리가 거리 곳곳에서 환한 미소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라오스=천미희 객원기자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ere is the dead man going now?

ー 저 죽은 육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고?

A Corpse on a picnic

For some people saying that they do not meditate because they are simply too busy, the Dalai Lama told the following story: A monk kept promising his disciples that he would take them on a picnic, but was always too busy to keep his words. One day they saw a funeral procession carrying a corpse. And the monk rather solemnly asked them, "Where is the dead man going now?" They retorted bluntly, "On a picnic."

소풍가는 송장

그저 너무 바빠서 참선을 못한다는 이들에게 달라이 라마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소풍을 데리고 가겠다고 줄곧 말만하고선 늘 바빠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어느 날 그들은 송장을 들쳐 매고 가는 장의행렬을 보게 됐다. 스님이 제자들에게 자못 근엄하게 물었다."저 죽은 육신은 시방 어디로 가고 있는고?" 제자들이 퉁명스레 내뱉겼다. "소풍 가지요." 번안: 성휴 스님

장례에서 이장, 택일, 제사까지

확 트이는 風水 꽉 잡히는 地理

풍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책!
이 한 권으로 풍수는 끝난다!!

제 1 장 풍수風水의 의의意義
제 2 장 풍수의 기초 이론基礎 理論
제 3 장 용세론龍勢論
제 4 장 혈장론穴場論
제 5 장 사격론砂格論
제 6 장 수세론水勢論
제 7 장 좌향론坐向論
제 8 장 형국론形局論
제 9 장 구층 나경 사용법九層 羅經 使用法
제 10 장 발복 發福 추산법 推算法
제 11 장 장택론葬擇論

풍수책의 결정판

저자 정판성 박사

쉬운 문장, 많은 그림, 현대적 용어로 설명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풍수 책!

사람들이 풍수를 배워서 명당에 묘를 쓰고 집터를 잡아 행운을 얻게 하는 잡술서가 아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많은 이론들을 제시했으므로 별도로 다른 풍수서적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랄 뿐이다.



청학출판사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신국판 752쪽 값 30,000원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약사여래 기도도량 불토사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부처님 만나러 고고씽!!!

"부처님과 함께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제4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포교사, 스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제4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습회는 **전통과 불교문화가 함께하는 강습회**로 등 만들기, 전래놀이, 불교생태교육 등 지도자분들이 직접 체험하시어 즐거운 겨울불교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하시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 2551(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2.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교통편 안내]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0분
3. 강습 프로그램
   • 재활용품을 활용한 등 만들기 - 전영일 공방 • 잘 놀아야 철이 들지(전래놀이) - 김종만(전래놀이 연구가)
   • 전통 · 불교문화와 함께하는 불교생태교육 - 불교환경연대 • 다함께 부르는 부처님 노래와 율동 - 교육연수국
4. 준 비 물 : 필기도구, 재활용품[나무젓가락, 페트병]
5. 참 가 비

구 분	일 반	전문지도자/교사대학	도서벽지 및 군종	비 고
금 액	30,000원	20,000원	15,000원	접수된 참가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

※ 입금계좌
국민 006001-04-163577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접 수 : 선착순 100명 전화 및 인터넷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 - www.burec.org
7. 문 의 : ☎ 02)738-7860 / Fax 02)738-7863(본회 사무국)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 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우선 제1장에서 수행인이 무엇 때문에 계율을 지녀야 하는지 그 총체적인 요점부터 밝히기로 한다.

최초 발심한 수행인은 우선 계율부터 청정해야

夫發心起行 欲修止觀者 要先外具五緣

대체로 처음으로 발심하여 지관수행을 하려하는 자라면 최우선적으로 외적인 조건으로서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춘 뒤에 지관수행으로 진수해야만 그 효과가 진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비유하면 집을 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기초가 견고해야만 일층에서 내지는 고층까지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지을 수 있는 것과도 같다.

1. 지계청정(持戒淸淨)

발심한 수행인이라면 첫째 청정하게 계율을 지녀야만 그로 인해서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정혜(戒定慧) 삼학 중에 지계가 최우선이라는 말이다. 가령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지 않는다면 선정이 일어날 길이 없다. 이른바 계율이 청정해야만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이 의지해야만 지혜도 동시에 발현하다는 것이다.

如經中說 依因此戒 得生諸禪定 及滅若智慧

이 문제를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계율이 청정하지 않으면 삼매가 현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걸림 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 선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선정을 따라서 지혜광명이 환하게 발현할 때만이 일체 모든 고통을 소멸할 수 있다. 괴로움인 삼고 · 팔고 내지는 한량없는 모든 고통이 지혜공덕을 의지해야만 소멸할 수 있다.

<능엄경>에선 살생 · 도적질 · 음행 · 허망한 말, 다시 말해서 사바라이죄 또는 사중금계(四重禁戒)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 범하지 말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수행인이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지 않는다면 설사 그가 많은 선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해도 마군의 업이 되어 끝내 마왕이 될 뿐이다. 이는 마치 모래를 찐다면 부질없는 수고일 뿐 끝내 밥이 되지 않는 이치와도 같다.

是故比丘應持戒淸淨

그러므로 지관수행을 하는 비구라면 우선적으로 반드시 계율을 청정하게 지녀야만 한다.

지자 대사가 지관법문을 설한 이유는 속가 형을 위해서 설했을 뿐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비구만을 말한 것은 비구라는 한마디에 나머지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까지 그 모두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회는 사부대중을 동시에 빠짐없이 갖추고 행하므로 그 가운데서 비구 하나만 말해도 나머지 셋을 동시에 포함하여 사부대중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然有三種行人持戒不同 一者若人未作佛弟子時 不造五逆

앞장에 이어서 지계하는 모습을 세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중생들 근기가 상 중 하 세 품류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상품인이 계율을 지니는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가령 수행하는 사람이 아직 발심하기 전 부처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상살이를 법도대로 순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교계율 가운데서 가장 금기로 여기는 오역죄(五逆罪)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역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를 살해하고, 둘째 어머니를 살해하고, 셋째 아라한을 살해하고, 네째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다섯째 화합대중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선 이 다섯 죄악 가운데 단 한가지만 범해도 지옥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무간이란 말은 빠져나올 간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이 다섯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지혜법신을 잃고 끝내 생사고통의 흐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後遇良師 敎受三歸五戒 爲佛弟子

상품인은 오역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우연히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 재가인으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하면 청정한 재가불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불법에 의지해서 자신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질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정화하여 자리이타를 병진할 수 있는 것이다.

若得出家 受沙彌十戒

상품인의 근기로 출가를 하여 사미가 되면 십계를 받게 된다. 출가인의 십계에도 재가 오계에서처럼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조목이 거듭 나오는데 그 의미는 재가오계에서의 의미와 크게 다르다. 재가오계에서 '음행하지 말라' 한 것은 자기 분수 밖의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 국한하지만 출가인의 입장에선 정음과 사음 이 모두를 금지한다.

재가오계 외에 출가십계엔 다섯 조목이 더 추가된다.

첫째는 높고 넓은 큰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그 제도를 제정하시기를 침상의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 길이의 여덟 배를 능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능가하면 그것은 바로 파계이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꽃을 염주 알 꿰듯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해선 안 되며 또 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옷으로 그 몸을 장식해서도 안 된다. 수행인이란 몸과 마음을 항상 소박하게 하여 화려한 복장이나 향기로운 냄새로 눈을 현란하게 장식하여 복을 감손하는 일은 단정코 해선 안 된다고 금지하였다.

세 번째는 수행인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유희하는 곳에 가서 구경하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듣는다면 성색에 현혹되어 탐욕의 번뇌에 오염되어 도념을 잃고 악업을 짓는 일이 이를 따라서 나날이 증진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때가 아니면 음식을 먹지 말라 하였다. 대체로 모든 하늘나라에서는 아침에 음식을 먹고 부처님은 정오에 음식을 드시고 축생들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가 말법인지라 중생들의 업이 지중하여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신체가 허약해져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옛 조사스님께서 방편문을 열어 하루에 세 번 또는 네 차례씩 자주 먹게 하였는데 이것이 때가 아닌데 먹는 일임을 알아야만 된다.

따라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복용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는 수행인은 금 은이나 재물을 탐하고 지니지 말아야 한다. 출가인은 안빈낙도를 해야만 하며 재물에 탐심을 일으킨다면 그는 탐욕이 증장하고 도심이 감소한다.

이상의 십계를 출가한 사미라면 반드시 청정하게 지녀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탐심②

5) 자구탐(資具貪)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의식주와 재물 · 권세 · 명예 내지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이 모든 도구들을 내 삶의 밑바탕이 되는 도구라는 뜻에서 통칭 '자구(資具)'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삶의 바탕이 되는 일체의 도구를 즐기고 굳게 집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자구탐이라고 합니다.

6) 탐탐(貪貪)

탐탐은 마음속에 어떤 바램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간단없이 탐애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미인을 상상하고, 그 미인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나 만나지 못했을 경우 그의 탐심 속에선 항상 그 미인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간단없이 탐애하는 마음을 쉬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탐욕의 경계를 탐애한다는 의미인 '탐탐'이라고 합니다.

7) 개탐(蓋貪)

모든 인류는 과거에 누렸던 즐거웠던 일들을 잊지 않고 그 향수에 젖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과거에 탐애했던 경계를 쉽사리 버리려 하지 않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버리지 않고 간직하면서 그 탐심에 덮여있다는 의미인 '개탐'이라고 합니다.

8) 견탐(見貪)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굳게 탐애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를 두고 자기의 견해만이 옳다고 굳게 집착한다는 의미인 '견탐'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덟 종류로 탐애하는 마음의 모습을 대략 밝혀보았는데 이를 다시 총론적으로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유정들은 몸과 마음이 의지하는 육근(六根)과 육경(六境)이 나의 자아를 살려주고 길러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재하는 나의 소유물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부연해 본다면 색성향미촉 등이 임시 인연화합으로 취합해 있는 근신(根身)과 기계(器界) 내지는 처자 · 전택 · 궁실 · 의복 · 음식 · 재물 · 명예 · 이익 등, 이 모두를 번뇌로 집착하고 탐애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들 때문에 그 모든 대상 즉 아(我)와 아소(我所)에 있어서 굳게 집착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빨리 얻으려는 탐심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을 얻고 나선 다시 그것을 잃을까봐 근심하는데, 이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얻었을 때나 잃었을 때 항상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번뇌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탐번뇌(貪煩惱)'라고 하며, 이 번뇌의 근본 뿌리는 무명 즉 탐진치 가운데서 치심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10.25 선암사 사태를 보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은 더 이상 선암사를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지말라. 태고종 총무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총무원에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겠으니 선암사의 전반적인 운영은 선암사 재적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에 운산 총무원장 이름으로 선암사를 접수하는데 순천시청에 도월과 승조를 도와 달라는 구걸의 공문을 발송하더니 10월 25일 아침에는 총무원 규정부 소속 승려들을 동원하고 급조된 유령단체(가칭 선암사 신도회) 그리고 승조와 도월을 앞세워 선암사 양창기 즉 도월스님을 총무원장과 태고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체탈도첩을 시키고, 또한 이운산 총무원장은 양창기(도월)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그런 파렴치한 인간과 손을 잡았다는 현실에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제는 선암사나 태고종을 위해서도 선암사 사태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창종 된 1970년도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암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아니라 조계산 선암사로 불리우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창종 당시 정부조직기관에 태고종과 선암사는 무관하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을 태고종 총무원장과 종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암사의 진정한 주인은 1500년 동안 사자상승의 법맥과 은맥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행하고 지켜온 선암사 재적 스님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없는 태고종 총무원장과 소임자는 선암사 내분을 조장하고 전 불교계를 먹칠한 책임을 통감하고 태고종단의 먼 장래를 위해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점찮게 권고한다. 만약 이런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스님들이 태고종을 계속해서 이끈다면 태고종단의 밝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총무원 규정부 소속 스님들 5인과 승조와 도월을 앞세워 조용한 산사에 다시 분규를 조장하는 저의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 불교도에게 참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합니다. 선암사는 태고종 종정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태고종 규정부 소속 스님들은 종정스님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사전 재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 하였습니다.

종정스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정스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 이 또한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암사와 태고종단의 분규가 1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태고종단의 최고의 어른이신 종정스님께서는 일언반구 없이 운산총무원장이 내 말을 안듣는다 하며 지금까지 묵인 내지는 방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태고종 종정스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 선암사 재적대중은 그간의 어려운 사중 형편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에서 운영해야할 종정실 운영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태고종 종정실 운영경비를 태고종단에서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선암사에 일체를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몰염치하고 형편없는 종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태고종도들에게는 선암사가 태고종의 총림도량이고 종정스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가증스럽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도에게 의무금과 기부금을 착취하고 종단 발전에는 나 몰라 하는 자들이 바로 태고종 총무원입니다. 태고종단에 기증된 삼보정재인 도법사 이야기도 잠깐 해야겠습니다.

도법사 사찰을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적정가격에 적법절차로 별 문제 없다고 애써 변명하지만 본래 태고종단에 도법사를 헌납한 스님께서는 그 후손에게 물려주면 혹시라도 팔아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다 태고종단에 기증하면 영구보존 될 줄만 믿고 도법사를 태고종단에 기증하였지만 태고종 총무원은 일반 보통 불자나 속인이 아닌 불교를 가장 적대시하는 기독교 재단에 삼보정재를 형편없는 헐값에 팔아 넘겨 돈만 챙기는 그런 자들이 기생하는 종단이 태고종 총무원의 현주소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 불교의 태고종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총무원장을 비롯한 소임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사라져야합니다.

선교양종 대본산 조계산 선암사 재적대중 일동



경덕 스님 (원주 상원사 주지)

“집착심 버리면 세상살이 편해져요”

선지식을 찾아서 — 경덕

치악산으로 가는 길은 색깔 잔치였다. 빨강 노랑 물감을 붓에 흠뻑 묻혀서 칠해놓은 듯 화려하였다.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나뭇잎들의 몸짓은 마지막까지도 아름답다. 우리들의 마지막 행로도 나무들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올랐다.

경덕 스님은 어릴 때부터 절을 좋아하였다. 어른들로부터 사명 대사나 서산 대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열일곱에 출가를 하였다. 스님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절을 좋아한 것도 전생에 불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출가동기를 생각하면 욕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가동기를 망각하게 되니 돈도 알게 되고 명예도 알게 되지. 수행자는 출가동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진 출가한 경덕 스님은 선공부를 누구로부터 배운 바도 없이 선방에서 공부하였다. 선방에서 남들을 따라 목탁을 치면 그저 앉고서기를 반복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다 범어사에서 정일 스님과 도반이 되어 공부했는데, 그때 선공부하는 방법을 알았다. 경덕 스님은 선공부를 하는데 있어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도반을 잘 만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일 스님이 ‘화두를 참구하면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화두가 들린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자화두를 들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줄 몰랐지요.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대화할 때나 예불할 때도 화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니, 화두가 좀 성성해지데.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가의정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 이 공부가 어렵다 해도 하면 되는 것이 또 선공부입니다. 중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공부해야 되요.”

경덕 스님이 공부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으니 절 살림인들 오죽하였으랴. 선방수좌들은 좌복이 평생 동안의 이불이다. 참선할 때 깔고 앉았던 좌복을 밤에 잠잘 때는 이불 삼아 배 위에 덮고 잤는데, 오히려 가난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였다. 옷이래야 누더기같은 여름옷과 겨울옷 한 벌이 전부이고, 한평생 동안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랑에는 <선문촬요>와 <선가귀감> 책 2권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 그것이 가난인 줄도 몰랐단다.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물질은 독과 같은 것이기에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2년 묵언정진·1년 가행정진 등 치열한 수행
“수행자에게 물질은 毒이니 반드시 경계해야”

경덕 스님은 화엄사 선방에서 두 철을 났는데, 그때 입승소임을 맡았다.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인지라 각자가 소임을 맡아요. 서로가 소임을 맡아서 하면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되지 않고 좋지요. 마당을 청소하는 소임, 수각 청소하는 소임, 다각 소임 등 각자의 소임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의 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입승이라는 책임감이 있으니,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시비(是非)가 생기더라구요. 남과 싸움을 해서 시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쁘다는 분별심이 생기데. 그것이 시비지. 그런데 시비하는 순간은 화두가 들리지 않고 공부에 방해가 되니 분별심을 내면 그만큼 손실이 큽니다.”

경덕 스님은 1965년 천축사 무문관에서 서옹 스님을 조실로 하여 2년 결사를 하였다. 그때 20명이 결사하였는데, 해제할 때는 경덕 스님과 우성 스님 두 사람만이 남았다고 하니 선공부가 결코 쉽지 않음을 새삼 절감할 수 있다. 경덕 스님은 그때 신심이 나서 2년 동안 묵언정진을 하였고, 1년 동안은 가행정진을 하였다. 가행정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니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옷을 입을 때나 밥을 먹을 때도 행여나 화두 놓칠 것을 염려하였다고 하니, 자신에게 한 치의 헛된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 수행자의 매서운 면모를 볼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종송을 하는데, ‘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若人慾了知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라고 송을 하는데 ‘일체유심조’라는 대목에서 목이 꽉 메이데요. 그때 가슴이 텅 비어지면서 온 우주에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문관에 앉아 있으면 내가 허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또 누가 내 목을 잘라간다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데요. 화두공부가 잘 되면 몸뚱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간가는 줄도 몰라요.”







구마라습의 제자이자 <조론>을 저술한 승조 스님의 게송이 생각났다. 승조 스님의 명석함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승조 스님을 재상으로 모시고 싶어서 몇 번씩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였지만, 승조 스님은 그런 권력과 명예는 수행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그런 스님의 모습이 왕의 눈에는 오만하게 보였던지 승조 스님은 31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하였다. 죽음 직전에 승조 스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이 몸에 모양새 본래 없으니/마음에 망상분별 그 자체 비었네// 저 칼이 내 목을 자른다 해도/ 불어오는 봄바람을 어이 끊으리.’

무문관에서 공부할 때 경덕 스님의 마음이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던 승조 스님의 마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다.

경덕 스님은 상좌를 잘 가르쳐서 큰 도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강원에도 보내고 공을 들였다. 그런데 강원에서 공부하던 상좌가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때부터 진주, 울릉도, 부산 등 한 달 이상을 찾아다녔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꿈에도 화두가 성성해야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화두보다 상좌가 더 성성할 정도였어요. 남들은 나보고 상좌에게 미쳤다고 말하였지만, 그때는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줄도 몰랐지요, 용주사에서 찾았는데 이제 그만 가자고 했더니 상좌가 ‘스님, 저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하는데, 그 한 마디에 ‘집착이 바로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가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하면 ‘집착이 바로 지옥’이라는 법문을 해주게 되었다. “이 세상에 집착보다 더한 지옥은 없어요. 화두공부해서 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불자라면 집착심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됩니다.”

집착심이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세상살이가 편해진다는 스님의 말씀이 감로수로 다가왔다. 지금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집착심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차려야 할 일이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경덕 스님은 계룡산 갑사에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걸망을 지고 범어사, 파계사, 용주사, 해인사, 화계사 상원사 선방을 떠돌았다. 천축사 무문관에서 2년 결사를 원만하게 성료하였다. 성철 스님, 탄허 스님, 동산 스님, 설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다. 현재는 원주 상원사 주지이다.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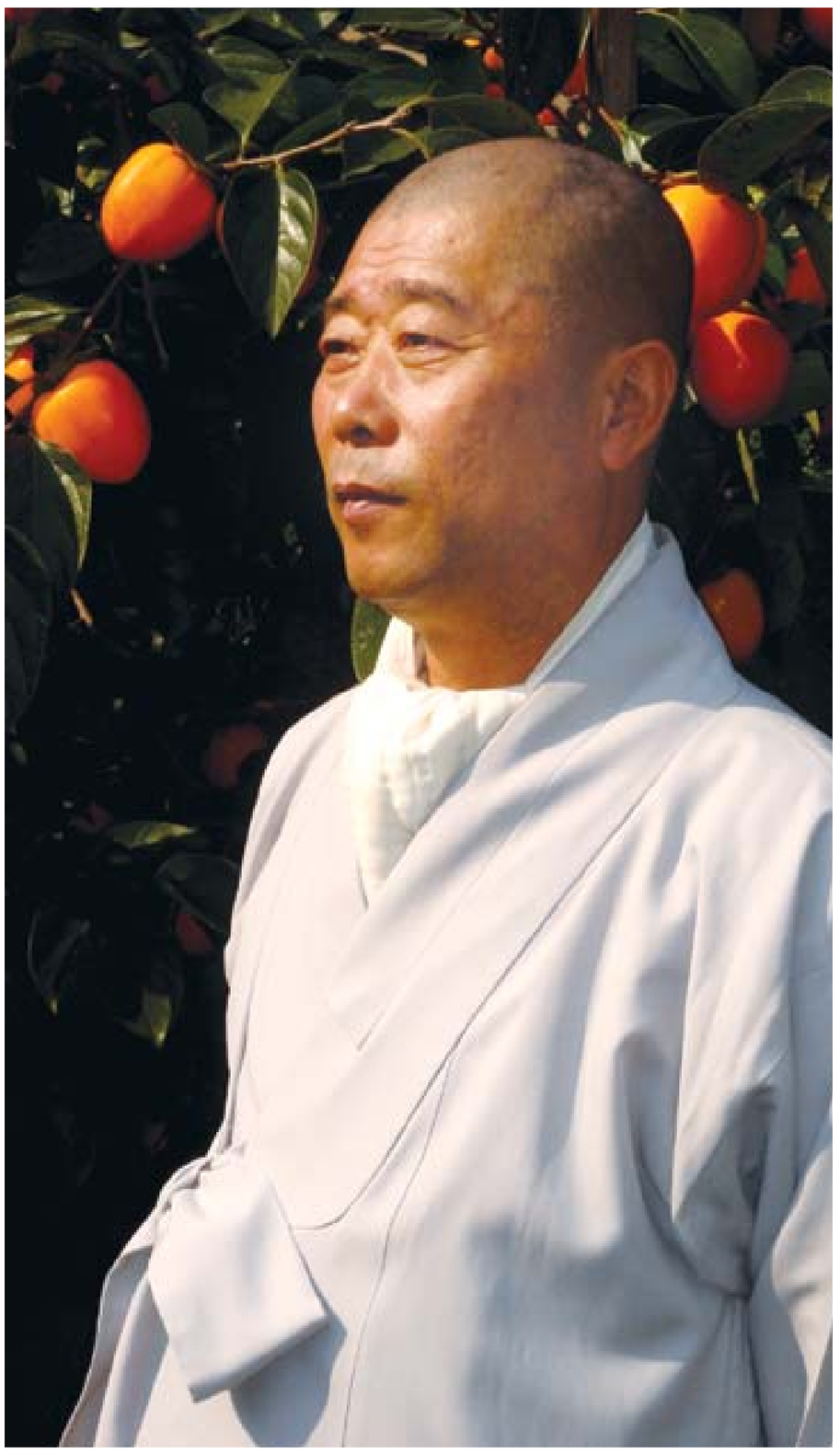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체계적 교육으로 영산재 맥 이어갈 것”

데스크 초대석
옥천범음대 학장 일운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사학인 옥천범음대학(玉泉梵音大學)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점은행제 대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옥천범음대는 교육 과정과 각종 시스템을 개편 하는 등 전통 불교의식법을 전수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분주하다. 학장 일운 스님은 “전통적인 의식의 맥을 제대로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며 “옥천범음대는 영산재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튼튼한 교육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불자들에게 옥천범음대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불교의 전통 의식을 전수시키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산재라고 알려진 불교의식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배우고 시연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예불이라 할지라도 절차와 법도에 맞게 진행해야 하듯 특별한 발원과 의미를 갖는 각종 ‘재(齋)’를 엄수하는 경우에는 전해 내려온 법식을 제대로 배워서 봉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산재가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고요. 우리 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운영합니다. 영산재보존회 회원들인 영산재 기능 준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들이 강사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에도 어떤 뜻이 있을 것 같군요.

“옥천(玉泉)은 옥천사란 절 이름에서 따 온 것입니다. 옥천사는 신라말 진감국사께서 중국에서 범패를 배워 오신 뒤 지리산에 지은 절(지금의 쌍계사) 이름입니다. 1969년 설립된 ‘옥천범음회’는 근세 최고의 어장이셨던 이월하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모임입니다. 안덕암 김운파 장벽응 박송암 스님 등이 주축이 되어 불교 의식의 전통을 잇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1973년 박송암 스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 보유자로 선정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불교 전통의식의 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1993년 이전까지 1000여명이 옥천범음회에서 범패를 배웠습니다. 종단을 초월해 누구나 뜻이 있으면 불교의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3년제 대학으로 설립해 지금까지 200여명이 정식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최근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이 되었는데,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년제 대학입니다. 의식을 다루다 보니 실습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이론과목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맞춰 학과목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범패실습(2) 영산재의 례절차(2) 작법실습 사물실습 범패전승계보 영산재구비전승학습 등 6개 강좌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산재 기능 보유자인 구해 스님도 직접 학생들 앞에 설 계획입니다. 전승희 전임 회장인 인공스님과 현재 회장인 환우스님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실습 위주의 학습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보화 작업은 불가능한지요?

“범패는 구전(口傳) 전승이다보니,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에서 완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보 작업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기보화 한다고 해서 소리가 제대로 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득음을 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의식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기를 갖추는데 적어도 3년은 필요합니다. 득음의 경지라면 10여년을 연마해야 하는데 요즘은 너무 간단하게 배우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전통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염불이나 작법 등을 시연하는 것은 불보살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의식을 베푼 공덕주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영산재는 끝없는 자기 연마 과정…시연이 곧 수행”
세계 문화유산 등재 위해 내년 프랑스서 공연 예정

–영산재 의식도 시연자 입장에서는 수행일 것 같습니다.

“정신이 산만하면 어떤 의식도 이끌 수 없어요. 마음에 정성이 가득해야 하고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추고 각 의례 마다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의식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시연자의 내면이 먼저 엄숙하고 장엄해야 드러나는 형식도 장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산재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천범음대 외에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한국음악과와 명신대학 전통공연예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전통음악관련 학과에서 범패 강좌를 열어주는 경우가 좀 더 늘어야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에서 범패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산재가 갖는 문화적 가치는 종교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각 대학 당국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재 준보유자이신데, 스님에게 있어 영산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영산재는 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봉원사에서 소리를 배우고 동작을 배웠고 지금까지도 배우는 자세로 의식 시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행이라고 했는데 나는 승려로서 영상재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은사스님에게 ‘출가자는 부처님을 등 뒤에 놓고 장사를 하는 부류가 있고 성불의 원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서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전이 되는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특히 의식을 시연하는 스님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재에 팔려 다니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영산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스님들이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이지요. 정말 간절한 신심과 원력으로 의식을 지키고 전승해 주신 선대 스님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옥천범음대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산재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영산재 공연을 갖습니다. 유네스코가 영산재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조금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네스코의 관련 심사위원이 봉원사에서 영산재 과정을 정밀하게 관람하고 갔고 매우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 영산재는 반드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임연태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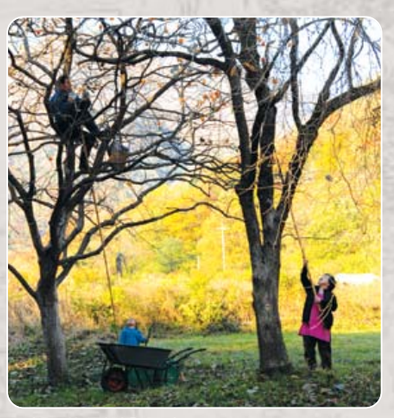
불가능을 꿈꾸며 가는 길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3 만수산 무량사


일주문.


천왕문.


감을 따는 사하촌 주민.


극락전(보물 제233호).


부도밭.


사하촌 만수리.

무소유의 화두를 던지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무량사 일주문으로 들어섰는데 가을역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긴 장대를 들고 감나무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손이 닿는 곳까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일까. 절집 안에서는 날아가는 새들도 주인이 되도록 감나무 한그루쯤 빨갛게 익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량한 사랑, 무량한 지혜, 무량한 덕이 있다는 것을 알리러 석가모니 부처님이 온 것이니까 말이다.

무량사로 들어가는 길은 불가능을 꿈꾸며 가는 길이다. 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누릴 수 없는 것을 꿈꾸며 가는 길이다. 절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꿈꾸며 걷기에 이보다 더할 수 없다. 도솔천을 지나 천왕문 앞에서 당간지주 위에 지고 온 꿈을 잠시 내려놓고 마당에 들어섰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옷을 벗어 쓸쓸함을 덮고 있다. 겨울채비를 끝낸 나무에게서 머문바 없이 마음이 난다.

무량사는 천 년 전의 창건사기를 지닌 절집으로 마곡사의 말사이다. 신라시대에 범일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마당에 석탑과 석등이 조성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현재 가람의 모습은 고려시대의 것이 아닌가 싶다. 절집 안으로 몇 발짝 들어서자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앞을 막아선다. 아름다운 극락전을 쉽게 보여주기 싫은 모양이다. 무량사 극락전은 조선 중기의 건축으로, 단청을 칠하지 않아 고색이 느껴진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보전과 같이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얕은 기단 위에 높직한 기둥을 세워 아래 부분의 평면을 구성했다.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천장이 뚫린 통층이다. 기둥 위에 짜여진 공포는 다포식으로 18세기에 유행하던 기법이다.

무량사 마당은 다른 절집과 다르게 넓다. 마당은 편하게 발을 디디며 생각을 다듬는 곳이다. 잠시만 헛눈을 팔아도 번뇌의 풀이 자라는 수행생활 중, 느슨해진 자신을 다스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수산 낮은 봉우리 위로 뭉게구름이 한가로이 떠간다. 아마도 김시습이 이런 풍경을 보고 '구름이 오고 구름이 제 마음대로 가도 산은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노래했지 모른다. 문득 무량사에 두고 온 시간을 노래한 황동규 시인의 망초꽃이 떠오른다.

이따금 돌조각이 저절로 굴러내리는
절벽 앞을 걷다가
흰 빨래로 걸려 있는 구름 앞에서
그 흔한 망초꽃 속의 어느 눈썹 섭섭한 망초 하나와 먼나
인사를 주고받겠는가.
"듣고 보니 우린 꿈이 같군"
"끝이 한했어"

같은 꿈을 같이 꾼 자들이
같은 창살 속에 서서 같이 흔들리는 그런 곳,
無量面 淨土里가 없다면.

무량사 극락전 당우 안에는 주존불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광명의 부처, 수명의 부처라는 뜻의 아미타불이 계시는 도량이니 무량사 말고 달리 지을 이름이 없었을 듯하다.

절집을 돌아내려오면서 옛날에 무량사에 머물렀던 진묵 대사가 술을 누룩으로 만든 차라고 하며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 주막집을 찾았다. 혹 허름한 주막집이라도 찾으려나 싶어 두리번거리다 노신사 권진식 이장님을 만났다. 역시 마을이장님이라 주민들 이야기부터 꺼낸다.

"지금 마을에는 65호 약 12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요. 옛날에는 근처에 석탄광들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식당을 허가 내지 않고 장사하던 시절이라 밀주를 파는 곳도 많이 있었지요. 주막인심도 좋고 밭작물이 많이 나서, 가난하지만 살기 좋은 곳이었지요."

옛날에는 쇠죽냄새, 마른 솔잎 타는 냄새가 술 냄새와 함께 익어가는 산골마을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젊은이들은 돈을 쫓아서 모두 도시로 나가고 지금은 노인들이 남아서 사하촌을 지키고 있다. 만수리는 상가지역이 형성되어서 활발한 것도 아니고 농토가 넓은 것도 아닌 그냥 부처님의 가피로 살아가는 마을 같다. 마을 사람들의 바람은 없느냐고 묻는 내게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드러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 절집 땅에 집만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집에서 조계종의 방침이라고 이주를 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적은 이주비를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옮길 곳이 없어요.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입장의 차이는 있는 듯했다.

얼마 전 무량사 진입로 도로가 좁아 확장하려는데, 절집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했다. 마을회관 옆에 여름에 쉴 수 있는 정자를 지으려고 군청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절집에서 새로운 건물은 지을 수 없다고 하여 집행을 못하고 있단다. 서로 타협하여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장님은 시대가 흐르면 생활도 바뀌고 마음도 변하기 마련이라며 진정한 마음을 열었다.

"사하촌이 발전해야 이웃인 절집도 잘 살게 되지요. 그러나 주지스님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주지스님 임기가 4년이라 사귈만하면 떠나버려 마음을 쉬을 시간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요. 절집과 마을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량사는 만수리의 큰집으로서 마음을 열어두기도 한단다. 주지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회식을 할 수 있도록 일 년에 두어 번 돈을 내놓는단다. 큰집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은 사하촌답게 산신제를 정성스럽게 지낸다. 정월 초사흗날 지내는데, 주민들이 얼마씩 갹출을 하고 생계복덕을 보아 제주를 뽑는다. 산신당에서 제를 지내고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나눈 후 장승제를 지낸다. 제주가 되는 사람은 섣달그믐부터 정월 초사흘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단다. 무진암에서 스님이 나와 마을의 축문을 읽고 태우며 함께한다. 절집과 사하촌이 함께하는 문화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다.

극락전 서쪽 새로 단장한 작은 전각에 매월당 김시습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부도밭에는 시대의 불운을 자신의 가슴에 묻고 스님이 되었던 김시습의 부도도 있다. 부도밭 옆 무진암에는 동네에서 자란 정원 스님이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심으로 지니고 산다. 주지스님과 언쟁을 하더라도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고 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게 갖게 된 불심이란다.

사하촌 사람들은 양순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산다. 그것은 절집 스님들의 기도공양이 마을에 머무르기 때문은 아닐지. 이 가을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어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걸어 마음밭을 일구어야겠다. 잠시 버려둔 밭에 무명초가 가득하다. 어리석음을 뽑아내면 무량수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부여=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방한용부츠
보아털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 무 명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 스포츠서울 2005년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 경영대상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대형찜질방 ▽대형사찰 △기업 ▽화원 △화원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www.hnboiler.co.kr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는
스리랑카 위하라 고다에서 의료봉사를 할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5명을 모집하고 있다. 의료구호활동을 통해 국제 빈민들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 스리랑카 일정은 11월 30일~12월 6일이며 참가비는 95만원이다. (02)723-6165

서울과학관에서는
'노벨 사이언스 체험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 꿈나무들이 노벨의 과학정신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탐구활동을 몸으로 느끼며 노벨과 노벨상, 생명의 신비, 창세기의 방 등 8개 주제로 돼 있는 전시를 살펴볼 수 있다. (02)3668-2200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편식(음식)과 비만해소를 위한 체험교육 캐릭터뮤지컬 '내가 뚱보야?'를 공연한다. 편식을 하면 어떻해 되는가, 비만이 되는 생활습관은 무엇인가, 균형식이란 무엇이고 음식과 가정, 친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11월 25일 오전 11시, 오후 1 · 3시에 공연이 있다. (031)777-9140

부천시청 대강당에서는
11월 24일 오후 5시 부천시립청소년합창단이 주관한 '비바! 걸스'가 진행된다. 여성합창으로만 준비된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의 동요, 이태리 칸초네, 기악곡 편곡, 흑인풍의 노래와 주옥같은 팝송 등이 준비된다. (032)320-3481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11월 16~17일 '제8회 청소년 만화축제 만화 타임머신'을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는 애니메이션 상영회와 만화 · 애니메이션 체험전, 부모님 및 청소년세대 만화 체험전 등이 마련된다. (051)868-0750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경제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은 '하자 센터'의 경제특강을 듣는 청소년들과 '맛보기 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청소년들. 사진제공=서울시립청소년직업센터 '하자센터'

아빠! 경제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알아야 할 생활경제

#박현일(14 · 서울 양평동)군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경제야 놀자'를 즐겁게 시청하던 중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아버지가 당황했다. 현일이의 질문은 단 한마디였다. "그런데, 경제가 뭐죠?"

'경제'라는 단어는 뭔가 겁난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정확한 정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흔히 경제라는 말을 들으면 시장 • 생산 • 분배 등을 떠올린다. 뉴스에서도 항상 무역수지니, 코스닥이니 하는 정보를 쏟아낸다.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많지만 정작 경제가 무엇인지는 와 닿지 않는다. 이래저래 힘든 단어다.

교과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0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에서도 총 11개 과목 중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7번째로 많았다. 학교 선생님들은 개념 정립이 어려운 과목이라 그렇다고 진단한다. 이렇게 '어렵다'고 빼도박도 못하는 이미지로 고정된 '경제'의 진실은 무엇일까. 어쩌면 겁나는 것은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선입견이 아닐까.

□ 넓게 살펴본 경제와 돈의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의 의미는 소비 ·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열심히 일해서 번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삶을 영위해나가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 하는 것이다.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벌어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먹는 것,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구매하는 것 등이 모두 경제활동이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놓고 보니 이는 모두 '돈'을 두고 일어난다. 즉, 경제보다 더욱 체감적이고 직접적인 개념은 '돈'인 셈이다. 경제활동을 하려면 교환 수단이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다.

옛날 부모님들은 유교식 영향을 받아 돈을 천대했다. '아이들이 돈을 알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재에 밝은 아이를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돈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건강한 살림을 꾸릴 수 있다. 2006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20대 신용불량자 인구는 50만명에 육박한다. 청소년기에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20대가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경상계열 학과로 진학하지 않는 한, 그대로 경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청소년도 생활활동의 주체? 청소년 삶 속에 경제있다!

이렇게 보면 경제활동이란 참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활이 경제활동이라 정의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잘 하기란 힘들다. 재화, 즉 돈이나 물건은 한정적이고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생활의 기본인 소비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제대로 고쳐지기 힘들어 애를 먹기도 한다.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직접 활동을 해보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용돈을 받기 때문에 생산자는 될 수 없지만 말이다.

청소년들은 우선 각 경제단체 및 금융권에서 마련한 행사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에서는 매달 조금씩 다른 주제로 '맛보기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맛보기 시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창업을 하거나 일일매니저, 일일아르바이트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체험 시장이다. 여기서는 또 직거래 장터를 운영, 직접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았다.

경제관련 특강도 각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11월에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에서 17일과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울고등학교 강당) · 부산(부산교총회관 강당) ·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각각 '시장경제와 기업', '세계화와 청소년들의 미래준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학부모, 교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시장경제교실'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번 강의는 청소년들이 경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진짜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경제 관념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신용은 곧 약속이다. 현대사회처럼 신용카드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상에서는 신용이 곧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즉, '저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사회활동에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식부터 갖는 것이 좋다.

조금 더 나아가면 청소년들이 금융권에서 용돈을 모아 저축을 하는 것은 물론 펀드나 주식투자도 할 수 있다. 이는 각 은행 연구소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므로 금융권에 문의해서 상황별로 알맞은 금융상품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은행 연구소 김장희 연구소장은 "경제교육은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며 "부모와 교사는 자신의 경제 체험을 의미화 하고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강진 기자

경제 관념을 갖기 위한 책과 사이트를 찾아보자

- <청소년 경제 수첩> 크리스티아네 오퍼만
-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김정호
- <회계사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32+1통의 편지> 야마다 유
- <만화로 배우는 생활금융> 금융감독원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www.fq.or.kr
- 온라인경제캠프 마이에프큐 www.myfq.co.kr
- 재미있는금융길라잡이 금융교실 http://edu.fss.or.kr
- 대한상공회의소 하이경제 http://hi.korcham.net
- 청소년벤처하자센터 www.haja.net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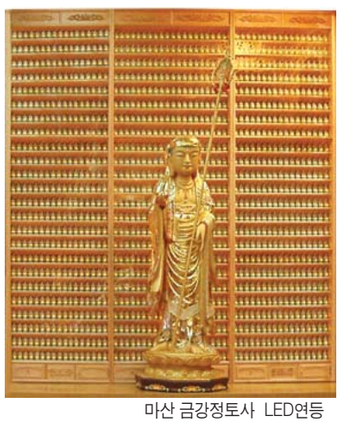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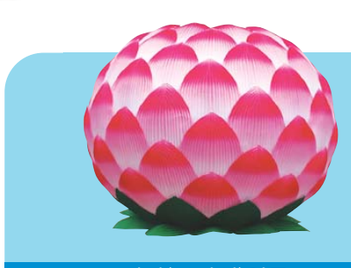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로수들이 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겨울이 되겠지요? 벌써부터 추위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온에 민감한 사람들은 특히 환절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해요. 건강보다 큰 재산은 없으니까요. 요즘은 교실에도 보일러가 들어와 추운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지만 성에가 하얗게 낀 유리창 너머 옹기종기 난로 불에 손을 쬐던 어린 시절의 겨울은 춥기만 했어요.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는 겨울을 느끼며 마음만은 언제나 훈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눙치다 : 좋은 말로 마음을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심동호씨가 더 이상 감정을 눙쳐 삭일 수 없다는 투로 역정을 냈다. <김원일, 불의 제전> 또 '어떤 행동이나 말을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의 의미도 있어요. (실컷 남의 흉을 보더니 다소 미안한지 자신의 말을 모두 농담이라고 눙치고는 바삐 방에서 나갔다.)

비보라 : 세찬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비.(바깥 인도에 사람들이 제각기 비 피할 곳을 찾아 부산하게 이리저리 뛴다. 비보라로 바깥은 뽀얗다.)<황순원, 움직이는 성>

성에 : 기온이 영하일 때 유리나 벽 따위에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서릿발.(차창에는 성에가 끼어서 밖이 뿌옇게 흐려 보였다.)<한수산, 유민> 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는 '성엣장'이라고 해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일제와 권력 앞에 무너진 인간의 '순수' 그려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안회남 作 '소'

이 소설은 단편소설로 시간적 배경은 1944년 9월 26일부터 1945년 9월 26일 이후 1년 사이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 문장이 명료하지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제 강점하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딘 1940년대 한국 최하층의 입장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죠. 1945년 <조광>에 발표된 이 작품은 작가의 징용 체험을 소설화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일제의 징용이 순박한 농민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증오에 찬 인물로 바꾸어 놓았는지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죠.

작년 9월 26일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북구주 입천 탄광으로 134명이 징용되어 갔고, 그 중에는 별명이 '소'인 삼룡이도 있었다. 그에게 소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의 얼굴 생김새와 태도가 소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룡이는 동료들이 소라고 부르면 성을 내며 야단을 치는 것이다.

내가 연기대 대장으로 사무실에 들어앉게 되었을 때 삼룡이는 나에게 자기를 굴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자기가 탄광에 오기 한 달 전에 이사장의 소 대신 자신의 소가 식용으로 공출되었고, 자신은 한 달 후 탄광으로 징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가 그렇게 죽었듯이 자신도 여기서 죽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소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라고 부르면 그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 화를 낸 것이다. 그러다 갱내에서 낙반사고가 났고 제천 사는 박이동은 죽고, 같이 일하던 삼룡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소가 자기 대신에 죽어서 자신은 죽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징용에 끌려온 지 1년 만인 9월 26일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는 삼룡이의 초

1940년대 한국 최하층 사실적 묘사
작가의 징용 체험을 소설화로 유명

대로 그의 집을 방문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삼룡이를 만났다. 나는 즐겁게 잘 놀고 나오는 길에 빈 외양간을 발견했다. 나는 소가 없는 빈 외양간을 쳐다보며 죽은 박이동을 떠올렸다. 다시 옆을 쳐다보며 삼룡이는 역시 소라고 고쳐 생각하고 나왔다. 산모퉁이까지 배웅 나온 삼룡이는 '이사장의 소를 끌고 와야지'라며 험악한 낯빛으로 내 생각과는 딴판인 말을 하였다.

'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농경 문화권에서는 농사와 관련되고 주술적으로는 악귀를 물리치고 불교에서는 참마음을 뜻하죠. 절 벽화에는 '심우도'라는 그림이 자주 등장해요.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가진 '소'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것은 삼룡이란 인물이 농민이란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소'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농사를 떠올리고 '삼룡'이라는 약간 촌스러운 이름에서 토속적인 시골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지요. 그 삼룡이의 별명이 소라고 한다면 그의 성격이 착하고 심성이 고운 인물이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농촌 어디에 가든 만나볼 수 있는 성격의 농부가 광부가 되었다는 사실부터 일제의 강제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사장네 소 대신에 공출된 자신의 소는 삼룡이의 운명과 처지를 그대로 보여 주죠.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이 죽으러 이 탄광에 끌려온 것이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긴장, 억울함,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뒤범벅이 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러한 농민을 대표한 인물이 삼룡이였던 겁니다.

해방 후, 삼룡이의 집을 방문한 '나'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소가 없는 빈 외양간을 보고 낙반사고 때 죽은 박이동을 생각하나 삼룡이는 자신의 소를 찾아오겠다고 이사장의 소를 벼르죠. 이것은 이미 삼룡이가 과거의 순박하기만 한 농부가 아니라 징용으로 성격이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에요. 일제의 착취와 핍박이 순박한 농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돌아온 삼룡이는 순박하고 착하기만 한 성격을 훼손당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이 일제만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층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불교는 뭘 믿는건가요?

학교에서 신문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뭘 믿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불교는 '인과(因果)를 믿어요'

가끔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교에서는 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인과(因果)를 믿는다'고 설명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면 뒤끝이 좋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과를 숙명(宿命)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명은 이러한 생각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생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법하셨습니다. 예컨대 전생의 잘못이 소금 한 줌 정도 된다고 합시다. 지금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악업만 짓는다면, 그 삶을 물 한 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줌을 넣는다면 얼마나 짜겠습니까. 즉 그 분은 전생의 과보를 아주 괴롭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생 과보가 동일하다고 해도,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분의 삶은 강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물에 소금 한 줌 넣는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렇듯 부처님의 설법에서 중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꿔 먹는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새로운 마음으로 쭉 살아갈 수 있다면 어제까지와는 다른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서울 옥천암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운산 스님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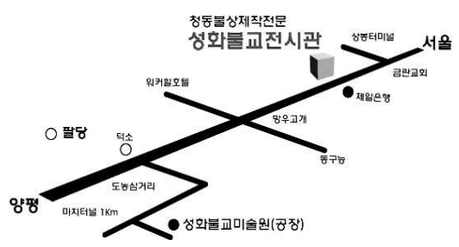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www.msdfarm.co.kr

"늘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마늘 좋은 줄 알면서 냄새 때문에?"



밀양 신지식인 제1호 이용주가 개발한 흑마늘 진액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했다.
수십종의 건강 식품을 연구 개발하였지만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건 배짱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꼼보약방가 제조 공법도 매우 색다른 방법이다. 자연에서 아무런 첨가물 없이 전통 옹기에서 21일간 숙성한 흑마늘은 냄새없고 흡수가 빠르고 그만큼 느낌도 빠르다.

◆1박스(30팩) ₩45,000
◆2박스(60팩) ₩90,000
※2박스 구입시 숙성흑마늘 (판매가 ₩18000) 2×6팩 증정

흑마늘 숙성 과정



"숙성 흑마늘"이란? 토종 흑마늘을 자연 숙성 시킴으로서 마늘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늘 본래의 유효성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생마늘에 비해 항산 화력이 거의 10배로 상승하며, 콜레스테롤의 산화 및 활성 산소 발생을 억제 예방하는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대폭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꼼보약방가 흑마늘" 이래서 믿음이 간다
◆대한민국 토종 흑마늘로 까다로운 미국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일체의 첨가물없이 자기발효시킨 무가당, 무방부제, 무색소!!
◆전통방식의 숙성비법으로 마늘 특유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

"이것저것 먹어봐도 별로였다"



산삼 흑산고 黑蒜膏
◆1kg(5개월분) ₩398,000

늘 피곤하고 천근만근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내 몸을 위해 딱히 믿고 먹을만한 건강식품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몸을 위해 만든 건강 식품이 있다. 바로 배양근 산삼, 녹용, 천마, 토종흑마늘로 100일 동안 숙성 발효한 산삼흑산고이다.

"간편하고 먹기좋은 "이용주 흑마늘 환"



이용주 흑마늘환 세트
◆4개월분 ₩89,000

흑마늘, 검은깨, 흑미, 검은 콩으로 천연숙성한 먹기 좋고 간편한 "환"으로 안토시 아닌과 베타카로틴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해외로 수출되는 "황제 흑마늘"



황제 숙성 흑마늘
◆1개월분(2×15팩) ₩45,000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시장을 개척한 황제 흑마늘은 전통 방식 옹기 숙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꼼보약방가 100년 정성으로 엄격한 검수를 거치는 3단계 품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100년 전통 100년 정성 명세당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35-1 ☎ 055)353-5001
농협 946-12-362513(예금주:최경란) 판매문의 : 금강선원 명명스님 017-587-7193
무료전화로 제품신청 080-353-5000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암 스님(2)

비구니,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네가 어느 길로 왔느냐'는 공안에 무어라 답하시겠습니까

혜 암, 어찌 가서 그 스님에게 묻지 않느냐

한 비구니가 혜암(惠菴, 1886~1985) 조실스님께 찾아와 고하였다.

"제가 통도사 극락암으로 경봉 스님을 찾아뵈니 스님께서 물으시기를,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네가 어느 길로 왔느냐?' 하셨습니다. 제가 이에 대답을 못 하였는데, 만일 스님께서 이 공안을 질문 받으셨다면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어찌, 가서 그 스님에게 묻지 않느냐?"

수개월 후 마침 도리암에 불사가 있어서, 이 비구니가 경봉 스님을 모시고 산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질문했다.

"스님, 도리천에는 길이 없거늘 어느 길로 가십니까?"

경봉 스님께서 머뭇거리시더니, 비구니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이 놈 봐라, 이 놈 봐라!" 하시었다.

뒷날, 혜암 조실스님께 찾아와서 이 문답을 여쭈니, 조실스님이 스스로 대답하였다.

"그 길로 왔다."

경봉 스님은 극락암을 극락으로 비유하면서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느 길로 왔느냐?' 고 학인스님에게 낚시밥을 던진다. 그러나 학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길이 없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극락은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을 상징한 말일까? 마치 '문 없는 문의 관문(無門關)' 처럼 입구가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은산철벽처럼, 문을 찾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기에 철벽같은 관문으로 남아있는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문 없는 문, 길 없는 길은 영원히 막혀있는 것일까. 혜암 스님으로부터 선문답의 되받아치는 법을 배운 학인스님은 이번에는 도리암을 도리천에 비유해 경봉 스님께 카운트 펀치를 날린다. '도리천에는 길이 없는데, 어느 길로 가시냐?' 고. 제법 당돌해진 학인이 대견했던지, 경봉 스님은 멱살을 잡고 '이 놈 봐라!' 하며 도리천 가는 길을 일러준다.

얼마 뒤, 이 문답을 들은 혜암 스님은 '그 길로 왔다' 고 평을 한다. 길도 없는 곳에 나타난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란 말인가. 김영삼 前 대통령이 즐겨 쓰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 의 출전인 <무문관>에 나오는 유명한 게송(偈頌)에 힌트가 보인다.

극락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상징
大道 이르는 문 '無門' 으로 일컬어

"대도를 깨닫는 고정된 문은 없지만(大道無門) 그 문은 또한 어떤 길에도 통하고 있으니(千差有路), 이 문이 없는 관문을 통과한다면(透得此關) 그 사람은 천지를 활보하며 자유자재하리라(乾坤獨步)."

무문혜개(無門慧開) 선사가 <무문관> 서문에서 읊은 이 게송은 대도의 문은 문을 찾기 어려워 '무문' 이요, 문 아닌 곳이 없어 시방세계가 그대로 '무문' 이라는 이중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주 선사는 "큰 길은 장안(長安:서울)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어느 길이든 깨달음의 세계로 통하지 않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전도된 고정관념과 망상 · 집착을 여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을 볼 수 있다면 문 아닌 곳이 없고, 길 아닌 길이 없다. 대문 밖을 나서면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건만, 이정표를 잘못 보고 가면 삼천포로 빠지는 법. 정법(正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김성우 객원기자

'나무아미타불' 염하니 여기가 바로 극락

아미타사 법당 '선정쌍수' 공부 현장

"아미타불신금색(阿彌陀佛身金色) 상호광명무등륜(相好光明無等倫) 백호완전오수미(白毫宛轉五須彌)…."

2005년 봄에 11월 5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창덕궁 앞에 전병룡 원장(위강원 한의원)의 무상보시로 문을 연 아미타사 2층 법당. 예불과 향찬(香讚)에 이은 불찬(佛讚:아미타부처님을 찬송하는 노래)이 감미로운 곡조를 타고 이어진다.

대만에서 염불법을 익힌 자림 스님(송광사)이 향찬, 불찬, 연지찬(蓮池讚), 회향게(回向偈) 등을 전통 운율에 맞춰 선창하고 대중이 따라 부른 후, 대만의 고승 정공(淨空) 스님의 <무량수경(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 DVD영상 강의가 이어진다. 자림 스님은 화면을 보면서 동시통역으로 대중들이 법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국 연종(蓮宗:정토종)의 13대 조사인 인광(印光) 대사의 인증을 받은 정공 스님의 법문은 선(禪)과 염불은 물론, 화엄, 법화, 반야, 유식 사상을 아우르는 일승(一乘) 법문으로 염불행자들의 마음밭을 적신다.

정공 스님은 <무량수경>을 강의하면서 "한 생에 서방으로 가는 것은 팔지보살(八地菩薩) 등의 지혜와 신통, 덕과 공능, 활용을 얻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면서 "이는 사실 대단히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고 강조한다.

1992년 6월 29일부터 12주 동안 미국에서 강연된 정공 스님의 <무량수경> 법문은 무려 60개의 녹음테이프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 경에는 현교와 밀교의 성(性)과 상(相), 사물의 이치(事理), 인과(因果)가 남김없이 들어 있어 정토법문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한다. 정공 스님은 경장(經藏)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17년 동안 화엄을 강의한 후에 등각보살과 상상 근기의 최정상 인물들이 마지막에는 모두 염불하여 정토에서 태어나기를 발원한 사실을 깨닫고, 염불 수행과 설법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공 스님의 <무량수경> 강의가 끝나자, 자림 스님은 향찬, 불찬, 연지찬, 회향게의 곡조를 아뢰야식에 박힐 정도로 선 · 후창을 반복하며 외우도록 한다.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염불을 부르고 듣다 보면 '여기가 바로 극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희심이 난다. 운율에 맞춰 염하는 아미타불 정근 역시, 기억에 남는 곡조여서 절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정겹다. 원효 스님이 북과 장구를 치며 동네방네 다니며 '나무아미타불' 을 부르도록 한 까닭이 실감난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닦아서 명심견성(明心見性)하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 탁월한 방편을 베푼 불 · 조사님들의 은혜가 절실히 느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방정토만을 인정하는 염불과 유심정토를 강조하는 염불, 유심정토와 서방정토를 하나로 보는 입장 등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염불행자들은 원효 스님과 중국의 관정 스님, 대만의 정공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류로 크게 나뉘기도 한다. 하지만 아미타사에서는 이런 다양한 염불법문을 원융하여 선(禪)과 염불을 함께 닦는 '선정쌍수(禪淨雙修)' 의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4조도신, 5조홍인, 6조혜능, 무상, 영명 선사 등 역대 조사들은 물론 보조, 몽산, 태고, 서산, 감산 선사의 법문에도 나타나는 견해이기도 하다. 혜능 대사가 <선정쌍수집요>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만세(萬歲)에 괴로움을 뛰어 넘는 묘도(妙道)요, 부처님을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正因)이자 삼계 인천(人天)의 안목이요, 마음과 성품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다"라고 한 법문이 한 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정합일(禪淨合一)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서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일심불난(一心不亂)' 의 경지에 들어 자신의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염불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불은 바로 자기의 '자성이 염불하는 것(自性念佛)' 입니다."

아미타사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은 이런 자성염불에 이르면 한층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성염불이 되면 이 일념(一念)을 무념(無念)의 상태에 이르도록 정진하여 전신이 공적(空寂: 몸이 텅 비고 고요한 경지)하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법신(法身)이 단박에 나타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86세로 입적한 관정 스님은 본래면목을 깨달은 뒤의 공부에 대해 <자성염불 명심견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바 있다. "꾸준히 수행해 나가면 자연히 자신의 신체로부터 해탈하여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며, 그 때가 되면 자신의 법신이 온 허공계와 우주법계에 두루 충만하여 꽉 차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보신(報身)은 장차 극락세계 상품상생(上品上生)의 연못에 왕생하여 바로 연꽃이 피어나면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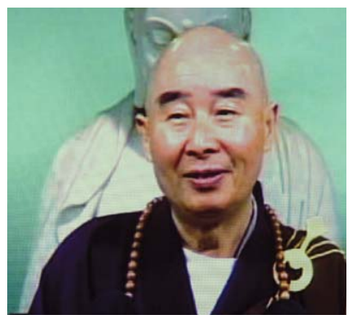
얼마 전, 홍콩 화장정종학회(華藏淨宗學會)에서 정공 스님을 뵙고 돌아 온 박병규 변호사는 "큰스님은 염불을 통해 자성을 깨닫고 인류를 구제하며 극락왕생하는 길을 팔십 평생동안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며 "기복이 아닌 구도심에서 수행하는 홍콩 불자들을 보고 중국 불교의 중흥이 임박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증일아함경>에서 염불하는 공덕에 의해서 무위처(無爲處)에 이르고 신통을 얻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염불이나 참선, 관법, 송주(誦呪) 등은 모두가 온갖 번뇌를 없애고 일념, 무념이 되게 하여 청정적광의 세계, 진여불성의 세계를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수행의 맛을 보지 못한 불자들은 가장 쉽고도 빠른 염불로 득력(得力)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02)745-3351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염불에 푹 빠진 아미타사 신도들(위), 동시통역에 나서 신도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자림 스님(왼쪽), <무량수경>강의를 하는 대만의 고승 정공 스님(오른쪽 DVD 화면).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간화선 담선법화**=조계종 포교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김천 직지사에서 혜국 스님(전국선원수좌회 회장)을 초청,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담선법회' 를 연다. (02)735-2428

●**절 · 요가 수행**=선재불교문화센터는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절수행, 매주 화 오후 1시 30분~2시 50분 요가 수행강좌를 연다. (02)725-7849

●**아비라 기도**=해인사 백련암은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정오까지 3박4일간 아비라 기도를 실시한다. 예불대참회(108배), 비로자나법신진언 및 대불정능엄신주 독송으로 진행. (055)932-7300

●**마음바꾸기 명상클리닉 기초반**=명상상담연구원은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1박2일간, 호흡과 염자관 명상치료 연수회를 갖는다. (02)2236-5306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가로5cm 폭2cm 줄길이15cm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

감사·보시 실천하며 이웃과 하나 되기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㊳ 수능시험기도

아들이 고3 되자 불안한 마음에 절 찾아
마음보시로 아들에 대한 자신감 생겨

내 아들 시험 잘 보길

수능시험을 앞두고 H씨는 오늘도 예불에 참석하여 기도하였다. 이제 며칠이면 시험이구나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다. 처음 절에 오던 날을 생각하니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가끔 절에 가곤 했었지만 시집 온 후로 거의 가지 않았다. 초파일에만 등을 밝히는 정도였지 사는 게 바빠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하나 뿐인 아들이 고3이 되자 문득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들 성적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고3엄마로서 뭔가 더 정성을 보여야 할 것 같았다. 이웃집 엄마가 항상 절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떠올랐다. 그를 따라 지난겨울부터 절에 다니게 되었다. 오직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렇게라도 하면 부처님이란 분이 그래도 아들을 잘 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매일 절에 가면 마음으로 아들 합격 발원 기도만 하였다.

위하는 마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험생 부모를 위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어떻게 내 아이를 위해 지극정성 기도하나, 기도 원력에 대한 말씀이려니 싶었다. 그러나 스님은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자라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는 일은 누구라도 합니다. 세상사람 누구나 악인조차도 자기 자신은 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에 왜 다닐까요? 바로 부처님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아니, 나 잘 되기 위해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닌가…. 순간 H씨는 머리가 쿵하고 울려왔다. 스님의 다음 말씀은 더 놀라왔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모든 수험생 학생들이 이번 1년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기를 기원 드립시다. 그 안에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모든 자녀를 위하는 불자의 기도를 부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H씨의 마음속에서 자꾸, '싫어, 다른 애들보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부터 합격하고 볼 일이야. 남 위해 기도할 새가 있나' 하는 소리가 나왔다. 스님은 마치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또 다짐을 하셨다. "자기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덕을 많이 쌓고 싶으시면 이 기회에 기도 보시, 마음보시를 많이 하십시오. 특히 기도해 줄 부모가 안 계시거나 어느 한쪽 부모가 안 계신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욱 지극한 마음을 내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부모가 안 계시니. 시험에 합격해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없을지 근심걱정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내 보세요."

H씨는 마치고 나오며 안내해준 이웃 보살에게 "아유, 옳은 말씀 같기는 한데 솔직히 힘이 드네요. 내 아들 생각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까지" 하고 털어놓았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힘드니까 그만큼 보람이 있지요.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공덕이 된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더니 "제가 오시던 날부터 보살님 아드님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모르셨죠?" 한다. 가슴이 뭉클하게 고마웠다. "아니 우리 애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니 "보살님 만난 것이 제 인연이니 무조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모두 시험 잘 보세요

H씨도 그 때부터 기도할 때 모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려웠다. 그러나 '그래, 보시다, 보시'하며 자꾸 해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아들에 대해서 갈수록 든든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감사하고 놀라운 체험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전에 내 아들만 생각하며 불안해할 때와 비할 수 없는 안정감과 환희심까지 올라왔다. 곧 있을 수능시험, 오늘도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하러 절에 가고 있다. 부처님 마음을 찾으려는 불자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나만을,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중생무변서원도를 행하는 것이 참된 불자이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위하시는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모든 중생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과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 불자 아닌가.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구룡사 법화경 산림대법회**=원주 구룡사가 〈묘법연화경〉 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11월 16~18일 구룡사 심검당에서 열리는 〈묘법연화경〉 산림대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100분씩 총 5회 10시간의 강의가 열린다.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을 법주로 〈법화경〉 각품의 대의와 요점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산림대법회 동참자에게는 교재 및 〈법화경〉〈요품 강의〉 1권을 증정한다. 접수는 15일까지, 선착순 50명에 한해 받을 예정이다. (033)732-4800

●**도선사 후불탱화 봉안불사**=서울 도선사가 호국참회원 삼존불 후불 목탱화 봉안불사를 봉행한다. 호국참회원에 모셔진 삼존불 가운데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91호. 이번에 봉행하는 탱화 불사는 바로 이 삼존불의 후불탱화이다. 혜자 스님은 "탱화 불사는 일체중생을 부처님 도량으로 귀의토록 하는 신심의 발현이며, 뭇 중생들에게 무언의 감화와 위신력을 드리워 주는 일"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2)993-3161

●**대학생정토회 선재수련**=대학생정토회에서 2008년 선재수련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일곱 번째를 맞는 인도선재수련과 필리핀선재수련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7차 인도선재수련은 1월 4일~2월 4일 인도 둥게스와리 일대에서 이뤄진다. 불교수련과 더불어 둥게스와리 일대 마을개발,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기념식 등에 참가하게 된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인도 8대 불교성지순례가 마련된다. 7차 필리핀선재수련은 1월 9~24일 필리핀 민다나오 일대에서 진행된다. 민다나오 일대 마을개발에 참가하고, 마을축제, 불교수련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별프로그램으로 필리핀 Xavier대학 교류 프로그램인 평화심포지엄과 평화문화제가 준비되어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5~22일. 대학생정토회 홈페이지(www.jungto20.org)에서 선재수련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university@jungto.org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5〉

행동주의와 불교-3

'갈애' 끊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행동주의 학습 '갈애대상'이용

부처님을 깨달은 사람, 각자(覺者)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연기법이다. 〈초전법륜경(初轉法輪經)〉을 보면, '세존께서는 우루벨라의 니란자야 강변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후 7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면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러던 중 밤이 시작될 무렵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관찰했다'고 나온다. 이때 관찰한 것이 12연기법이다.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보는 것을 순관(順觀), 소멸하는 대로 보는 것을 역관(逆觀)이라고 한다. 연기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

이 가운데 원인되는 것이 다섯,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일곱 있다고 하여 인오칠과(因五七果)라고 한다. 무명(무지)과 행(전생업)은 과거 2인으로, 이 과거의 원인에 의한 현생의 결과로서 5과인 식(탁태)·명색(정신과 신체)·육입(감각기관)·촉(접촉)·수(느낌)가 생긴다. 다시 애(갈애)·취(집착)로 인해 유(존재의 씨앗, 내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생기고, 이 현재의 3인에 따라 미래 2과인 생(내생의 태어남)·노사(내생의 늙고 죽음)란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다.

돌고 도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점은 현재의 5과의 마지막인 수(느낌)와 현재 3인의 첫 번째인 애(갈애) 사이에서다. 즉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접촉이 있으면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그 느낌에 대해 고(苦)나 낙(樂), 불고불락(不苦不樂) 어디에도 갈애를 갖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내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인 유(有)가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애가 다하면 괴로움도 쉰다(愛盡苦息)고 했다. 이렇게 12연기설에서는 느낌과 갈애 사이, 즉 느낌에 대한 갈애를 끊을 것을 가르친다.

행동주의의 학습이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은 개를 대상으로 한 조건반사 실험에서 나왔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 생리학적인 원리로 침을 흘린다. 여기서 먹이를 무조건 자극, 침 흘리는 것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면 개는 먹이는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 줘도 침을 흘린다. 즉 중성자극인 종소리와 무조건 자극인 먹이가 연합이 되어 개는 중성자극인 종소리에도 침 흘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조건반응이라고 한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 역시 방법만 조금 다를 뿐, 먹이나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동물이 특정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것은 같다. 즉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조작 행동) 먹이가 나와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게끔 유도한다.

이렇게 학습이론은 먹이, 곧 동물이 갈애를 갖는 대상을 도구로 삼는다. 동물의 본능적인 갈애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의 기본 교리인 12연기법에서는 '갈애를 끊을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불교와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히말라야 석청이란?

히말라야 석청(WILD HONEY)은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000m-4000m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산지역의 수백미터에 달하는 기암절벽에서 채취하는 꿀로써 성경과 불경에도 이 꿀을 약용 또는 참선시 음용하는 신비의 품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만을 찾아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꿀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기암절벽에 집을 지으면 수십년-수백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서식을 하며 300년 이상 된 것도 있어 이런 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을 효험이 큽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보급가액 500g ₩ 500,000원

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병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무등산풍경소리 두번째 앨범 출시

5년 음악 여정 고스란히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무등산풍경소리가 최근 두 번째 음반(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5년간 열어온 음악회의 인연과 선율들을 한 데 묶은 것. 5주년 기념음반 '풍경소리2'에는 그동안 음악회에 참여했던 음악인과 이야기 손님들의 목소리와 글, 음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음반을 틀면 손병휘씨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2'를 시작으로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가 '꿈꾸지 않으면'을 간디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라이어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포크 라이브 가수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 한태주의 흙피리 연주곡 '봄' 등 음반에는 총 18곡이 실려 있다.

한편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 무등산 증심사 취백루에서는 '무등의 가을바람을 노래한다'를 주제로 국악인 윤진철씨와 음악평론가 시인 이원규씨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 '57회 무등산 풍경소리'를 진행한다. (062)526-1187 김주일 기자

'孝' 정신 담은 웅장한 선율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광덕 스님의 시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인 국악교성곡이 무대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의 공연모습.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 18일 아람누리극장 무대에

아버님의 높은 은덕 하늘에나 견줘볼까
어머님의 중한 은덕 땅에다가 비유할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그 은혜 크다 하나
부모님의 크신 은덕 하늘땅을 넘으셔라
<부모은중송 중에서>

부처님은 <부모은중경>을 통해 한량없이 크고 깊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가르쳤다. 효의 공덕은 한겁동안 말씀하시더라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부처님께 공양함과 그 공덕이 같다고 하셨다. 이 시대 효가 갖는 의미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되새기는 공연이 열린다.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단장 김회경)이 11월 18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인 것이다.

광덕 스님은 '부모은중송'의 가사를 쓰던 당시 "부처님이 비할 데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것도 다생(多生)동안 효도한 까닭"이라며 "효가 바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진실한 인간을 행하는 길이며,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길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곡은 특히 서양의 기독교를 찬미하기 위해 바흐나 헨델이 만들었던 대합창 칸타타(교성곡)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불교를 찬송하는 대규모 합창곡이다. 그래서 연주 규모도 크고 웅장하다.

이번 연주에서는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천수천안불교합창단과 조계사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300명)이 입을 맞춘다. 남상일(국립창극단원)과 국악인 박애리, 강효주씨 등도 솔리스트로 출연해 독창을 부른다. 총지휘는 김회경씨가 맡았다.

이에 앞선 1부 공연도 자못 흥미롭다. 최현진씨의 지휘로 천수천안불교합창단이 '환희의 출발'을 부른다. 이어 국악인 신영희 명창이 특별출연해 '심청가'를 선보인다. 또한 불자가수 송춘희씨가 '불국토를 향하여'를 선사한다. 마지막은 사물놀이의 달인 이광수씨가 민족음악단과 함께 나와 '마음을 깨우는 소리'를 주제로 한 사물놀이로 흥겨운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천수천안예술단 총재 법송 스님은 "<부모은중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식들을 위해 불선업을 마다 않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헤아리며 각 가정마다 '효'의 꽃이 가득 피워지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R·E·V·I·E·W

안정된 기량·독특한 음색의 조화

-니르바나 필하모닉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보고

"커지고 강해졌다." "훌쩍 자란 느낌이다." "감동적이다."

11월 7일 저녁 7시30분 여의도 KBS 홀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마련한 소아암어린이돕기 다섯 번째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장문학(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씨가 지휘봉을 잡은 니르바나는 잘 다듬어진 목관과 안정된 금관을 바탕으로 풍부한 현악기의 사운드를 선보이며 대체적으로 다른 오케스트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음색을 만들어냈다.

1999년 창단 이후 수십차례의 공연을 거치면서 기량의 안정화를 이루었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독자적인 개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는 악구들 간의 이음새가 가끔 매끄럽지 못해 연주의 정교함은 다소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첫 레퍼토리로 선정된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제2번 '몰다우'는 이번 소아암돕기 기획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곡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작곡자인 스메타나는 평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다 갔다. 음악가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는 청력 이상도 생겼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맞서 창작혼을 불살랐다. 그 중 하나가 '몰다우'다.

서로 다른 두 곳에서 흘러나온 뒤 합류해 프라하를 지나는 블타바(몰다우) 강처럼, 이 곡에서는 내면에 드리워진 슬픔이라는 내적인 흐름과 이를 승화한 우아함이라는 외적인 흐름이 어우러지고 있다. 니르바나의 다양한 음색과 풍부한 음향이 관현악으로 잘 조화됐다. 휘몰아치는 종결부가 끝나자 1000여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연주된 프로코피에브 '피터와 늑대'는 짧은 곡이었지만 영화배우 이지해씨의 해설과 다양한 타악기가 동원돼 독특한 색채와 동화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세 번째로 선보인 '슬라브행진곡'에선 터키 지배를 받던 슬라브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니르바나가 내뿜는 선율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졌다. 또한 하얀색 정장에 색소폰을 들고 나온 이인권씨의 영화음악 연주는 압권이었다. 끊어질 듯하면서도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의 음색과 뮤지컬 배우 뺨치는 차분하며 신들린 듯한 율동은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관객들은 흥에 겨운 환호성을 여기저기서 질러댔다.

니르바나는 영화음악의 조용한 결말에 아쉬움이 남았는지 앙코르곡으로 그리그의 페르퀸트 조곡을 선택해 공연장을 드라마틱하고 열광적인 분위기로 이끌었다.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는 특히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아 더욱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공연을 끝낸 강형진 단장은 자랑스러움과 환희심에 북받쳤는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삼배를 올려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리고 이진구씨의 창작 찬불곡인 '내마음의 부처'를 마지막 선물로 보내 주었다.

불교계의 힘든 여건속에서 지난 10여년간 클래식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지평을 넓혀온 니르바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불교클래식 음악의 더 큰 가능성과 역량을 과시한 무대였다.

니르바나는 대규모 교향곡을 소화해 내며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이제 명실공히 불교 음악계 최고의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동국제강, 삼성전자, 하나은행 등 국내 7개 대기업 후원이 바로 그 증거다. 앞으로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니르바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㉖

재약산 내원암

-장인성 시인



내원암(內院庵)-판사 승려였던 효봉 스님이 수행하던 표충사 부속암자이지만 지금은 찾는 발길이 드물어 적적한 기운이 감돈다. 그림 : 이상배 화백

살다보면 외로운 날이 있다
핏줄이 휘도록 적막한 날이 있다
그런 날엔, 아무렇게 자라난 풀 한포기에게도
다정하고 싶을 때가 있다

살다보면 그런 날이 있다
눈꼽같은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
여름 한 철 풀포기를 가슴에 안고
젖꼭지를 내어준 햇살무리의
고요한 시선과 마주칠 때가 있다

그런 날엔 내 몸도
무엇엔가 포근하게 안기고 싶다
깊은 산 고요한 절집에 들어
입술이 뽀얗도록 젖꼭지를 빨고 싶다.

불국사 성보박물관 기금 마련

김화수 화백 초청展

서예가이며 문인화가인 추전 김화수 화백의 서화 전시회가 11월 25일까지 경주 불국사 무설전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불국사 성보박물관 건립 기금 조성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왕죽도, 산수, 설경 등 30여점의 사군자 및 문인화와 10여점의 글이 벽에 걸린다. 백색 한지에 곧게 친 '왕죽도' 속의 대나무는 굳은 절개와 기상을 느끼게 한다. '목단'이란 작품 속에 들어 있는 빨간색 꽃잎과 노란색 화술들은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백색 한지에 곧게 친 왕죽도.

일필휘지로 한 획에 그어 내려간 '불(佛)'은 작가의 돈독한 불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서화평론가 김종원씨는 "김 화백의 글과 그림은 내재적 의식의 발현에 기법적 외재율이 어긋나지 않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이 시대 미학정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010)2320-0948 김주일 기자

알림 652호 문화면에 나갔던 예정화 불교회화전 중 전시회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지 않아 알려드립니다. 전시회는 11월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립니다.

元·氣·回·復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출간 !!!

심명 99절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름 그대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자비광명들이다. (...)
이 심명은 언어와 문자이면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주옥같은 법문이다.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법융 선사의 뜻을 잘 관조하여 영산회상에서 가섭 존자가 지었던 미소 짓길 바라마지 않는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심명 서문 중에서...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행스님

나라는 것을 쑥 빼버리고 공심으로 사세요!

계를 주고 받는 마음 자세

문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청하오며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계를 받고 계를 주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법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청법가를 부르시는데 저는 송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온 누리에 나와 더불어 같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곡하고 애절하게 법문을 청하는 그 마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왜 그런지 가슴이 뭉클하고 아픕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난 내 나름대로의 생각한 바가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계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어떠해야 받고 주는가.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자리같이 생각하고, 모두가 뺏기고 뺏는 사람도 평등하게, 더불어 같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사는 걸 모두 볼 때에 침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서로 찢기고 뺏기고 하는 그 사연들을 볼 때 너무나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정신이 갈갈이 뜯기고, 정신을 갈갈이 뜯어서 먹고, 뺏기고 뺏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남자 분들은 술을 마시고, 허허벌판을 그냥 걷기도 하고, 당장 가정의 급한 거를 해결을 못해서 애를 쓰고…. 이거는 말로 형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 모두가 돌이 아닌 까닭에 살생을 하면 그 아픔을 당하는 놈이나 아픔을 주는 놈이나 똑같이 아픔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생계이니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 남을, 남의 생명을 함부로, 우습게 생각한다면 내 생명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불투도계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훔쳐야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살지 않고, 내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넘겨다보는 그런 것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남의 거를 훔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쓴다면 언젠가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불사음계이니' 하는 것은, 내 집에 사랑하는 분을 두고도 왜 그거보다 더 예쁘거나 못하거나, 하여간에 자기 마음에 들었다 하면 쳐다보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참, 자식을 못 낳거나 또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두 분을 두고 사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충실해야 됩니다. 마음을 건드리지 말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평등하게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두 분도 거느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집에 이렇게 두고 남의 거를 뭐,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겁탈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또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좋은 이미지를 지키지 못하고, 이미지를 나쁘게 손상시키고 끝까지 나간다면 그것이 요다음에 또 다시 끝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불망어계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입을 조심 못해서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거짓말을 한번 해 놓으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나 내가 거짓말을 한 거를 아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모두가 퍼지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생명들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좋은 거짓말은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의절한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 붙인다거나, 부모들이 속상하고 자식들이 속상할까봐 실질적으로 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적중히, 마음을 속이지 말고 그저 자기도 손해가 없고 상대방에도 손해가 없이 적중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불음주계이니'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술을 조금 먹고 얼근하면 참 쾌활한 마음이 들고, 내가 술은 안 먹어 봤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을 얼근히 그냥 조금만 마셨으면 마음이 쾌활하고 노래도 나오고 가정에도 들어와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다 녹초가 되게 자시니까 그거는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지요? 그 속썩는 마음은 말도 못하고, 자기는 몸에 지장이 되죠. 그러니 이튿날 또 속상하죠? 만약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이미지가 또 좋지 못하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남과 남을, 나와 남을, 여러 사람을 다 괴롭히는 일들이 되니까 그게 망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좀 넓혀서 부모에게나 자식한테나 형제들한테나 또는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화를 내고 거절하고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짧으면 짧은 대로 들어가 주고 길면 긴 대로 들어가 주고 둥글게, 항상 자기는 어디에고 작은 그릇에도 들어갈 수 있고 큰 그릇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바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그릇이 돼야만이 그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겠지만 그거는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 안 할 것도 없고, 그저 담담히 말없이 지켜보고 마음을 내 주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그쪽 마음에도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가정 아님이 없이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늘에서 말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 한가운데서 열쇠를 내줄 겁니다, 아마. 자유의 문서를 탁 내줄 겁니다, 아마. 이건 누가 개인으로서 줄 게 아니니까요.

전에 얘기했지요? 컴퓨터에 입력이 됐는데, 아마 수억겁 전년서부터 입력이 된 건데 내가 거기다가 다시 지금 현실에 이 공부하는 것을 자꾸 입력을 해 보니까 앞서의 게 그냥, 수억겁 전년 것이 그냥 다 뭉개져 없어져 버리더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극하게 수계를 받았을 때에, 당시에 벌써, 일체제불의 그 도리천에 끈이 닿아 있으니까, 여러분만 잘하시면 계단 밟지 않고도 스스로 아마 인연으로서 그 업보가 다 무조건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정성껏 공부해 보세요. 미생물에서부터 거치면서 우리에게 누적된 그 자체가 그대로 없어지는 공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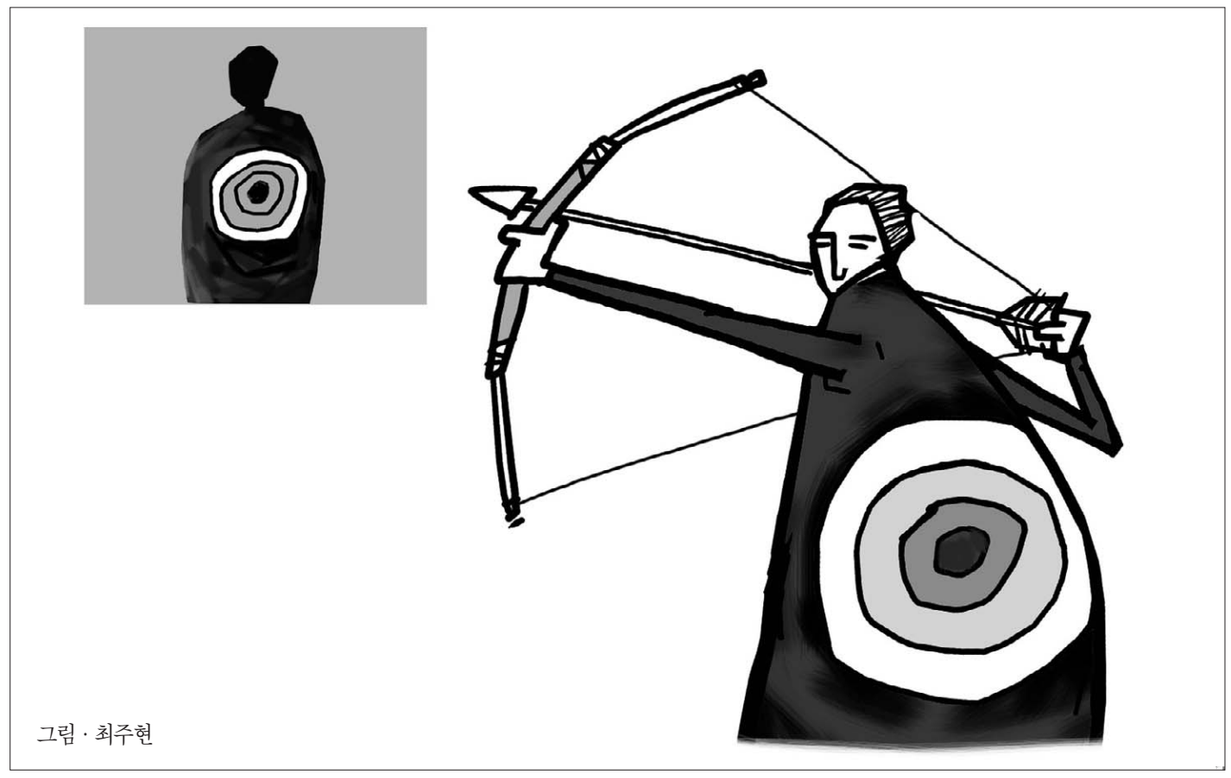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죽어서의 차이점

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도리와 인연이 되어서 마음공부를 하고 죽은 사람과 인연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죽어서의 그 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 마음공부를 한 사람들끼리의 인연은 어떠한지요?

답 모두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과 한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 도리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두를, 업연을 엷애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는 깨침의 도리를 일러 주기 위해서 자꾸 생활

☞20면으로 계속

제37차 운문승가대학 임시 총동문회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가 여러 선후배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운문 도량에서 아래와 같이 임시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정진 중 바쁘시더라도 운문사 모든 선후배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2551(2007)년 양력 11월 16일 오후 1시 (음력 10월 7일)
장 소 | 운문사 삼장원
안 건 | 모교 발전에 대한 건
문의전화 | 054)372-8800(운문사 종무소)
054)383-5250, 017-508-7561(동문회장)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명심** 합장

경전연구회 발족 안내말씀

존경하는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
항상 수행과 포교로 일선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께 공경예배드립니다.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일찍이 경전을 마쳤거나 새롭게 공부하실분 또는 포교를 하시는 스님들께 다시한번 부처님의 생애와 경전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경전연구회를 발족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포교 방법과 불교발전, 현대적 정보교환 자아완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님들의 지중하신 관심과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일 시 :** 2007. 12월 개강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2:00 ~ 6:00)
■ **첫개강일 :** 2007. 12. 5 (수요일) 12시 공양후 1시 접수 및 계획 논의 오후 2시 개강
■ **장 소 :**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 **과 목 :** 1. 부처님일대기 (오후 2:00~5:00)
2. 금강경 (오후 5:00~6:00)
3. 특강 (스님들의 요청에 따라 의논해서 정함)
(상기 과목이 끝나는대로 타 모든 경전 지속적으로 이어나감)
■ **교 수 진 :** 부처님 일대기 – 서울 금강선원 총재 한 정섭 법사
금강경 – 전 불국사 강주 응각 큰스님
■ **동 참 금 :** 50만원(6개월)
■ **발 족 인 :**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근배.
■ **연 락 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용화사
전화 (061)381-2683, 팩스 (061)381-2747
홈페이지 www.dyhs.co.kr(담양 용화사)

벗어나려면 한 구멍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19면에서 계속

에서 닥쳐오니까 그런 수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기 한 시간 전에 이 마음의 도리를 알고 행하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주 너끈히 웃을 수 있고, 죽지 않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몸뚱이는 사대로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자체는 슬기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여래와 한자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항상 영원토록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기복으로만 끄달리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그 의식들이 집에도 있고 무덤에도 있고 친척 간에도 있어요. 의식들이 그렇게 떠나질 못하고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살던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가려니 물 소용돌이를 벗어나야 될 텐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거고 또는 불 소용돌이를 지나야 될 텐데 타 죽을까 봐 못 가는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타 죽을까 봐 빠져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또 그 모든 업연들이 뭉쳐져서 보이는 곤충들, 짐승들 또는 귀신들이 모여 있는 데를 넘어서려니 그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보여서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니까, 그 업연 굴레에서 무명 굴레에서 악연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간 차원 그대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 그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로도 되고 돼지로도 되고 닭도 되고 뭐, 별거 별거 다 되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왜 본체만체하느냐. 왜 나는 안 주고 너희들만 먹느냐.' 하고 귀찮게 구는 거죠. 자기 몸뚱이가 살아 있는 줄 알거든요. 지금 자기라는 착(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끼리만 알아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유전이 돼서 자식들한테 내려오죠. 그러니까 '천도해라. 마음을 공부해라. 둘이 아닌 공부를 해라. 그렇다면 어떠한 영계성이든 유전성이든 세균성이든 업보성이든 다 한 컵의 물방울이다. 물방울을 열 개를 이 속에 넣어도 한 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고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물도 말갛게 맑은 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할 테니까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너만이 나쁜 짓을 안 하게 할 수 있다.' 하고 관(觀)하시고 속상하면 '아, 마음을 싱그럽게 하고도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아니 왜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몸뚱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대대로 대대손손 그런 유전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부모나 미래의 자식이나, 과거에 살던 자기나 미래에 자기가 갈 거나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지금 막 요리를 하는 거죠. 막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막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게 참선이고 관법입니다. 집어넣는 그 수행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용광로에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 막 용광로에다
>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 그게 참선이고 관법입니다!
> 집어넣는 그 수행만 한다면
> 자동적으로 생산이
> 돼서 나갑니다!
>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용광로에
>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오신통에 대해서

문 스님께서는 오신통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오신통을 쓰며 살고 있다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그런 신통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역대 조사님들은 오신통을 쓰는 것을 금기 사항으로 경계하셨습니다. 체와 용이 둘이 아니라 하나 사회생활에서는 용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 오신통을 활용하여도 부처님 법이나 역대 조사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여러분! 생활이 그냥 오신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보시죠? 들으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좋고 나쁜 걸 아시죠? 그리고 말을 통해 보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죠? 그리고 가고 오는 것도 가고 오고 이러시죠? 고정된 게 없이 그냥 가고 오고, 말도 고정된 게 없이 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오신통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오신통을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신통을 하되 오신통 안에서도 벗어나야 진짜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느니라 이런 소립니다. 지금 오신통을 굴리고 사는데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얘기하죠. 내가 했다, 내가 줬다, 내가 살고 있다, 내 거다, 내가 번다,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거를 쑥 빼 버리고 '나는 공체로다. 나는 공체고 지금 내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저 심부름할 뿐이야.' 이러고 사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신통을 벗어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렇게 한 구멍에다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나는 관리인이요 집합소요 심부름꾼밖에는 될 수가 없다. 자생중생들을 먹여 살리면서 내 마음으로써 모두 다스려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현을 시켜 놔야 되겠기에 나는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보살들로 이루어 놓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신통이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눈 가는 데 귀도 쓰고, 귀 가는 데 코도 쓰고, 코 가는 데 혀도 쓰고, 혀 가는 데 몸뚱이도 다 씁니다. 그게 오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쓰는 거 보셨습니까? 오신통을 따로따로 쓰는 게 없으니까 오신통도 없다 이겁니다. 오신통도 벗어나서, 오신통이라고 이름 해서 오신통이지 오신통은 없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오신통이 없다는 자체는 우리가 종합해서, 밥을 지으려면 물도 들어가야 하고 불도 들어가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쌀도 들어가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한데 모여서 밥 한 그릇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 가는 데 귀가 가고, 귀 가는 데 냄새 즉, 우리가 반찬 냄새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냄새와 맛, 결정적인 맛, 이런 거는 좋고 저런 거는 나쁘게 하는 것이고 '이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건 싫구나.' 하는 결정적인 맛, 그런 것을 아는 그 자체를 송두리째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따로따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벌써 귀로 듣게 되고 귀로 듣게 되면 벌써 결정이 되게 되고, 벌써 나쁜 거 좋은 걸 가리게 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오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오신통이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이 고정되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 하느니라. 그리고 지금 어항 속이 오신통 안입니다. 지금 공기주머니 안이 오신통 안입니다. 오신통 안에서 아무리 해 봤던들 내가 자유스럽게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기 없는 데나 공기 있는 데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자유인이 못되고 오신통 안에서 허우적거린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통이다 하는 생각도 말고 오신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마세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오신통 안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오신통 안에서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 법통 안에서 벗어나야 그것을 스스로 자유스럽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나는 관리인이요 집합소요
> 심부름꾼밖에는 될 수가 없다!
> 자생중생들을 먹여 살리면서
> 내 마음으로써 모두 다스려서
> 천백억화신으로 화현을
> 시켜놔야 되겠기에
> 나는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 보살들로 이루어 놓겠다!

주위 사람의 일은 되지 않는데…

문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가다 보니 제 육신에 대한 것은 근본에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을 느끼는데 저와 관련된 주위 사람들의 일은 왜 그렇게 잘 안되는지 그걸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도 욕심인지요?

답 여러분이 다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면 죄 받죠.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세상에? 죽는 것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아픈 것도 그렇고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깨치는 것 이 여섯 가지를 아무도 대신 못해 주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만이 자기를, 자기 몸을 이끌어 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이라고요. 다스리는 선장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의 입자를 그냥 수없이 내보내서 어떠한 용도라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스님은 저렇게 뻥이나 치고,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그런다.'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대로 여여하게 초월해서 회전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저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기가 평화롭기도 하고 살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찾아도 이렇게 안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알았다고 그냥 보낼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또 "관하세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왜 관하면 될 거를 그렇게 못 믿고선 못 관하고 그러느냐? 내가 산소에 가도 산소로 쫓아와 그거 해 달라고 그럴 테냐?"그러고 야단하죠. 때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하니까요. 그렇지만 딱해서 그러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좀 미련한 듯하게, 똑똑한 척하지 말고 미련한 듯하게 '무조건 너만이….' 그저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벌써 부(父)와 자(子)가, 주인공과 자기와 둘 아닐 때는 길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아, 저건 안 됐다.' 이러면 그냥 천가가 되는 거야. 꼭 주인공에다 맡기고 안 맡기고가 어딨어, 싹과 뿌리와 한데 붙었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게끔 돼야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면서 화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냥 한 찰나에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왜 도움이 안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둘로 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관하는 걸 가르쳐 주면 쉽죠. 왜? 이게 전력은 있되 가설이 안됐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내 전깃줄 하나만 가지고는 이쪽에 불 들어오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능숙하게 아는 사람은 그냥 그리로 가서 하나가 돼 버리니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돼야 할 텐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되지 않습니까. 둘은 둘의 전깃줄이 있어야 맞붙어서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혜로써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나가 돼 버리든지, 그거를 끌어다가 나 하나로 만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관하는 것만 가르쳐 주고 내 마음을 내 주면 붙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은 들어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찰,법당,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노래방기기 설치

추천상품 베스트상품



SOUNDART REINFORCEMENT SYSTEM



CHS 스피커



영상음향기기



휴대용 충전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100% 환불보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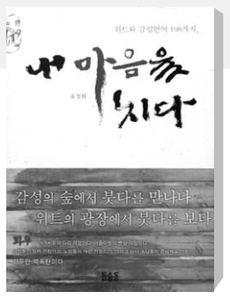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교용어 감성과 위트로 설명



내 마음을 치다
윤창화 지음
동숭동 펴냄 | 9500원

"A씨를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얼굴일 것이다. 그럼, A씨의 사진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 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얼굴과 이름 즉, 사물과 이름은 불가분의 관계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한낱 물건에 불과한 것과 같다. 이름이 있음으로 형상의 존재가치가 규정되고 전해지는 것이다. B씨 앞에서 아무리 A씨를 불러도 B씨는 B씨일 뿐, 대신 대답하지 않는다.

불교를 공부하는데 있어 용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물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과 같다. 기본교리는 물론 일상적인 용어들도 그 쓰임새마다 뜻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야 한다. 정치인이 말하는 '화두'와 방장스님이 말하는 '화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화두'란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 단어의 쓰임새에는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람은 공부의 폭도 넓다고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치다>는 불교 집안에서 밥 먹듯이 물마시듯이 자주 쓰는 용어들을 아주 새로운 감성과 위트로 정의하고 있다. '화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아가씨들의 다리 걱정이다. 아줌마들의 뱃살 걱정이다. 남자들의 정력 걱정이고, 노인들의 애인 걱정이다. 그리고 산사 스님들의 중생제도 걱정이다."

저자는 먼저 지금 이 순간의 절실하고 간절한 걱정이 화두라고 규정한다. '지금 이 순간'의 걱정, 화두란 바로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커다란 글씨 그것도 붉은 색을 한 글씨로 다시 한 번 화두를 정의한다. '화두란 핵폭탄이다'라고. 물론 사전적인 의미를 빼먹진 않는다. 아주 상세한 설명과 용례로 단어의 뜻을 풀어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의문점이나 연계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도 챙겨준다.

<내 마음을 치다>를 펼치면 이렇게 재미있게 정리된 용어 108가지를 만날 수 있다. 일상 속의 이야기로 설명되어 있어 이해가 빨리 되고 쉬 잊혀 지지도 않는다. 제시된 용어를 이해하기에 적당한 사진과 삽화를 곁들인 것도 책읽기를 한결 수월하게 한다.

저자 윤창화(민족사 사장)씨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언어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생각이 날 때마다 노트해 두었던 것을 '마음먹고'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있던 저자가 책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철학과 사상은 물론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책이 내리는 '애욕'에 대한 정의를 들어 보자.

"본드다. 쥐 잡는 끈적끈적한 본드다. 일단 붙으면 여간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자의적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죽음의 신이 당도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정이다. 눈물과 슬픔을 대동한 채 깊은 감정에 호소하는 깊은 정이다. 붉은 눈물이 떨어지는 강렬한 애착이다. 심하면 병이 된다. 상사병이 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성철 스님 일대기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지음
열림원 펴냄|각 권 1만원

<산은 산 물은 물>(초판 1998년)은 전남 화순 쌍봉사 뒤편에 토굴을 지어놓고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소설가 정찬주(54)씨가 소설로 쓴 성철 스님의 일대기다.

주인공인 검사 정익진이 자신의 소모적인 삶에 대한 회의에서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좇는다는 구조에, 스님의 생애가 곳곳에 조명돼 있다. 8년의 장좌불와(長坐不臥)와 10년의 철책수행, 손수 기워 입은 단 두 벌의 누더기 장삼으로 평생을 지낸 일 등 수행자로서 철저했던 스님의 삶이 녹아 있다.

특히 이 책은 정 검사가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는 행각적 요소와 실제적 행장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기적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장편소설이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애쓰고 있는 정익진 검사는 현대의 우리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들, 출가 이전과 주변 인물들, 스승, 제자들의 이야기를 2권에 압축해 놓았다.

이 책의 제목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성철 스님이 1981년 1월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후 내린 법어다. 좀 더 자세히 법어를 소개하면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보고 듣는 것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이다.

군부독재시절 당시, 세상에 대한 스님의 사자후를 목말라 하던 사람들에게 이 법어는 그야말로 선문답 같은 감로법문이자 시대를 뛰어넘는 국민들의 영원한 화두가 되었다.

김주일 기자

법회 교재 · 불교에세이

꼭 알아야 할 부처님 법문 108가지



선묵혜자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을 맑게 하는 부처님 말씀 108
선묵혜자 스님 엮음
휴먼앤 북스 펴냄|1만5000원

도선사 선묵혜자 스님은 요즘 무척 바쁘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마음으로 찾는 108 산사기행' 때문이다. 그동안 4만여 불자들과 함께 1년여 동안 13곳의 사찰을 찾았다. 다닌 거리만 해도 무려 3만㎞에 이른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말씀 108 일요법회'를 시작하기 위해 <… 부처님 말씀 108>이라는 불교에세이를 펴냈다. 일종의 법회 교재다.

부처님 말씀은 무려 팔만사천경에 이른다. 그 속에는 인간의 고뇌, 외로움, 분노, 행복 등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들을 다 읽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이 책은 그 많은 경전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처님의 법문 108가지를 뽑은 책이다.

인간의 비극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데서 생긴다. 그 욕망은 우리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부처님은 많은 설법을 통해 '깨침'으로 인도하고 있다.

문장 문장마다 녹아 있는 주옥같은 교훈들은 우리들에게 진정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특히 사슴, 새, 코끼리, 토끼 등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말씀들은 읽는 이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던진다.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오다 못해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큼 지혜의 삶을 일러 주고 있다. 그간 설법한 내용과 포교 체험을 곁들인 선묵혜자 스님의 해설이 경전의 글맛을 돋워주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상생과 화해에 관한 소설

'종연생 종연멸(從緣生 從緣滅)'



시절인연
혜범 스님 지음
밀알 펴냄 | 9000원

'시절인연'이란 필요충분조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뜻한다. 흙 속에 풀뿌리가 있지만 보다 필요한 조건은 흙 밖의 환경, 즉 인연이 갖추어져야 새순이 돋고 열매가 맺어진다. '종연생 종연멸(從緣生 從緣滅)'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후에야 때가 온다.

저자는 교통사고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상생과 화해에 관한 소설을 이루어냈으니 그 산물이 이번 책인 <시절인연>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문은 중등교사 임용을 한 달 앞둔 10년 전,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의해 가족과 애인 희영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입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문은 10년이 넘었음에도 속세에서의 애증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고뇌한다. 기억을 지우려야 지울 수 없고 떼어버릴 수 없는 악연(惡緣)이다. 이러한 이문 앞에 단 한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 영혼이라며 나타난, 당당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이서연. 어머니와 희영을 떠올리게 하는 이서연을 통해 이문은 그동안의 고뇌와 산란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시절인연이 닿았음을 깨닫는다.

두 다리가 절단되어 복지법인의 시설에서 가축처럼 살고 있는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트럭운전사 장홍석. 이문과 장홍석은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상생과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이제까지의 광태(狂態)를 끝내고 원(怨)과 한(恨)을 풀기 위해, 고인들의 넋과 혼을 위로하기 위해 천도재를 지내줌으로써 이 소설은 마무리된다.

저자 혜범 스님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화두를 품고, 크나 큰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한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때, 즉 시절인연이 오게 되면 성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5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선	무비	불광출판부
8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9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10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염불하는 자, 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
스님은 자신의 수행법문 외에도 18여명의 역대 선사의 염불선 법문을 담아 수행자들의 발심을 돕고 있다. 불교신문
덕산 스님은 《염불선》을 통해 염불선에 대한 철저한 자기체험과 역대 고승들의 염불선 법문과 이론적 배경, 수행방법등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염불과 염불선은 무엇이 다를까?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덕산 스님의 《염불선》이다. 법보신문
염불과 참선의 장점을 결합한 염불선 수행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1문 1답 형식으로 구체적인 염불선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TV

염불선
출판 2주만에 재판 발행 !!
불교 수행하는 이들 모두가 기다려왔던 염불선의 길잡이
덕산 스님의 철저한 염불선 수행이력과 방법이 담겨있다.



"부디 염불하는 나날이 되십시오.
염불정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어둠을 몰아내고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덕산(德山) 스님
염불선으로 공(空)을 체험, 청화 스님 이후 차세대 염불선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스님은 충북 청원 혜은사를 중수해 염불선 전문수행도량으로 가꾸고 있다.

신국판변형 / 정가 10,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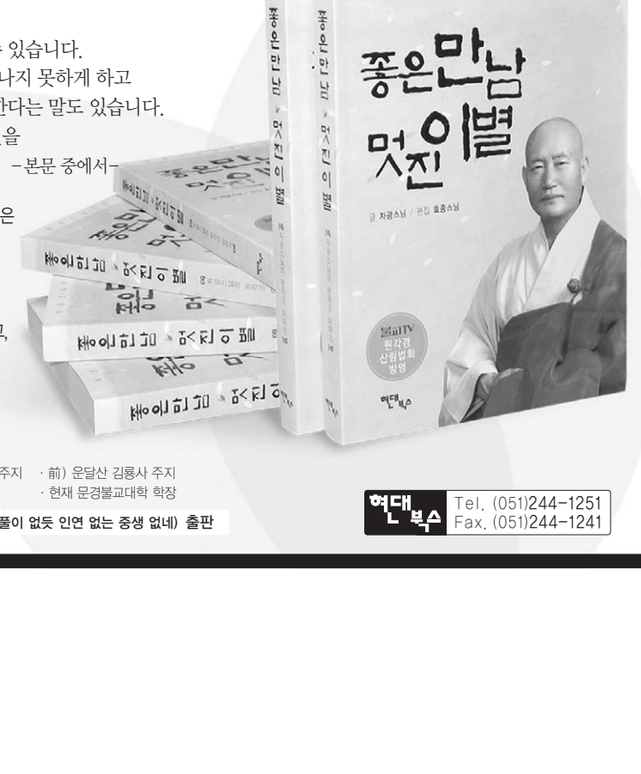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 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0. 우주만물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서강 물을 다 마신 뒤에 말해준다 하니
吸盡西江向汝道
마조는 풀 섶으로 들려 하지 않았네
馬師不肯落荒草
삼천세계 한결같이 가을 빛 감도니
三千刹海一成秋
명월과 산호가 싸늘히 서로 비친다
明月珊瑚冷相照

–천동각

방온(龐蘊, ?~785)은 호남 형양의 부유한 유교집안에 태어나 온 가족이 득도하였다고 전한다. 그의 어록과 훌륭한 게송, 유명한 공안들이 지금까지 제방에 지침이 되고 있다. 흔히 중국의 유마힐 거사로 지칭된다. 처음에 방 거사는 석두 희천(石頭希遷, 700~790)을 방문했다.

방온은 석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주 만물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不與萬法爲侶者是什麽人)

여기에 석두는 방 거사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즉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그거지" 하고 말문을 막았다. 여기서 깨달음의 문턱까지 안내된 듯하다.

다음에 마조를 방문하여 똑같은 질문을 한다.

사량분별심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독보인'
석두·마조 두 거장 상호협력으로 하화중생

마조는 대뜸 말을 받았다.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숨에 들이킨다면 바로 얘기해주겠네(待汝一口吸盡西江水)."

이 말끝에 거사가 바로 깨달았다.(居士言下 頓領玄要)

(〈선문염송〉 5권 161칙 '一口')

위의 선화는 천동각의 선시를 잊게 한 이야기다. 이 '一口吸盡西江水' 공안에 뒷날 뜻을 밝힌 게송 한 수를 풀면서 본칙 게송에 접근해보자.

천지에 홀로 가는 사람에게 묻노니
전부를 내어 주며 친하라고 부탁하노라
서강 물을 다 마시어 한 방울도 없으니
목구멍이 길목임을 누가 알리오

–석문이

석문이의 게송 1행과 2행은 아무런 사량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 사람이, 투명하게 그림자 없이 가는 이 사람이 바로 '독보인'이니 그에게 다가가도 그가 마조는 대뜸 말을 받았다.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숨에 들이킨다면 바로 얘기해주겠네(待汝一口吸盡西江水)."

이 말끝에 거사가 바로 깨달았다.(居士言下 頓領玄要)

(〈선문염송〉 5권 161칙 '一口')

위의 선화는 천동각의 선시를 잊게 한 이야기다. 이 '一口吸盡西江水' 공안에 뒷날 뜻을 밝힌 게송 한 수를 풀면서 본칙 게송에 접근해보자.

천지에 홀로 가는 사람에게 묻노니
전부를 내어 주며 친하라고 부탁하노라
서강 물을 다 마시어 한 방울도 없으니
목구멍이 길목임을 누가 알리오

–석문이

석문이의 게송 1행과 2행은 아무런 사량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 사람이, 투명하게 그림자 없이 가는 이 사람이 바로 '독보인'이니 그에게 다가가도 그가 될 수 없으며, 친하고자 해도 도저히 친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가 나이고 내가 그가 될 수 있는가? 바로 '한 입에 서강 물을 모두 마셔야' 알 수 있으니, 또 그럼 어떻게 해야 서강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는가? 4행에서 석문이는 물을 마시는 데는 목구멍이 길목이라 친절히 일러준다. 그러나 이 말에 속지 말고 잘 살펴야 한다. 물을 마시는 데는 목구멍, 도를 체달하는 데는 그 길목이 무엇인가?

이제 모두의 천동각의 본칙 게송에 닿을 것이다. 1행과 2행에서 노래하듯이 이미 깨친 마조는 저자거리로 몸을 나투어 있지만, 방 거사의 이항대립적인 양변의 견해에 빠져들 리가 없다.

오직 보살은 진리의 세계에 들지 않고 형상을 사회 속에 깊숙이 묻고 분별심으로 가득 찬 중생을 일원의 세계로 돈입시키고자 기회를 보고 있다. 2행에 '몸은 풀 섶에 들어 있지만 마음은 풀 섶 밖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풀 섶에 있는 중생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 사람의 경계가 "삼천세계 한 결 같이 가을 빛 감도니"이니 여기에 아무런 허튼 생각이 들 리 없다. 비유컨대 "명월과 산호가 싸늘히 서로 비친다(明月珊瑚冷相照)"로 형상화할 뿐이다.

착어 : 입추 후에는 여름옷은 세탁하여 갈무리해야 하고 두꺼운 옷은 손질해야 한다.

방 거사는 석두의 제자이며 동시에 마조의 제자다. 처음 석두에게 공부한 방 거사는 나중에 마조에게 깨달음을 얻어 마조에게 법사(法嗣)하였듯이 이런 강호의 두 거장이 상호 협력하여 다툼 없이 오직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해 손을 내미는 보살정신은 바로 선의 정신을 이룬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⑳

고비
최승호|현대문학, 2007|값 7500원





적막으로 가득한 적멸보궁로의 초대

1954년 강원도 춘천 출생인 최승호 시인의 열세 번째 시집 <고비>는 황량과 적막과 고요와 죽음과 텅 빔으로 가득 찬 불교적 상상력의 시집이다. 고비사막 여행을 시로 형상화한 이 시집은, 고비사막 여행을 잘 끝내고 돌아온 것 같은 뿌듯함과 만족감을 준다.

시 '그림자'에서는 해골이 뒹구는 적막한 사막을 걸어가면서 "위로는 나는 새 한 마리 없고/ 아래로는 기어다니는 짐승 한 마리 없다/ 아무리 둘러봐도 망망할 뿐/ 가야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언제이 길을 가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이의 해골만이 길을 가리키는 지표가 되었다"는 오래전 서역을 드나든 중국 법현 스님의 시를 인용한다. 시 '한 토막 뼈'는 사막에 뒹구는 뼈 토막에서 짐승의 전 생애에 대한 행위를 유추하고 생명의 무상성을 형상화한다.

이 뼈는 한때
쿨 달린 짐승이었다
털가죽을 뒤집어쓴 채 풀을 뜯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네 발로 걸어다녔을 것이다
이 뼈는 한때 피 따뜻한 짐승이었다
제 눈에 멋져 보이는 이성과
짝짓기를 해보려고 무척 애썼을 것이며
제 모습을 빼닮은 어린것들에게
젖을 먹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한 토막 뼈다
말의 등뼈인지 낙타 목뼈인지
아니면 양의 다리뼈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략

– '한 토막 뼈' 中

이렇게 생명은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흘어진 것이니, 바로 백골관이다. 육체가 무상함을 알고 몸에 집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송장의 피부와 근육이 다 없어지고 백골만 남거나 백골마저 흘어진 모습을 보는 것이다. '사막의 아이들'에서 화자는 천진불을 본다. 사막의 마을에서 만난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은 어린 지구인/ 같이 놀고 싶은" 천진불이다. 그러나 화자를 포함한 "우리는 천진불이 아닌 어른"이어서 같이 놀 수가 없다. '고비'에서 화자는 자신이 "고비였다면 나에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눈도 귀도 코도 없이 나는 늘 삼매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돌의 혀가 있었다 해도 침묵했을 것이"라고 한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죽였다고 비난해도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양과 낙타들이 자신의 품안에서 죽어가도 그저 무심, 무자비로 일관했을 거라고 한다. 그는 사막을 장엄한 '적멸보궁'으로 인식한다.

별이 가득한 지붕
모래 드넓은 마루
사막만큼 장엄한 적멸보궁이 있을까
여기서는 얼굴 있었던 것들이
얼굴 없이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이름 있었던 것들이 이름 없이
큰 고요 속으로 들어가 고요하다

낙타의 열반
늑대의 열반
공룡의 열반
사막만큼 장엄한 적멸보궁이 있을까
모래 끝없는 마루
별 가득한 지붕

어느 구석에 풍경을 걸어놓으면
뎅그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텐데
오늘은 바람도 적멸에 든 듯하다

– '적멸보궁' 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정

⑳호박씨 호두 꽈리고추 볶음

그동안 호박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의 요리 재료인 호박씨 또한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호박씨에는 칼륨, 칼슘, 인이 풍부하고 비타민B가 많이 들어있으며, 머리를 좋게 하는 레시틴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두뇌개발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는 칼슘·레시틴 등 영양소 풍부
두뇌개발·동맥경화·노화방지에 효과

또한 호박씨에는 리놀산이 풍부해 볶아 먹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노화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사마귀가 났을 때는 호박씨를 달인 즙으로 환부를 씻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듬이 많거나 두피가 많이 벗겨지는 사람에게도 호박씨가 좋은 예방제가 됩니다.

호박씨를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지만 잘 말린 호박씨를 곁에 두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수시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호박씨나 호두, 잣 등의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빈혈 예방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호박씨가 '여성을 위한 비아그라'라고 소개한 후로 더욱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호박씨 파동'을 일으킨 주인공은 질리언 맥키스 박사입니다. 맥키스 박사는 "호박씨가 리비도(libido, 성욕)를 증대시키는데 매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호박씨와 호두 등의 견과류와 꽈리고추를 함께 볶은 것입니다. 온 가족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호박씨 호두 꽈리고추 볶음

재료 : 호박씨, 호두, 꽈리고추, 간장, 설탕, 통깨, 식용유, 참기름

만드는 법

① 호두와 호박씨, 꽈리고추를 씻어서 건져 물기를 빼 둔다.
② 프라이팬에 참기름과 식용유를 반반으로 섞어 두르고 뜨거워지면 먼저 꽈리고추를 넣고 볶는다.
③ 꽈리고추가 어느 정도 익으면 호박씨와 호두를 넣고 같이 볶다가 간장을 넣고 불을 약하게 하고 은근히 볶는다.
④ 간이 고루고루 배도록 자주 뒤적여 준 후 간이 어느 정도 배면 설탕을 넣고 윤기 나게 한다.
⑤ 통깨를 뿌려 그릇에 담아낸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소통'의 팔 벌리고 '이해'로 껴안아야

☑ 행복한 부부관계 만드는 법

지난 10월, 이영하–선우은숙 부부와 박철–옥소리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 이들의 이혼 사실은 대중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연예인들의 결혼과 이혼은 연예 프로그램에서의 가십에 지나지 않았지만 행복하고 모범적으로 살던 모습으로 '잉꼬부부'라 평가받으며 10년 넘게 살던 부부들이기 때문이다. 이혼 법정 방청석에 앉은 듯한 쌍방의 폭로전을 보며 "우리 부부도 혹시…" 내지는 "설마…"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부부 자비명상 프로그램 중 '부부간 108배하기' 행사 장면.

하루 평균 370쌍 이혼, 세계 3위의 이혼율.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성격차이 등으로 젊은 부부의 이혼이 많았지만 현재는 중년 이후의 '늦은 이혼'이 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기준의 통계청 자료는 65세 이상 남자 이혼이 1996년 773건에서 지난해 3087건으로 3.99배, 여자는 198건에서 1251건으로 6.31배 증가하여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1990년부터 '부부행복학교' 등을 운영하며 가정의 지킴이, 부부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가정문화원 두상달 이사장에게 바람직한 부부에 대해 물었다.

"결혼은 완전한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 완성을 위해 가는 길"이라며 말문을 연 두상달 이사장은 "부부의 갈등은 상대방이 나와 같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차이를 알면 이해와 용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후에도 생기는 문제들은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많은 부부들이 화부터 내는 등 대화 훈련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이은 그는 "갈등의 해결은 대화 등 소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싸움도 일종의 대화다.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잘 싸워야 한다"며 부부간 소통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현재는 남녀평등의 시대이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지나 IT시대에 살고 있다.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달라진 가정, 남편과 아내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이 시대의 바람직한 부부란 사회에 걸맞는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알고 존중하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를 말한다.

▲명상으로 푸는 부부갈등="나의 눈이 맑지 못해 당신이 불법을 담은 그릇이고 부처인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 일과 스트레스를 달고 살던 당신에게 '더 사랑해달라, 더 아껴달라'며 부담만 주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2005년 마곡사 부부명상 참가자 서미영씨)

배우자의 세계를 자신의 잣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상호간 소통의 길이 열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마가 스님(나누는 기쁨 공동체 상임대표)은 "자비명상법은 분별심을 버리고 불상에 절하듯 부부가 서로 스스럼없이 절하며 존경함으로써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길러 부처님을 닮아가는 수행법"이라며 가정에서의 자비명상 실천을 강조했다.

부부가 함께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된다. 2박 3일의 일정 중 첫날에는 자기소개와 친분 쌓기 활동을 하고 부부가 짝이 되어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둘째 날은 배우자에 대한 쌓인 감정을 표현하고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을 건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자기와 배우자에 대한 긍정명상을 한다. 또 저녁에는 유서쓰기를 통해 삶을 돌아본다. 마지막 날에는 배우자를 존중하는 절 명상을 하는데 서로 각자의 배우자에게 108배를 하는 것을 끝으로 프로그램을 회향한다.

▲갈등의 골이 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조급하게 해결하려는 탓도 있다. 환자들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처럼 부부관계에도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두상달 이사장은 "부부행복학교를 수료한 뒤 더 이상 살 수 없다던 부부가 화해하고, 이혼장을 찢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봤다"며 내 탓임을 알고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 어렵고 힘들 때는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투자전문가 우승택의 투·자·강·좌 4



有爲에 다하지도, 無爲에 머물지도 말라

투자전문가 우승택(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씨의 '투자는 아무나 하나, 유식(唯識)으로 하는 투자학'의 네 번째 강좌 '워렌 버핏의 투자기법'을 요약 · 정리했다.

현재 서점의 베스트셀러 중에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자기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현실이 된다는 내용이다. 불교에는 극락세계의 해, 물, 땅, 나무 등 16관법을 통해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관무량수경>이 그와 같다. <시크릿>이라는 책은 현세의 작은 부자를 만들 수 있지만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 <아미타경>의 <정토삼부경>은 무량대복을 얻게 해준다. '법성게'로 함축된 화엄사상도, <반야심경>으로 요약된 반야사상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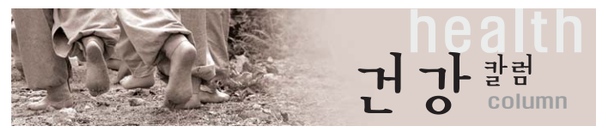
우리 몸은 인과에 걸리지만 '연(緣)'을 알면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은 인과에 갇혀 소유의 모드(Having Mode)에서 사는 경우의 이야기로 존재의 모드(Being Mode)가 되면 콩 심은데 팥이 날 수도 있다.

사실 가치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국내 출간된 워렌 버핏 관련 도서는 30여종이나 정작 워렌 버핏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지식을 설명할 때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만 지혜를 설명하는 것에는 말이 필요 없다. 타인에 의한 워렌 버핏에 관한 글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논하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난은 부처님 말씀은 모두 들었을지라도 이심전심의 가르침(心印)은 얻지 못했다. 동그라미를 예로 든다면 아난은 들은 그대로만 알았을 뿐 고무줄이 흐트러져 있는 모양새도 동그라미임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교설방법은 답 자체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즉, 세모, 네모,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 다각형에 대한 개념 확장을 통해 동그라미가 각이 무수히 많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보였을 뿐이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답을 깨우치게 만드는 가르침으로 본인 스스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1993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방침을 내세우면서 삼성카드 사장을 경질한 사건이 있었다. 그룹 임원단 모임에서 카드업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당시 삼성카드 사장의 답변은 "개인의 신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라는 틀에 박힌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건희 회장은 "카드업은 룸살롱업이다. 잘 팔아봐야 외상을 못받으면 망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 호텔업의 개념은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개별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처럼 업의 본질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유마경>의 "유위도 다하지 말고 무위에 머물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중도를 지키는 것은 삶에도 투자에도 중요하다. 정리=조동섭 기자



9. 겨울철 비만

현대사회 최대의 고민, 비만!

비만이란, 체내의 지방이 축척 또는 지방조직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5%, 여자는 체중의 30%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다른 계절보다 유독 겨울에 살이 많이 찌는 이유와 겨울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겨울은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계절이다. 신장의 기운이 왕성하게 되면,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심장의 기능, 즉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적인 이상상태가 발생하기 쉽다.

겨울에 식욕이 당기고 살이 찌기 쉬운 첫 번째 원인은 서늘한 기온 때문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모세 혈관은 수축하게 되고 내부의 장기로 가는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는데 특히 위장부분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위장운동과 위산분비가 활발해지고 소화가 촉진되어 입맛이 당기고 공복감을 빨리 느끼게 된다.



활동량 감소로 지방 축적되기 쉬워

기초대사량 늘어 운동효과는 증가

두 번째로는 일조량의 변화로 인한 신체 호르몬 분비의 변화이다. 일조량이 줄어들면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늘어나는 대신 기분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계절성으로 우울한 감정이 생기기가 쉽다. 계절성 우울증은 식욕 저하를 동반하는 일반 우울증과 달리 식욕을 왕성하게 하므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서 살이 찌게 한다.

세 번째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동물적 본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은 따뜻한 양기(陽氣)를 수렴하여 몸 안에 저장하려는 작업을 위주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름철 활발했던 기운의 흐름은 잔잔해지고 지방대사가 줄어들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량 감소로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므로 배와 팔뚝, 허리에 지방이 축적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겨울철에 다이어트가 어려울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지금이야말로 다이어트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자칫 강도 높은 운동으로 기운이 흩어져 쉽게 피로해지지만 이 시기에는 비교적 강도 높은 운동에도 쉽게 지치지 않고,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1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30분~1시간가량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완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방에서는 날씨가 서늘해지면 몸 안에 한습(寒濕)이 쌓여 피부, 혈관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움츠러들고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를 많이 움직여서 적당한 발한(發汗)과 함께 기혈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체온저하 및 면역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동복장은 긴 소매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부상방지를 위한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이어트는 굳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격려와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짜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의원에서는 한습(寒濕)을 제거하는 의이인, 택사, 계피, 백복령 등의 한약재를 사용하여 거한이수(祛寒利水, 차가운 기운을 없애고 수분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시켜서 체중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약물치료, 침구치료 등을 병행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웰빙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탈종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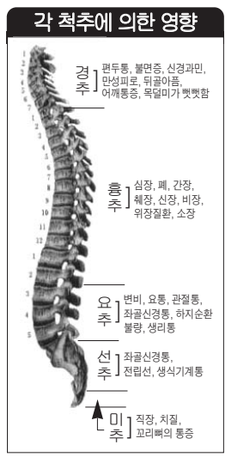
● 법명 : 성 수
● 성명 : 허 송 옥
● 승려번호 : 2550-1166

상기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11월 13일 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 부산연수원 :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어느새 가을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현대결혼 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십여년 이상의 시간속에서 성공적인 만남의 성혼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큰 보람으로 일 해 왔습니다.
성혼이 늦어지신 불들께는 더 좋은 만남으로 인연을 만나시기 바라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11월 부터 – 12월까지 회비의 반만 받고 회원등록 해 드립니다.

인연의 길따라 좋은인연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쭈,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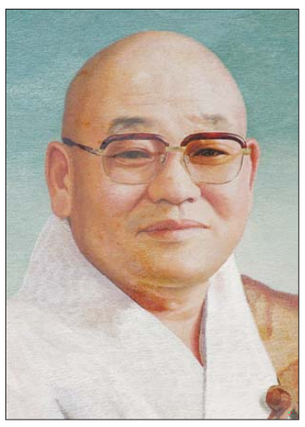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자수 30% 할인 한정 판매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 시간 지날수록 그 진가는 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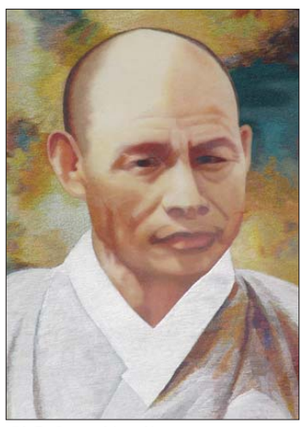
국내의 전통자수는 고임금 고효율의 사회변화로 70년대 이후 한복자수와 특수한 목적의 종교화 등 몇 안 되는 분야에서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자수는 만수대 창작사 소속 1천2백여 수예창작단이 전통자수 외에 핸드포토(초상자수), 종교화, 소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근세예술의 극치' 라고 인정받고 있다.

손자수의 예술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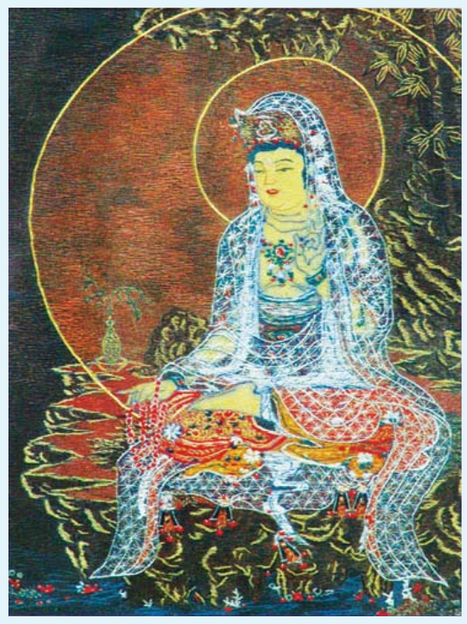
핸드포토는 한가지 대상을 놓고 100점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수를 놓는 장인의 해석과 개성에 따라 각각 다른 감각과 질의 성품을 지닌 작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동양의 사상문화가 다시 조명 받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동양의 문화예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만수대 창작사' 의 초상자수는 외국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법장스님(1점)
◆자수 크기 : 58(가로)cm×78(세로)cm
◆액자 크기 : 76(가로)cm×106(세로)cm
◆정상 가격 : ~~1,000,000~~ → 700,000원



한용운스님(1점)
◆자수 크기 : 58(가로)cm×78(세로)cm
◆액자 크기 : 78(가로)cm×98(세로)cm
◆정상 가격 : ~~1,000,000~~ → 700,000원



수월관음大(1점)
◆자수 크기 : 82.5(가로)cm×152(세로)cm
◆액자 크기 : 110(가로)cm×178(세로)cm
◆정상 가격 : ~~3,000,000~~ →
2,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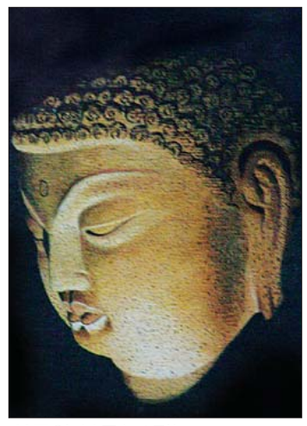
수월관음小(7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백의관음(3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1(가로)cm×46(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지장보살(3점)
◆자수 크기 : 9(가로)cm×23.5(세로)cm
◆액자 크기 : 31(가로)cm× 36(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석굴암 불두(12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성철스님1-양산(10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성철스님2-정원(3점)
◆자수 크기 : 19(가로)cm×14(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증전



김광식선생 경면주사 반야심경
◆기증자 : 김광식 선생 ◆작품 크기 : 36×41cm
◆가격 : 150,000원



현해스님 달마도
◆기증자 : 현해스님 ◆작품 크기 : 26×34cm
◆가격 : 75,000원



현해스님 복하도
◆기증자 : 현해스님 ◆작품 크기 : 26×34cm
◆가격 : 75,000원



지족스님기증 진언 2점
◆작품크기 : 34×110cm
◆가격 :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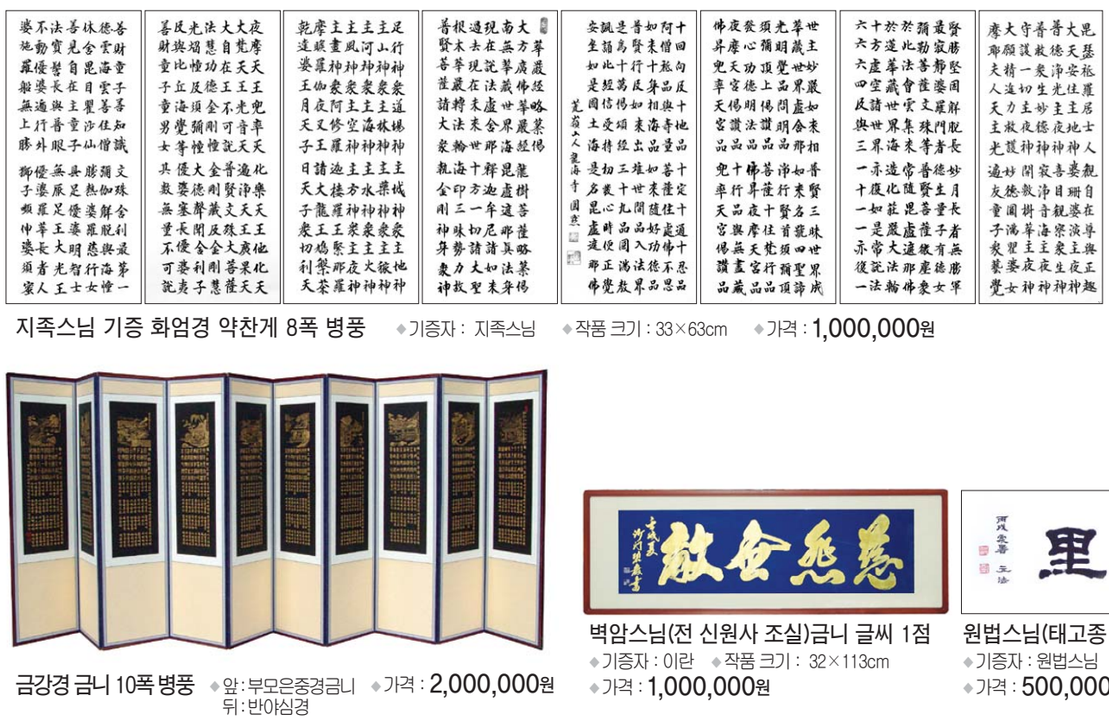
지족스님기증 글씨
◆작품크기 : 33×116cm
◆가격 : 500,000원



법흥스님 글씨2점
◆작품크기 : 33×138cm
◆가격 : 500,000원



활안스님 오도송 2점
◆작품크기 : 33×103cm
◆가격 : 1,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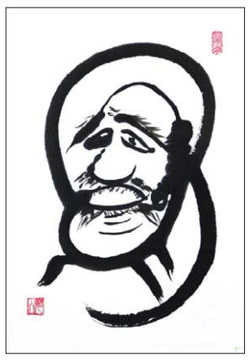
지족스님 기증 화엄경 약찬게 8폭 병풍 ◆기증자 : 지족스님 ◆작품 크기 : 33×63cm ◆가격 : 1,000,000원



도건스님 달마도
◆작품 크기 : 38×67cm
◆가격 : 150,000원



도건스님 금니달마도
◆작품 크기 : 35×50cm
◆가격 : 1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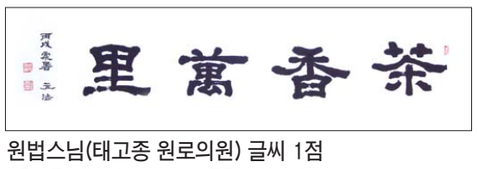
묵산스님 달마도1점
◆작품 크기 : 35×50cm
◆가격 : 150,000원



수증스님 그림 족자
◆작품 크기 : 19×45cm
◆가격 : 150,000원

금강경 금니 10폭 병풍 ◆앞:부모은중경금니 뒤:반야심경 ◆가격 : 2,000,000원

벽암스님(전 신원사 조실)금니 글씨 1점
◆기증자 : 이란 ◆작품 크기 : 32×113cm
◆가격 : 1,000,000원



원법스님(태고종 원로의원) 글씨 1점
◆기증자 : 원법스님 ◆작품 크기 : 26×100cm
◆가격 : 500,000원



묵산스님 글씨
◆기증자 : 묵산스님 ◆작품 크기 : 33×115cm
◆가격 : 350,000원

현대불교 제 653호 2007년 11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불자생활정보 | 25면

▷ 문의 : TEL 02)2004-8219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초 대 장
신비한 미륵불 발견 도량
부처님 5존불 점안식
불기 2551(서기2007년)
11월 17일(토)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번지
전 화 054)683-2211
휴대폰 011-538-2211
사바사 주지 덕월 합장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사주명리 관상학 구성학
풍수 음양택 성명학 최면학
빙의 전생 영가 치유 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재정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넷)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중국 청나라시대 황실비법으로
전해 내려온 비전비학인
마음 용신법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인연법을 공개한다.
족집게를 원하는자! 인연자는 오라!
본 인연법을 깨우치면 운을 바꾸는 법을 알수가 있다.
(역학인, 일반인, 스님, 보살님)
TEL 053)472-5354
H·P 010-6780-7716

역학수강생 모집
기초반(무료),중급반,연구반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운영함
역학30년 유명교수님 : 속성 완수
인천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보살선방
(1인1실-방1,주방,거실,욕실
부부실-방2,주방,거실,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며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 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불광대학
053)656-6766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출장법문
영가천도
017-322-4625
043)833-462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 승무작법
010-2570-3847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법당조성을 이루고자 하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각 사찰 대덕 스님의 보시를 기다립니다
불보살님은 조성하고 있으나, 지장탱화, 신중탱화, 다기, 촛대등을 (목불가능)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혹, 보관중인 탱화 및 다기 촛대를 보시해 주시면 대덕스님의 큰 공덕으로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위치 :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23-1번지
무량암 관정스님 합장
010-6665-699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거제)
010-8813-6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북한산성입구
(50세~60세사이)
02)387-32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100일 기도 하실 스님)
011-591-8228

기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약사여래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가족처럼 지내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갓바위-은해사 방향
(청통, 와천 IC에서 1분)
053)965-5858
011-508-14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백만원)
▷ 울산
052)227-082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10-3189-87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월100만원외
보너스 지급)
011-493-1121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2)282-9270

부처님께 출가하여
스님이 되실 분
여(女) 행자님을
기다립니다
(45세 이하)
경북 조용한 비구니 사찰임
011-810-995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8564-4569

- 부전스님 모십니다
- 행자모집
- 총무거사님도 모십니다

(오래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051)256-3483

부전스님
모십니다
032)937-3483

부전스님
모십니다
032)937-01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비구부전스님 및
행자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10-2982-349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이하)
▷ 경남김해
018-575-8811
055)331-630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예천)
011-758-1819

운전기사 구함
신심있고 신체건강한
45세 이하의 처사님을
구합니다
011-415-5558

사무장 구함
워드가능한 35-45세
여 사무장님 구합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서울)
011-9087-6287

금산 홍삼 액기스(금산수삼센터88)
당신도 병없이 오래살수 있다
- 게르마늄 탕기 구정구포 홍삼 24시간 숙성 6년근 원액-100ml×60포 11만원
- 대한축구협회 공식공급용 홍삼(오가피외 8가지 첨가) -70ml×60포 7만5천원
- 십전대보탕-100ml×60포 7만원

당뇨있는분 누에가루환 25일분 무료드림
KBS1,2,MBC,동아,조선,중앙일보 보도자료드림
010-2414-4984 입금계좌: 농협 187-02-274348(이양희)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역 학 공 부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 사 주 초 급 : 11/12(월) 18:30 속성반:11/13(화)
- 전문가 과정 : 11/9(금) 18:30 이선종 교수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 한국 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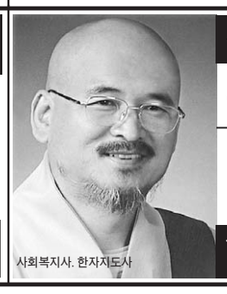
선기공 수행(전수자 모집)
남, 여 승속 관계없음
- 시간을 갖고 꼭 배우고자 하는분 환영(절대기술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 병원에서 원인모르는 병 氣와 기도로써 다스리면 호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분
-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선,기,공 무료로 전수해 드립니다.

無心으로 뜻있는 불자님들의 기도 및 선,기,공 수행체험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위치 : 대구 팔공산 한티재 중턱 견성암

054)974-1157 / 011-549-8130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 양성"
정통교재 - 命理學 비전, 命理學 비결
각권 30,000원
인천 明陽 명리학당
연락처 : 032)330-4684, 032)503-4684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四柱는 감정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 위주로 풀이하고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10년을 공부해도 용신잡기가 어려운 四柱를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30여년간 연구와 임상을 총정리한 太極四柱는 운명의 진리를 거울처럼 밝힘으로서 일사천리로 판단하고 감정할 수 있다. 성격과 지능과 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청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유명인사들의 사주를 실제 감정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大韓護國佛敎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달마문화축제 동참안내
11월 24일(음, 10월 15일)
소림사에서 열리는
달마문화축제행사와
수계법회에 종단을 초월하여
동참하실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효사 육임복변집

▷ 250만원(매일 한권씩 전 60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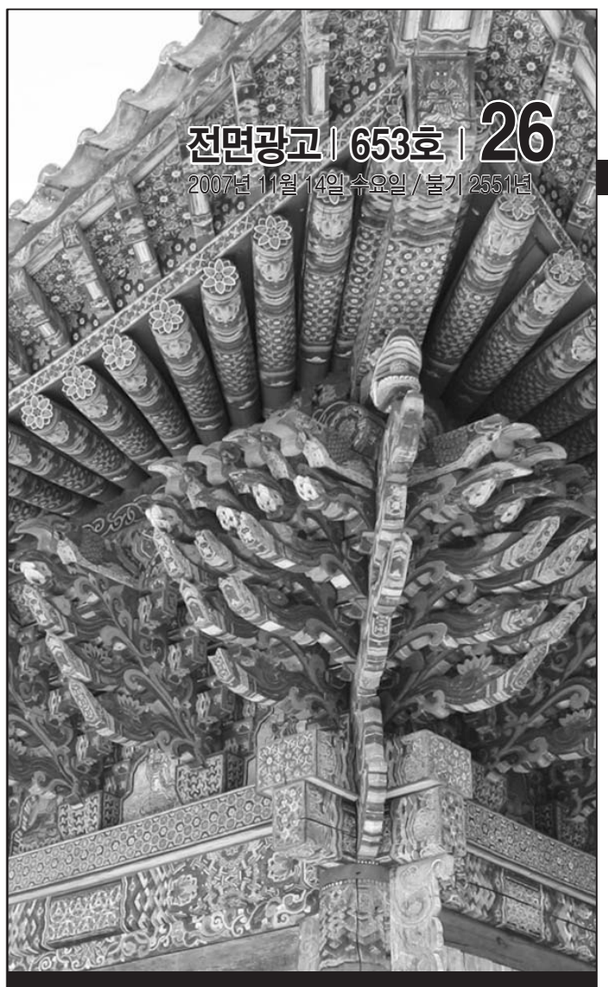
육임공부를 하지 않아도 온 시간, 전화한 시간으로만 아래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왜 왔는가?
- 어떤 정황인가?
-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가?
- 어떤 부정 빌미가 붙어 있는가?
- 누구의 산소에서 어떤 탈이 났는가?
- 시험 · 승진 · 당선 · 취직이 되는가?
- 부귀빈천 여부
- 현재운세, 금년운세, 12년간 운세
- 1년 월별 신수
- 초사
- 육임 직지 요결
- 가정 사정
- 묻는 목적사 항목별 답
- 각 일별, 시간별 길일, 길시, 길방

이상 매일 매시간 마다 그 답이 모두 써져 있어 즉시 사용하게 됩니다.

육임명가 **육임나라 (주)** 02)993-8680
<최종판> www.taoetmple.net <교환중>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농협은행 170338-56-155880 <김나형>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삼랑진역전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4억원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 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법당 : 60평
● 요사 : 9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6억5천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7천

● 위치 : 마산지역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명부전 : 200평
● 부지 : 1,200평 외 국유지 1,500평 사용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단청)
● 요사 : 3동 60평
● 산신각 : 7평(목조,단청)
● 기타 : 노송, 종각, 석등
● 가액 : 6억8천만원(융자있음)
● 특징 : 200년 역사의 유서깊은 도심 정통 사찰임

● 위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부지 : 700평(종교용지)
● 요사 : 2동 50평
● 기타 : 종각, 석탑, 석등
● 가액 : 3억2천만원(융자2억이상가능)
● 특징 : 70년역사의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558-08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46-2 (자비사)
국제신문사 뒤편 교육대학 바로 옆
● 대지 : 104평, 건평 : 196평
● 지하 : 52평 (주택 및 철학관)
● 1층 : 52평 (주택 및 점포), ● 2층 : 52평 (요사채)
● 3층 : 40평 (법당)
● 삼중스님께서 주석하시는 곳 자비사
● 가액 : 8억 5천 (은행대출 5억 가능)
011-863-3557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822-8000

사찰(급)안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 30분거리
● 가액 : 가격절충(응자1억 3천가능)
010-4583-2035

사찰전세 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요사채 50평
● 산세좋고 경관수려 대산임수가 용이하고 산신각과 용궁이 유명함
● 전세 5,000만원
011-9918-525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시 근접
● 임법당 연꽃 연못
● 옆산 텃밭 총 320평
● 임대 : 보증금 250만원, 1년300만원(양도가능)
● 양도가 : 1억 2천만원
017-813-9126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입구)
불사한지 3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약30평,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사용
연못 조경 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 천연염색 체험장으로도 적합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9-245-8929

명산토굴안내

앞에는 1급수 계곡물이 흐르고
뒤에는 암벽
1년내내 기도객이 끊이지 않고,
건축이 자유로운 명산토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90평, 밭 : 600평
● 진입로 완전포장,
조립식 주택 28평,심야전기 보일러
● 아미타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임법당
● 방 4, 입식부엌, 욕조, 목욕실
● 토목공사 완료, 몸만 와도 불사 됨
● 스님 건강상태로 양도
● 가액 : 8천7백만원
017-407-0021

도심속 포교원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입구역에서 1블럭
● 평수 : 상가주택 2층 47평
방3, 거실2, 옥상 단독 사용가능
주차장 완비,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20만원 중 선택
● 약간의 시설비(절충가능)
※역학스님 법사님보살님위치상 적격
011-9116-5113

명당(터)안내

● 위치 : 고흥 남쪽 끝 한적한 바닷가
● 평수 : 총 550평(관리지역)
● 용도 : 암자, 토굴, 팬션, 별장지
● 특징 : 정남향 뒤쪽 산, 앞 바다, 2차선 도로접
● 가액 : 사정상 4800만원
061)835-4988
017-626-49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심지 산밑
● 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0평 슬라브
● 요사 40평 슬라브
● 가액 : 2억 6천만원
018-554-619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시장내 상건물 1층
● 평수 30평
방2,주방1,창고1,화장실 별도
● 법당, 삼존불(미타관음지장), 산신, 후불신중탱화
● 가액 : 보증금1,500만원/ 10개월 3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7-508-26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 국민관광단지내
● 부지 : 토지 500평(대지)
● 건축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산신각, 용신각, 한옥 일체 총 180평 동남향, 최신시설
● 가액 : 9억(임대도 가능) 보증금 1억원, 월 150만원
011-706-7489(향봉)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 시립박물관 옆
● 평수 :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9940-0312
010-2456-8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동남부
● 부지 : 2천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종무소, 요사채
● 남향의 아담한 사찰
● 가액 : 5억3천만원
017-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안강 (읍내 5분거리)
● 건물(6동)만 양도 건평 약400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 명부전
● 가액 : 7천만원
054)763-63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011-875-3513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 지역등산로길
● 가액 : 8천5백만원
● 몸만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포교당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도심포교당
● 3층 건물중 3층 40평 법당, 공양간, 방3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협의 결정
016-848-715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문현동 포교원 하실분 연락주세요
● 시설일체완비
● 몸만오시면 됩니다
051)632-8424
010-5570-842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건평 : 30평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0-9757-5608
010-2871-5285

처음 시작하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2층 건물 중 1층 20평
● 법당1, 방2, 도시가스, 욕실, 살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250만원
● 보시는 분 요지, 현 운영중
010-6411-288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칠성각
● 약수 사용, 심야보일러
● 조계종 비구니 암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찰
● 조계종 승려 원함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581-6044

청송 토굴 안내

● 국도접, 물흐르고 대지 370평
● 요사 32평, 법당 5평, 창고
● 가액 : 1억 3천만원
010-3131-653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 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109-6074
054)293-2074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500만원
011-594-1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450평
● 대웅전, 미타전,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4개
● 가액 : 답사 후 절충
● 산세수려, 수행처로 적합
010-9870-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총평수 :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2, 방4, 창고, 반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2천 2백만원
053)942-347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두류4거리
● 평수 : 45평(4층건물 4층)
● 삼존불,각 탱화,산신각, 방3개
● 보증금 3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882-969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한옥암자. 도심속 위치좋음
●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후 결정)
010-516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근교
● 900평
● 법당 , 요사채, 주차장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7천5백만원
010-4030-1956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급양도)

● 위치 : 마산 근교
● 국유지 : 12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양도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 410여평, 하천부지 : 510여평(현재 사용중)
● 대웅전 : 목조단청(21평)
요사 : 한옥 기와 2채(32평)
● 경내 : 범종각, 8층 석탑, 약사여래석불, 관음석불, 산신 용왕단
● 특징 : 사찰역사 약 50년, 전문지관이 극찬한 천하명당
● 양도가 : 2억3천만원
010-6834-8868
사중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별장식 토굴안내

● 위치 : 춘천시 강촌근교
● 건물 : 한옥식 휴식공간
● 평수 : 130평
(종중땅:도지는 묘지벌초로 대체)
● 내용 : 건축물 등기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수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포교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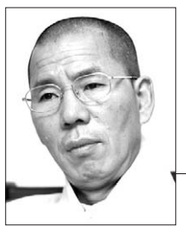
● 위치 : 온양 아산 시내 중심가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2층 건물 2층
● 내년 3월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운행(교통편리)
● 법당, 상담실, 스님방, 창고, 욕탕 구비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 철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즉시법회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대 형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 시설비 답사후절충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 법당, 주지실, 3층 : 방3, 주방, 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888-0130



불자 세상보기

법 등

조계종 호계원장 · 경실련 공동대표

'바보상자'의 진화 혹은 폭력

한 때 TV를 '바보상자'라고 한 적이 있었다. TV가 개인의 주관적 사고를 방해하고 사회의 정서를 '소떼' 몰듯 몰고 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실제로 TV를 시청하느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어른이나 TV에서 흘러나오는 유행어를 뜻도 모르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 코미디나 연속극이 국민정서를 이끌고 가는 힘은 놀랄 만하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TV가 기여하는 순기능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과 사회 현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TV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엄청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그 인기를 조금씩 뺏기고 있긴 하지만, TV는 여전히 파급력이 큰 매체다.

최근 방송위원회가 TV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방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당연한 일이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TV가 갖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중간광고 같은 중대한 결정은 공의를 모으고 수차례 토론과 시범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허용 쪽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으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들은 이 결정이 바보상자의 진화라고 보기보다 하나의 폭력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시행되는 일이라는 이유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한 시간당 광고 허용 시간은 18분이나 된다. 일본의 민간방송도 총 방송 시간의 18%가 광고시간이다. 유럽은 좀 적은 편이어서 독일이나 영국은 시간당 12분 아일랜드는 10분 정도다. 이런 비율로 배정된 광고가 프로그램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여론조사 통계에 의하면 시청자들은 이 같은 중간광고에 대해 넌더리를 치고 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중간광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37%는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옮긴다고 답했다. 이는 "중간광고 삽입이 프로그램에 몰두하지 못하게 한다"는 일본 시청자들의 주장과 부합된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이 10분 내지 15분 이상 앉아 있거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TV의 중간광고가 어떤 개연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도 다 하는 일이니 우리도 하자'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결정은 공중파 방송의 살림살이를 더 부풀려 주는 데 기여하는 것 말고는 실익이 있는 결정이 못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점은 특히 심각한 일이다.

생각해 보라.

시청자에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권리가 있다면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간에 불쑥 광고가 튀어 나와 시청의 맥을 끊어 버릴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방영 형태가 변하는데 맞춰서 프로그램의 제작 형태도 바뀔 것이다. 광고를 의식한 프로그램의 제작이라면 그 작품성에 대한 기대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가 짧게 끊어지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판을 치면 국민 정서가 은근히 단발성으로 변해갈 것이다.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광고 시장의 활성화나 공중파 방송사의 재정 확대가 국민의 정신세계를 불안정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허용할 만치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시청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같은 일차원적인 해법 말고,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야 말로 공익을 대변하는 방송의 대국민 서비스가 아닐까?

'종교자유' 칼럼 35. 골 세리머니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대표는 공인, 공개적 종교행위는 부적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는 인종 · 종교 · 정치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함께 묶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으로 경제효과뿐 아니라 국민적 혼연일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골이 터지거나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순간 그 환희감을 반감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 세리머니'나 '하나님 운운'하는 멘트들이다. 인종과 종교간 긴장을 풀어보자는 화합과 축제의 마당에 다시 종교가 끼어들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종교과잉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종교오염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선수들이 유별난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역도의 장미란 선수나 유도의 이원희 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박주영이나 2002년 월드컵 당시 이영표와 송종국 같이 축구를 통해 전도를 꿈꾸는 선수들 역시 기도 세리머니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매 게임마다 둥그렇게 모여 기도하던 김영철 감독 하의 여자배구국가대표팀도 개념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축구장이 종교로 오염되기 시작한 것은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비쳐지고 인터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만 연발하는 차범근 감독을 향해, 도올 김용옥 교수는 당시 10월 3일자 동아일보에서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라 어느 교회팀 감독' 같이 보이는 어이없는 행동을 지적하며 "공인의 공적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행위는 공적 모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며 점잖게 타일러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대표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대표일지라도 개인의 종교표현은 자유 아니냐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골을 넣을 때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기쁨에 들떠 외치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표현도 하고 싶을 것이다. 또 그런 극적 심리상태를 두고 각박하게 따지는 것도 내키지는 않는다. 더구나 "패한 사람이나 팀은 신이 잠시 외면하거나 저주했단 말이냐?"며 유치한 논리를 들이대고 싶지도 않다. 기쁜 것은 기쁜 것이다. 다만 공인이란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의 종교적 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종교인 스스로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대체로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회적 흐름 때문인지 공식행사나 공공장소에서 공직자의 종교적 표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공공성 침해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정서적 소외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대표가 공인인가이다. 공인의 법적 기준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대우를 하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국가대표는 공무원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대국민 봉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사전적 의미의 '공직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기간만큼은 대표팀은 국가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재원 역시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며, 더구나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선수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정한 연금, 병역면제 등의 혜택까지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대표는 분명히 공인이다.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가대표는 정치사회지도자 · 언론방송인 · 연예인과 함께 국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공인일 수밖에 없다.



기도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박주영 축구선수.

차범근 감독은 기도문제가 불거진 지 수년 뒤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 결코 타종교를 의식한 시위행위는 아니었다. TV에 그 모습이 비쳐지면서 오해와 시비가 생겼던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나 공인 신분에 대한 그 어떤 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시위행위'가 아닌 것이 고맙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공인이라면 당연히 타종교나 국민을 의식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절정의 순간에 혼자 자신의 신에게만 감사를 고하는 모습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타종교인은 씁쓸하다. 단 몇 초의 짧은 순간이지만, 보고할 일이 있어 기쁨의 절정을 함께 만끽하지 못하겠으니 잠시 참아달라는 것은 자신의 종교가 국민보다 우선한다는 오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홍명보 · 김남일 · 박지성 · 설기현 · 이을용 등 불자 선수들이 합장을 하거나 오체투지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예산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스포츠라는 공적 영역마저 기도꾼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국가대표에게 공적인 경기에서 사적인 욕심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불자의 눈

'10·27 특별법' 꼭 풀어야할 과제

지난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 · 27 법난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 발표의 핵심 사안은 두 가지.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전대미문의 법난을 일으킨 원인이 조계종의 통무원장인 월주 스님에 대한 반감이었다는 것과 법난의 전후 과정을 전두환 前 대통령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조계종은 11월 6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종회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10 · 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조계종의 요구에 대권 주자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11월 6일 지관 스님을 예방한 정 후보가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의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너무 급박하게 일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한 때의 분위기나 여론몰이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시간에 쫓기거나 일부 의견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포괄적인 조사와 보상이 담보되는 법을 구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전치권이 10 · 27 법난의 진상과 특별법을 통한 후속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일은 종단 차원에서 급하게 진행해야 할 일이다. 대선 정국에 휩쓸린 정치권이 얼마나 귀 기울여 줄지 자못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후원에 동참하자

중앙승가대가 11월 20일 후원회를 발족한다. 중앙승가대의 교육 환경 개선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원확충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 학인스님들의 등록금 지원과 연구 수행풍토조성, 교원학보 및 연구활동 보조, 국내외 학술교류 활동 보조, 교직원 재교육, 필요시설 건축 등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학인들의 교육 여건은 물론 교수진의 급료와 연구지원 등이 약한 수준이다 보니 인재 불사도 미진하고 결국 좋은 연구결과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계층 간의 경계가 거의 없다. 스님들도 전통 교육기관에서 내전을 연구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불교학과 현대 제반 학문의 연계 연구도 필요하고 불교의 전통 가치관을 현대사회의 정신가치와 접맥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앙승가대가 보다 열린 교육으로 시대를 따라잡는 '현대적인 스님'들 배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포교활동이 부진한 현 상황에서 중앙승가대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틀에 짜인 교육의 범주에서 맴돌지 않고 보다 역동적인 교육을 통해 종단의 미래를 담보해 줄 인재를 기르는 일은 급하고도 급한 일이다. 큰 뜻을 가지고 발족되는 중앙승가대 후원회에 모든 불자들이 동참해 불교의 미래를 위한 촛불 하나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최종

불자정보 653호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문화예술포교원
● 위치 : 서울 구로 APT 대단지
● 5층 280평(법당,선방, 공양간 등 170평,세미나실,칠보, 자연염색,한지공예 등 110평)
● 6층 70평(집무실, 요사채)
● 보증금 1억, 월세30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1억(반값이하)
011-9814-02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 72평
(아파트 약4천세대 상가 5층)분양받았음
● 모든시설 최상급, 산사와 같은 포교원
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편리
포교에 원력있는 스님 최상의 조건
● 가액 :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016-9878-1282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부근 (동묘역 앞)
● 평수 30평, 3층건물 2층 법당1, 방2, 보일러 및 주방 시설 완비
● 현재 포교원으로 사용중이나 일반 점포로도 사용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100만원)
011-310-0361
02)2236-0361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74-7외 4건
● 평수 : 2,100평
● 가액 : 1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함, 토목 석축 완료
● 풍수적 최고의 명당터
011-9837-8668
061)362-9863

사찰(현대식)안내
● 위치 : 경기도(행정타운)서울30분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대지 175평(주차장 별도사용 100평)
● 특징 : 포교와 기도정진 도량 복지시설 유치원, 전망좋고 교통 편리한 산과 도심이 만나는 위치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함)
● 가액 : 도량 답사후나 전화상담요망
016-510-3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108후불, 신중탱화, 감로탱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57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0-2284-0737

사찰안내
● 위치 : 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470평
● 법당 30평,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10평
● 심야전기, 조경이 되어있고 앞에는 계곡
● 가액 : 3억원
016-274-3170

임법당 주택안내
● 위치 : 부산 구포동 구포시장 위
● 대지 : 40평
1층 슬라브 30평(법당 15평)
2층 신축법당 허가 有
● 8m 도로 주택지 사거리 코너 향후 재개발 예정지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10-2563-5550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병천
● 부지 : 780평, 요사채 40평
● 대웅전 18평, 지상전 20평
● 공사 70%완성 진행중
● 가액 : 4억원
011-339-1946
011-294-8497

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1천만원 (9700만원 융자 안고)
017-501-231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에 최고의 시설
● 앞산 아래 무공해 지역이며 전철역에서 5분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시설비 5천2백만원
011-9876-3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산 낙성대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6655-4057

일반주택(임법당)안내
● 위치 : 진주시내에서 의령 방향으로 10분이내
● 대지: 200평
● 집 두채(한채 창고 겸함) 방3개 : 임법당 1개, 방 2개
● 가액 : 적정금액 양도
017-587-719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후문
● 복합상가 4층건물 4층전체 엘리베이트 유
● 건평 70평, 원목장식 최고시설
● 법당 25평,큰방 2개,거실, 주방, 화장실 2개 샤워장, 도시가스
● 직접보신후 가격절충
문의 011-577-1234

사찰안내
A. 위치 : 대명산 팔공산 대지 80평
● 3층 건평 80평, 심야전기, 에어컨 최고급 시설이 갖추어짐(인공폭포)
● 오시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B. 위치 : 김천시 구성면 진흥리
● 대지 510평
● 기존건물 3채(전기, 전화가능)
● 가액 : 6천7백만원
*교통 : 승용차 절까지 진입가능
010-8804-8041

임법당 주택안내
● 위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시내중심지역) 광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 400평
● 건물 : 한옥(고택)30평 <본채>
● 별채 40평(방8개)
● 도로 앞, 뒤 8M 도로
● 정원 : 100년 이상 수종 7그루,30여종 나무
● 가액 : 6억원(융자 1억7천) 협의 후 절충가능
017-607-2808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납골 200기 시설 (100기 미분양),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 2억5천만원
010-9115-683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 2리
● 대지 : 232평, 신축건물(3년) 60평
● 현 식당 운영중이며 심야전기 설치
● 시설: 식당 큰방 (15평) 주차시설 완비
● 주변경관수려 강, 산이 어우러져 있음
● 가액 : 3억5천만원
011-803-7448

주택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1 월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주택가 코너집
● 가액 : 4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포함)
031)257-5991
011-753-5991

부산 대 사찰 안내
● 가액 : 13억
● 부동산 사절
010-9630-0937

현대불교신문

문의 : 02-2004-8200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 희상 스님_ 크기 : 30.5 × 30.5

절의 미학 사진 : 박재완 기자_ 크기 : 26.5 ×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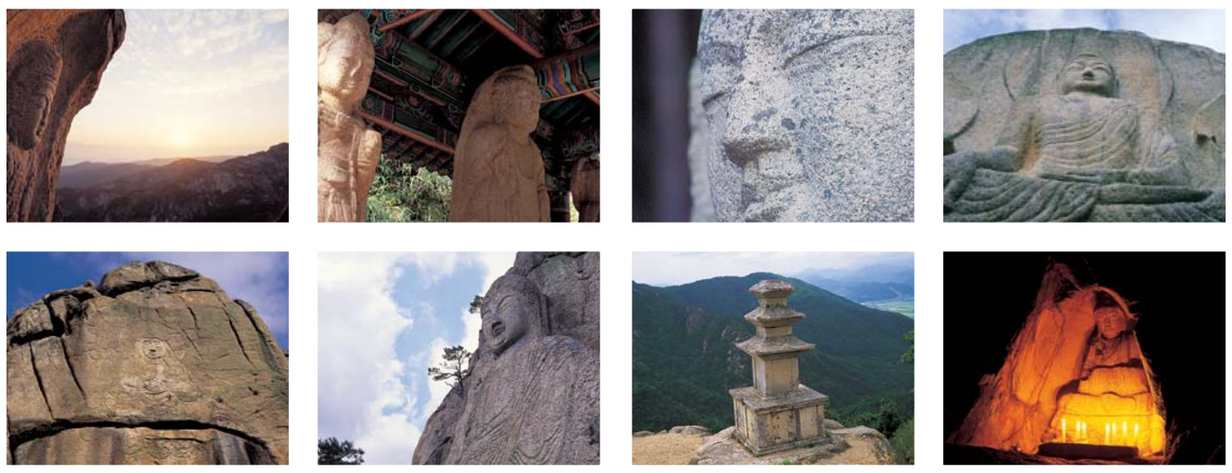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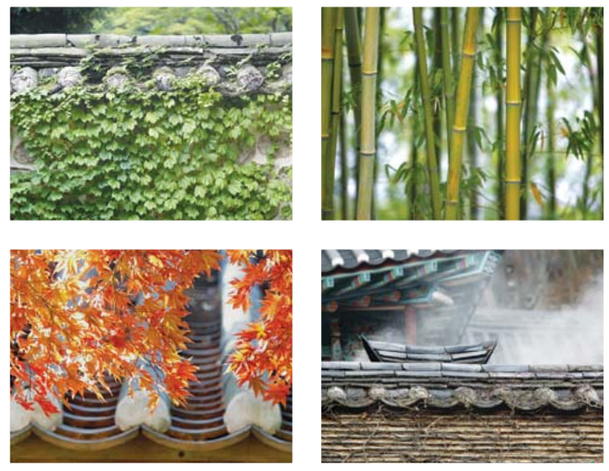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새로운2008달력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국정토 남산 사진 : 고영배 기자_ 크기 : 26.5 ×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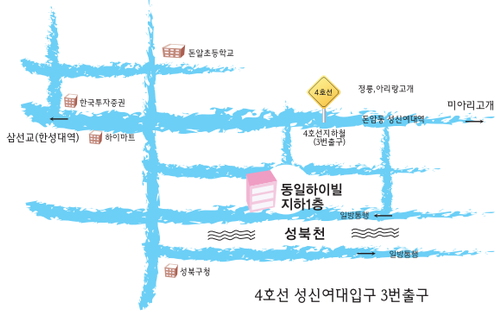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가
새롭게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이에 사업장을 옮기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새로운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운주사는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업무에 열성을 다하여
어러분 기대어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변경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02)3672-7181~4
팩스번호] 02)3672-7186. 7188
*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